





# Contents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I. 서론	11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분석	15
2. 청소년 정치참여 유형 및 특성 분석	20
3. 청소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 기준	30
4. 청소년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충청남도 학교교육의 역할과 과제	36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개요	47
2.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조사를 위한 양적연구방법	47
1) 연구 참여대상	47
2) 연구도구	49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0
3.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전략도출을 위한 질적분석방법	51
1) 조사대상	51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3
IV.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조사 양적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57
1) 청소년의 국내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57
2)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60
3) 우리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현황	63
2.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관심과 참여에 대한 실태분석	71
1)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71
2)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	74
3) 청소년의 정치 활동 수준	77
3. 청소년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	80
4.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경로 및 정치활동 실태	82
1)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 유형 및 영향 인식	82
2)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	86
3) 청소년의 정치 활동 중요성 인식 실태	90

5.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에 대한 인식	94
6.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	98
1) 충청남도 지역에 따른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실태분석	98
2)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정치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108
3) 청소년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	115
4) 청소년의 정치참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분석	119

## V.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조사 질적 연구 결과

1. 청소년 정치참여의 어려움	132
1)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132
2)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함	134
2. 정치참여 활동의 필요성	137
1)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성장함	138
2) 실천적이고 가치 있게 사회에 기여함	140
3.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의 내용	141
1)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함	142
2) 실천적 정치참여를 경험함	144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147
1) 가치 있는 실현을 통해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임	147
2) 자율적인 권한과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 참여의 내실화를 가져옴	149
3)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됨	151

## VI.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157
1)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의 양적연구결과	157
2)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의 질적연구결과	162
2. 정책제언	164
1) 청소년 정치참여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164
2) 청소년 정치참여 향상을 위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노력	166
3) 정치참여 효능감 향상을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167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학교의 노력	169

참고문헌	173
------	-----

## [부록]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 표 목 차

<표 II-1 정치참여도 수준에 따른 정치참여 유형> .....	18
<표 II-2 연도별 정책의제 및 과제 현황> .....	22
<표 II-3 2020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현황> .....	23
<표 II-4 청소년참여위원회 연령별 비율> .....	24
<표 II-5 2020년 시도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개소수 현황> .....	27
<표 II-6 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사례 예시> .....	33
<표 II-7 OECD 국가의 사회갈등 지수> .....	36
<표 II-8 해외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	37
<표 II-9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원칙> .....	38
<표 III-1 연구 참여대상의 일반적 특성> .....	48
<표 III-2 연구도구의 구성영역 및 문항구성> .....	50
<표 III-3 전문가 의견조사> .....	51
<표 III-4 F.G.I 대상자> .....	52
<표 IV-1 청소년의 국내기관 신뢰 수준> .....	57
<표 IV-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내기관 신뢰 수준의 차이분석> .....	59
<표 IV-3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	60
<표 IV-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가 권력기관 신뢰 수준의 차이분석> .....	62
<표 IV-5 청소년이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 .....	63
<표 IV-6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 .....	65
<표 IV-7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 .....	66
<표 IV-8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	67
<표 IV-9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 .....	68
<표 IV-10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	69
<표 IV-11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	71
<표 IV-1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및 정책의 관심 수준의 차이분석> .....	72
<표 IV-13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 .....	74

<표 IV-1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거지식 수준의 차이분석>	76
<표 IV-15 청소년의 정치활동 수준>	77
<표 IV-16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수준의 차이분석>	79
<표 IV-17 청소년의 정치 성향 유형 및 수준>	80
<표 IV-18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성향 유형의 차이분석>	81
<표 IV-19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 경로 및 영향인식 수준>	82
<표 IV-20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정보 수용 매체 접촉 수준의 차이분석>	85
<표 IV-21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	86
<표 IV-2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활동 참여 실태의 차이분석>	89
<표 IV-23 청소년의 정치 활동 중요성 인식 실태>	90
<표 IV-2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활동 중요성 실태의 차이분석>	93
<표 IV-25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	94
<표 IV-26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효능감의 차이분석>	97
<표 IV-27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98
<표 IV-28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100
<표 IV-29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101
<표 IV-30 충청남도 지역별 선거지식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102
<표 IV-31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에 대한 차이분석>	103
<표 IV-32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104
<표 IV-33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105
<표 IV-34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106
<표 IV-35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효능감에 대한 차이분석>	107
<표 IV-36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신뢰에 미치는 영향>	108
<표 IV-37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권력기관신뢰에 미치는 영향>	109
<표 IV-38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관심에 미치는 영향>	110
<표 IV-39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선거지식에 미치는 영향>	111

<표Ⅳ-40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개인 정치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	112
<표Ⅳ-41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 .....	113
<표Ⅳ-42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활동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	113
<표Ⅳ-43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14
<표Ⅳ-44 청소년의 정치성향 유형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 .....	116
<표Ⅳ-45 청소년의 정치 성향 수준이 정치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	117
<표Ⅳ-46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 여부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 .....	118
<표Ⅳ-47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국가신뢰에 미치는 영향> .....	120
<표Ⅳ-48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 .....	121
<표Ⅳ-49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관심 수준에 미치는 영향> .....	122
<표Ⅳ-50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선거지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	123
<표Ⅳ-51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 .....	124
<표Ⅳ-52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	125
<표Ⅳ-53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활동 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	126
<표Ⅳ-54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활동 참여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127
<표Ⅳ-55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28
<표Ⅴ-1 청소년 정치참여 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	131

## 그림 목차

[그림 II-1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화 원칙]	38
[그림 II-2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39
[그림 II-3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체계]	40
[그림 II-4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	41
[그림 II-5 충남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정책 추진 방향]	42
[그림 IV-1 청소년의 국내기관 신뢰 수준]	58
[그림 IV-2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60
[그림 IV-3 청소년이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	63
[그림 IV-4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	34
[그림 IV-5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	66
[그림 IV-6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67
[그림 IV-7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	68
[그림 IV-8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70
[그림 IV-9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71
[그림 IV-10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	74
[그림 IV-11 청소년의 정치활동 수준]	77
[그림 IV-12 청소년의 정치 성향 유형(좌) 및 수준(우)]	80
[그림 IV-13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 경로]	83
[그림 IV-14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영향 인식 순위]	83
[그림 IV-15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	87
[그림 IV-16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활동 중요성 실태]	91
[그림 IV-17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	95
[그림 IV-18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99
[그림 IV-19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100
[그림 IV-20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101
[그림 IV-21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102
[그림 IV-22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에 대한 차이분석]	103
[그림 IV-23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104
[그림 IV-24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105
[그림 IV-25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106
[그림 IV-26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효능감에 대한 차이분석]	107

# 제 I 장



## 서론



## 제 1 장 서론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이다. 그들이 국가의 미래를 민주적으로 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되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만 18세를 맞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다. 찬성하는 입장은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권은 자신들의 제도에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민주시민의식이 보다 성숙한 국가의 발전과 세대 간 평등의 실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효현, 2016). 반대하는 입장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기에 자율성이 불충분하고, 학생신분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참여에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입시에 지장을 주며 정치색에 의한 정치교육이 학교영역에 이루어지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효현, 2016; 신유정, 2020).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7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에 약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2018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식에 있어 ‘사회문제나 정치참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가 필요’ 하다는 동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87.6%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소셜미디어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고찰한 연구자들은 정치참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미디어를 첫 번째로 꼽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는 사회나 정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사회적·정치적 현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Lippmann, 1922; Mutz, 1998; 김현정, 2016). 고등학생의 사이버 정치참여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형준(2018)에 의하면 아직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투표와 같이 직접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정치관련 의견들을 소통하고 사이버 정치에 참여하고 정보들을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과 의견 공론화의 장이 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떤 수준이며, 실제적 정치참여 활동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만18세 선거권이 하향됨으로 인해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대한 현 수준을

과약해 보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과 국가권력기간에 대한 신뢰수준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정치관심과 참여에 대한 수준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과 선거관련 지식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의 정치활동 참여 정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의 정치성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정치성향의 유형을(보수, 중도, 진보) 분석하고 각 유형에 따른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넷째, 청소년들이 정치정보를 수용하는 매체에 참여활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접촉하는 매체의 수준과 영향도를 분석하고 정치참여를 위한 활동하는 유형과 정치참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 또는 기대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치효능감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 제 II 장



### 이론적 배경



## 제 II 장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분석

#### 1)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대한 개념 특징

정치란 인간행동의 조직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조직기술의 수단이 바로 권력이라 할 수 있다(이극찬, 2004). 정치는 권력의 조직에 의한 그리고 적극적 내지 소극적인 동의를 매개로 하는 개인행동의 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 적어도 개인행동의 조직화라고 한다면, 정치는 모두 개인의 의식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유갑열, 2010).

이와 관련하여 정치인식은 정치적 사상과 정치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 평가, 태도의 총칭을 말하며, 정치적 행동을 선택하는 의견, 비판, 인식, 감각 등의 정신작용으로 규정된다(정인홍, 1994). 이러한 정치인식은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적 관계속에서 서로 상호 집단적 유대를 맺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성장하고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사고와 가치, 태도, 행동 등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치인식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정치문화에 대한 수용과 반응과 같이 정치사회화를 위한 상호 변증법적인 교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형성되어 나타나는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Sigel, 1989).

청소년의 정치인식 또한 청소년시기에 성장과 발달과정으로 거치면서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구조와 문화 가치, 그리고 정치적 행동과 태도 등의 정치사회화를 위한 상호 변증법적인 교호작용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나타나는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정서적이고 이상화된 정치인식은 차츰 발달되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적 성향을 설정 하게 되고, 이러한 청소년기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가 성인기의 사회화나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게 된다(김재명, 1999).

청소년기는 정치적 질서를 구상하며 구체적인 정치인식과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다양한 관계를 의식하게 되는 시기이며, 이데올로기의 사고에 의해 정치적 비평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청소년시기의 청소년들은 현재적인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학습을 통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점차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인식을 갖게 된다(백종태, 2002).

청소년의 정치인식 관련 사고발달 과정을 연구한 Adelson(1970)에 의하면, 청소년의 정치인식 관련 사고 발달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발달 수준에 의해 규정된다는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고 특성을 발견하였다. 첫째, 인지적 유형의 변화이다. 즉 구체적인 사고에서 추상적인 사고가 증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12세 소년은 '법이 없다면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반면에 16세 소년은 '법이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지침이 된다. 법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된다' 고 말했다. 나이 어린 청소년들은 법, 사회, 개인의 권리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형성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은 현재의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들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도 예언할 수 있다. 둘째, 권위주의의 쇠퇴이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은 권위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워서 권위의 타당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적인 권위주의에 대한 믿음은 쇠퇴한다. 셋째, 원리적인 사고의 발달이다. 즉 정치를 보는 안목이 12-13세 때는 즉흥적, 충동적, 비논리적이지만 16세에 이르면 사색적, 논리적, 일관성 있는 사고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별적인 사실들을 어떤 원리에서 하나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양우, 2005).

또한 Conrad(1991)은 청소년의 정치적 사고의 발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거부권 행사, 투표, 부의 분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어린 아동은 사람들이 처벌받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되고 투표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의 분배와 관련해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요구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든 청소년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부권 행사와 투표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사고한다. 부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부자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상사회를 꿈꾼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청소년 시기의 정치적 사고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비추어 추상적, 논리적 사고와 비판이 가능하게 되는 출발점으로 정치인식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 2) 청소년의 정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sup>1)</sup>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특성상 교육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높은 가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맞이할 여러 인생 단계들의 정치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올바른 정치인식의 형성을 중요한 발달과업중의 하나가 된다. 청소년기의 정치인식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청소년의 정치인식은 정치사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가족, 학교, 동료집단, 대중매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김영인, 2003). 특히 청소년의 정치인식과 관련된 정치사회화 과정에 있어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컴은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이 청소년의 정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가정은 사회화의 주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아동들이 초기에 갖게 되는 경험이 성장 후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가정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화의 매체이다. 또한 가정은 어린이의 인격형성에 있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장소이자 정서적인 결합을 강하게 이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수단이며 담당자인 것이다(이극찬, 2001). 가정환경의 가장 주된 사회화 매체는 부모이다. 그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가장 명백한 가설로서 우리는 ‘부모가 그들의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녀에게 전수할 것’ 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가정은 유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가정을 중요한 정치의식 형성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 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가정은 최초로 개인의 정치적 자아가 형성되고 발전될 무렵에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독점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가정에서 발전된 인간적 유대와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닌 정으로

1) 유갑열 (2010). 한국 청소년들의 정치 인식과 사회활동 참여도-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혀있어 개인의 사회·정치적 행동발달에 더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학교가 청소년의 정치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청소년 시기에 대부분 사회적 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는 가정, 동료집단, 대중매체 등과 함께 청소년의 정치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동인 중의 하나이며,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학교의 영향력은 다른 동인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교의 환경이 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또한 성격상 공공기관이므로 획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유갑열(2010)에 의하면, 학교 제도의 사적 발전과정은 학교가 정치사회의 시민 의식을 훈련하는 일차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Merelman(1980)도 모든 체제에서 학교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행하여지는 공민교육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 역할은 계속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치인식 형성에 있어 학교환경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적 가치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학교의 환경은 단일의 변화를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의 환경은 청소년의 중요한 성장 시기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동료집단이 청소년의 정치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동료집단이라 개념상 연령이나 신분 또는 여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집단들로서 통칭 교우 집단이나 소규모의 활동집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치사회화 매체로서 동료집단의 역할은 사회가 산업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시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특히 동료집단은 청소년기에 있는 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인 청소년기에는 동료집단과의 활동을 통해서 이미 어린 시절에 가정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본적인 지식체계에 평가적 기준 등을 변경, 보강하게 되는 것이다(이극찬, 2001). 따라서 동료집단은 어떤 경우에는 부모나 교사보다도 더욱 강력한 정치사회화 매체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다. 동료집단의 동질성 유무에 따라 가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사회화는 보강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 반면 동료집단의 분위기가 이질적인 경우 사회적으로 낮은 집안 출신의 동료는 자신보다 높은 지위 출신 동료의 규범과 부합되도록 사회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료집단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정치적 세계의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 둘째, 정치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아를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셋째, 그 집단의 규범, 행동, 다른 성원의 태도에 상응한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조진영, 1997).

마지막으로 대중 매체가 청소년의 정치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오늘날 정치사회화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대중 매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중 매체라 하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커뮤니티, 예를 들어 SNS, 1인 미디어, 팟캐스트, 유튜브 등을 말하는데 사회화 과정에서 이러한 대중 매체의 영향은 매우 크다. 대중 매체는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정치적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파시킴으로써,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대중 매체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와 감정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치적 정향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현대화된 사회일수록 대중 매체의 정치사회화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통신매체의 기술적 향상과 확대,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같은 전통적 사회구조가 약화된 결과로서 대중 매체는 직접, 간접적으로 사회의 중요한 합의된 가치를 전해준다. 대중 매체는 사회적, 정치적 정보의 제공을 통해 정치적 가치관, 판단기준, 감정, 태도 등에 영향을 행사하는데, 오늘날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 3) 청소년의 정치인식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정치인식은 다양한 하위요소로 구성되지만 이 중 정치적 신뢰감, 정치적 참여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효능감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치적 신뢰감은 정부, 정치인, 정치적 권위에 대한 하나의 평가적 자세로서 믿음과 관련된 감정을 말한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체제도 정치적 신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신뢰는 정치체제의 산출 국면의 대한 정치정향으로 볼 수 있다. 즉, 신뢰점수가 높은 사람이 정치적 투입과정에 대한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활동한다고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 내는데 기초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정치 신뢰감은 정치체도의 유지 및 존속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다.

정치참여도는 시민들에게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적 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시민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가 정책결정에 반영되어진다는 만족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참여적 정치문화는 민주정치 구조와 함께 정치질서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정치를 참여정치라고 부를 만큼 국민 각 계층의 효율적인 정치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정치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소외감이나 무관심이 쌓여 간다면, 민주정치를 파괴하게 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투표권행사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참여는 정치의식수준과 참여수준에 따라서 정상적 참여형, 과잉 동조형, 현대적 무관심형, 그리고 전통적 무관심형 등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1 정치참여도 수준에 따른 정치참여 유형〉

참여		의식	정치의식	
			높음	낮음
참여수준	높음	① 정상적 참여형 (긍정적 활성화, 질서, 안정)	② 과잉 동조형 (부정적 활성화, 무질서, 불안)	
	낮음	③ 현대적 무관심형 (불신, 불만, 냉소)	④ 전통적 무관심형 (무지, 무기력, 맹종)	

출처: 배한동(2006)

첫째, 정상적 참여형은 정치의식 수준도 높고 참여수준도 높아 정치체제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정치체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참여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치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소유하고 항상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과잉동조형은 정치의식 수준은 낮으나 참여수준이 지나쳐 정치를 부정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무질서와 정치 불안의 원인이 되는 정치참여 행태를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에 나타난 투표율을 검토해

볼 때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오히려 투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투표율의 구체적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고, 교육 정도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현대적 무관심형은 원래 정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선진국형의 정치적 무관심 형태를 말한다. 그들은 정치현실이나 정치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 혐오감에서 정치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나아가 현실 정치에 대해 냉소주의나 허무주의적 거부 형태를 취하는 그룹이다. 이런 정치적 무관심을 라스웰은 탈정치적 태도, 무정치적 태도, 반정치적 태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예로 도시 지식층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현상.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의회정치를 침체시키고, 정상배들이 정치관을 장악하게 하여 관료주의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치의 반동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선거의 기권은 항상 집권층에게 유리하고 체제유지는 피동적으로 순종하는 계층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통적 무관심형은 정치의식 수준도 낮고 정치참여 수준도 낮은 전근대적, 전통적 정치참여 유형을 말한다. 즉 전통과 관습의 중시, 보편적 가치기준의 부재, 귀속주의와 비합리적 편견, 배타적 감정 등이 지양되지 못한 후진국형 무관심이 이에 해당된다. 전통적 무관심형은 정치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의 차단에 의해 정치의식 수준이 깨어나지 못해 정치참여에 무관심하지만, 전통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목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면서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과 정치참여 수준은 서로 비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상당한 이종성과 괴리현상을 보일 때도 많았다. 이는 정치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불일치를 유발하는 정치적 아노미 현상을 해소하고, 왜곡된 정치구조를 정상적인 참여구조로 바꾸는 것이 한국 정치발전의 기본과제로 여긴다(배한동, 2006: 191-197).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Sandel, 2010). 마이크 샌델(Michael Sandel)(Sandel, 2010)은 롤스의 분배의 정의를 비판하고 보다 현대화하여 해석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이라는 전통적인 정의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 책임의식, 이익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의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준과 백선희(2014)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기관(정부, 법원, 경찰, 정당, 국회, 언론, 군대,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정당, 정부, 언론 등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기관은 학교와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계와 언론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홍(2007)의 의하면, 청소년들의 상당수(43.4%)가 외국에서 살고 싶거나 외국에서 태어나면 좋겠다는 태도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곧 우리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살고 싶거나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경(2013)은 한국 청소년들은 ‘별로 정의롭지 않다’가 65.2%이며, ‘전혀 정의롭지 않다’가 23.9%를 나타내 89.1%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매우 정의롭다’가 0.5%이며, ‘대체로 정의로운 편이다’가 9.7%로 나타나 10.2% 청소년이 우리나라 사회가 정의롭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정부패’가 많다는 의견이 32.5%였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경우가 많다’가 21.8%, ‘빈부차가 너무 크다’가 18.6%,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가 15.9% 등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며 개인의 노동에

대한 몫을 정당하게 못 받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가 공정하지 못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가 54.1%로 나타났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18.1%, ‘공평하게 잘사는 사회’가 16.9%, 그리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10% 등 경제적으로 기회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법적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는 경제와 법의 측면에 있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효능감은 개인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일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것으로 시민이 개인의 노력이나 시민들 간의 협조를 통해 바라는 바를 정부가 행하도록 하여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정치 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 형태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정부의 기능을 이해하고 정부 기능 및 정치과정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느끼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시민 개인이 정치적 행위가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이지은, 2008). 따라서 일반적으로 효능감이 있는 개인일수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이 크다고 한다(박가나, 2001). 이러한 정치적 효능감이란 개인 스스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능력감이기 때문에 이는 곧 사람들이 정치와 관련된 직접적 행동 즉, 참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같은 정치참여 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정치참여는 시민의 심리적 작용 즉, 정치 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치효능감은 내적효능감과 외적효능감으로 구분된다. 내적 효능감은 사람들의 정치영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능력으로써 정치참여과정에 있는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으로 정부와 정부기관이 하는 일은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외적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참여와 노력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인식능력으로써 정치기구들이 시민들의 기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관리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이지은, 2008).

## 2. 청소년 정치참여 유형 및 특성 분석

### 1) 청소년특별회의

(2020년 주요개편)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중앙 팀 체제 운영

- 중앙에서 선발하는 청소년 위원 규모를 확대하여 기존 정책제안 외 의제기획, 온라인소통 역할 추가 수행  
\*’19년 50명 내외 → ’20년 70명 내외
- 역할에 따라 정책제안팀, 의제기획팀, 온라인소통팀으로 구분하고, 활동 내용에 따라 선발시부터 기준을 달리하여 선발
- 선발직(70명 내외)과 당연직(430명 내외)을 포함하여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

#### □ 목적

-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이행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함양

## □ 근거 및 경과

## ○ 청소년기본법 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

-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 경과 : 2004년에 시범사업 후 매해 개최

## □ 구 성

## ○ 청소년 위원(구성)

- 의장단(3명) : 의장, 부의장

- 특별회의 주재 및 대표로서 활동 / · 정책제안, 행사 기획·진행 총괄 등

- 선발직(중앙선발, 70명 내외)

- 정책제안팀 : 정부에 제안할 정책제안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제안과제 실천활동,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평가

- 의제기획팀 : 원탁회의 총괄·기획, 청소년 여론 동향 파악, 이슈 발굴 및 이슈화

- 온라인소통팀 : 특별회의 홍보 활동(청소년 에디터 활동),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홍보)

- 당연직(특별회의 지역회의, 430명 내외)

-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활동, 청소년포럼·토론회, 캠페인,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여, 공동 실천활동 전개 및 대외 홍보 추진·운영

- \* 17개 시·도 지역회의, 총 430여명(시·도별 각 25~30명 내외)

- \*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 □ 추진일정

## ○ 기본계획 수립 및 구성(1~3월)

- 구성(1~3월)

- 전문가 자문단 구성(1~2월)

- 청소년특별회의 선발직 및 당연직 구성(시·도별 늦어도 3월말까지 구성 필요)

- 청소년특별회의 선발직 오리엔테이션 운영(3월)

- 소양교육, 팀별 교육(정책과제 발굴,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진행

- 팀별 연간 활동 내용 수립 등

## ○ 출범식(4~5월)

-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4월 예정)

- 위촉장 수여 및 의장단 선출·임명장 수여, 출범선언

- 원탁회의(5월 예정)

-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 수립 및 논의

- 논의된 사항에 대해 참가자 찬반투표 진행

- 정책발굴워크숍, 결과보고회 등
  - 정책발굴워크숍(6~7월)
    - 온라인 정책제안과제 및 원탁회의 의결 내용 구체화 작업
    - 최종 상정할 정책과제 도출
  - 제안 정책과제 정부부처 협의 및 실천(8~10월)
    - 제안 정책과제 관련 정부부처 협의
    - 정책제안과제 실천 및 이슈화
    -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활동
- 결과보고회(11월)
  - 정책과제 수용 결과보호 및 연간 활동 내용 공유

〈표 II-2 연도별 정책의제 및 과제 현황〉

년 도	정 책 의 제
2004년(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2005년(제1회)	-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20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2018년(제14회)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올림이 되다.(22개 과제) *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등
2019년(제15회)	-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 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총 5개 정책영역과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2) 청소년참여위원회

2019	2020
- 운영지원 : 188개소	- 운영지원 : 233개소 (45개 추가확대)
- 연임(중임) : 전체 20%내외	- 연임(중임) : 전체 40%내외
- 신규 · 사업방향 : 온라인 참여 활성화, 원탁회의 추진 등 청소년 정책참여 소통창구 확대 및 다양화, 전국단위 공통실천활동 전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신규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추진 등 · 역 할 :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의 간담회 운영(연 1회 이상) · 협 조 :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질적 기회보장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필요	

□ 목적

-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 근거

- 청소년기본법 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개정내용(개정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정책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 운영현황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 1개소 운영지원
-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 233개소(시·도17개, 시·군·구 216개) 운영지원
  - 시·도 : 1,000만원(국고보조율 50%) / 시·군·구 : 280만원(국고보조율 50%)
  - \* 2019년과 대비 45개 증가

〈표II-3 2020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233	22	14	9	10	6	6	6	1	32	19	9	16	15	23	24	20	1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16	21	13	8	9	5	5	5	-	31	18	8	15	14	22	23	19	-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

- 역할

-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평가
- 지자체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지역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 ※ 시·도 단위 반드시 연 1회 이상 개최, 청소년특별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5~8월중 개최
-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의 간담회 운영(연 1회 이상)

- 구성

- 기본방향 :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이외에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추천, 청소년 직접선거 등 구성방식을 다양화하여 대표성 제고
- 기준
  - \* 공통(시·도, 시·군·구)
  - 지역 내 청소년(9~24세)

-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구성  
(청소년은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 : 소속지역 변경된 경우도 포함)
- 연령별 기준 : 1) 연령·성별 등 구분·선발하되, 연령별 인구 및 참여역량을 고려하여 구성(학교 밖 청소년 포함), 2) 고등학생 연령(만16세~18세)은 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자율고 등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

〈표Ⅱ-4 청소년참여위원회 연령별 비율〉

구 분	계	만 9세~15세 (초·중 연령)	고등학생 연령(만 16~18)				만 19~24
			소계	일반	특성화	특목,기타	
비율	100%	10~20% 내외	70~80%내외	60~70%	5~10%	5~10%	10~20%

- 관할구역 내 연령별 청소년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위촉 및 임기
  - 최종 선발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
  -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가능(소속지역 변경포함)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 구성 : 1개소당 25명~30명 내외
  - \* 단, 당연직 위원(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이 30명 이상인 시·도(경기 등)의 경우라도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촉직 위원을 일정 비율 추가로 구성가능
  - \* 당연직 : 해당 시·도의 모든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 1)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정함
    - 2) 시·도 상황에 따라 당연직 위원 구성 비율을 50~100%로 구성할 수 있음
  - \* 위촉직
    - 1)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학생회 대표 등),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지역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위촉 가능  
특히, 당연직 위원이 20명 미만인 시·도는 기관추천(학생회 대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지역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대표성 있는 위원을 위촉할 필요
    - 2)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을 일정 비율(10%이상) 반드시 구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홍보 및 협조요청)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구성 : 1개소당 20명~25명 내외
  - 공개모집 이외에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학생회 대표 등),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청소년 운영위원회 대표 등), 지역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구성 가능
  - \*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성방식 시행 가능
  -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시·군·구)에서 유관기관에 홍보 및 협조요청

## □ 주요활동

- 시도 및 시군구 활동 주기 : 시도 : 연 8회 이상 / 시군구 : 연 4회 이상
- 활동내용
  - 시·도(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참여
- 시·도(시·군·구)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 모색
    - 시·도(시·군·구)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권리·인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소관부서에 정책제안서 제출 등 정책 제안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스스로 실천활동 전개(캠페인 등)
  - 각종 선거 후보자의 청소년 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제안·점검
  -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의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참여
  - 청소년포럼·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참여활동 사례공유
    -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도 단위 연계활동 적극 참여(시·도 단위 청소년 포럼·토론회 등 참석)
  - 현안 발굴을 위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
  -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진행하는 행사 추진
  - 타 청소년참여기구와의 간담회 등 교류활동

## □ 운영지원 등

- 여성가족부
  - 우수기관 발굴·표창 :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발굴 및 장관상 수여
  - 지도자 역량강화 : 사업안내·운영매뉴얼 배포 및 교육실시
  - 참여기구 간 정보교류 및 연대구축 등
  - 청소년 참여포탈 “With Youth“ 운영, SNS(facebook) 홍보 활성화 등
  - 참여활동 언론 홍보 및 총괄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 자치단체장 등과의 간담회 추진, 타 참여기구와의 연합 워크숍 및 토론회 등 개최
  - 참여활동 우수자 및 지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 위원 임기 종료 시 활동확인서 교부
  -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물 제작·배포, 지역 다양한 언론매체 홍보
  - 청소년 참여포탈 “With Youth“에 활동상황게시(사진, 행사개최 안내 등)

□ 추진일정

- 1월 :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추천의뢰 등 홍보(지자체)
- 2월 : 예산교부(지자체), 위탁 운영기관 선정,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3월, 지자체)
- 3월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
  - \* 사전교육(참여 의의 등), 연간 주요활동 및 제안과제 논의, 청소년정책 관련 교육
- 3월~12월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 \*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제안
  - \* 전년도 제안과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청소년포럼·토론회 등 참여 및 개최
- 7월~9월 : 시·도 단위의 연합 청소년포럼·토론회·워크숍 등 개최
  - \*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참여 홍보(방학 기간을 활용한 집중 홍보)
- 10월~12월 : 연간활동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제안, 연간 결과보고서 발간, 우수사례 성과 제출 및 발표 등

□ 2020년 협조사항(추가)

- 지역 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및 청소년 참여예산제 활성화
  -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설치 시·군·구에 우선 지자체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추진 필요
  -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질적 기회보장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 (국정과제 53-3-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및 창의적 역량강화 :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참여예산제 확대(2022년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대)

※ 청소년 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자체 예산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조례재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청소년위원회 분과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연계 운영,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식 가능)

3) 청소년운영위원회

□ 목적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 확대
-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실제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반영 도모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 지역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 지원대상

- 2006년 210개소에서 2020년 331개소 운영지원
  - 대상 : 331개소 \*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중심 선발지원
  - 지원 : 1개소 당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백만원 이내(국고 1백만원 : 지방비 1백만원)

〈표 II-5 2020년 시도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개소수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331	45	15	10	13	7	11	8	2	64	34	17	15	18	16	15	17	24

○ 구성 및 선발

- 구성 : 10인 이상 ~ 20인 이내(9세~24세 청소년)
  -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함
  - 일반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장애청소년, 한부모가정청소년, 조손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직구성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시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야 함
  - \* 예시)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분과장, 실무간사(담당 청소년지도사), 자문기구(청소년관련 전문가/지역사회 인사/학교 교사 등)
- 운영상 주의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사결정기구로써, 시설의 사업수행 도우미 또는 청소년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위촉 및 해촉
  - 위촉은 청소년수련시설의장이 하며, 시설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연임의 횟수, 연임 임원의 비율은 각 시설의 여건에 따라 정함
  -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해촉 가능

□ 주요활동

- 기본계획수립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연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
  - \* 해당 수련시설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실무간사(담당 청소년지도사)를 배치·지원해야 함
- 연간활동계획수립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회의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연간활동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3월부터 12월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임

○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매달 정기적인 회의를 운영하여야 함
  - \* 정기회의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고유한 역할(모니터링, 간담회 진행 등)과 다양한 자체 사업 등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회의로 운영됨
- 임시회의 : 정기회의 이외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전체회의
  - \*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할 수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통해 청소년에게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까지 다양하게 참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 \* 청소년수련시설 환경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제시
  -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 및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자체 회의를 통해 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외에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자원봉사, 캠페인, 교류활동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대를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
  - ② 우수사례 조사 및 우수활동 발굴, 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교류 활동
  - ③ 지역사회 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봉사활동 등

○ 청소년시설 기관장과의 간담회

- 운영위원들의 건의사항, 모니터링 결과,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 등을 전달하고 실행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
- 기관장과의 간담회는 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로 진행
  -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주의요망

□ 의견 및 활동관리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운영위원회 간사(청소년지도사)는 정기 및 임시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 제출된 회의록 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함
  -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 청소년운영위원회 간사(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연간계획, 활동 및 회의내용, 의견 반영 여부를 ‘수련시설포털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매일)

\* 청소년수련시설포털 : www.youthnet.or.kr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는 소관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정기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활동실적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함(반기별)

《여성가족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지원 대상 선정

####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 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대표로 활동하도록 수련시설장이 추천해야 함

####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추천 필요 없음)
  -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 · 지역주민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 여성가족부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 선정 및 운영지원
  -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 전국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추진
-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는 ‘시도별 운영위원회 대표단’ 을 구성하여 지역 내 정보 교류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수련시설포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활동실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
  - \*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국비 미 지원 대상)도 활동실적 관리 안내

#### □ 추진일정

- 1~2월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발
- 3월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 연간 활동계획 수립
- 3월~11월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활동, 기관장 간담회, 활동 요구조사 및 분석
- 12월 : 청소년운영위원회 보고서 발간, 신규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홍보

#### □ 행정사항 :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

\* 참가수당 별도 지급 불가

### 3. 청소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 기준

#### 1) 18세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선거일에 18세인 자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행위 시에 18세인 자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의 자는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이라 함)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2008. 11. 5. 회답 참조).

(정당 가입 가능 연령 산정 기준) 정당의 당원이 되는 때에 18세인 자

※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이어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음(2020. 1. 16. 회답).

#### 2)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 관련

18세 학생은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의 연설·대담자,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대담·토론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선거운동 방법 관련

인쇄물·시설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초·중·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하는 것은 공선법 제90조·제93조에 위반될 것임.

학교 내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됨. 다만, 학교의 운동장 또는 자신이 소속된 반의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공선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강단 등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선법 제101조·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순히 학생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선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㉔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 관련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그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선법 제81조 제1항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선법 제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하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같은 법 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3) (예비)후보자의 학생 대상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

□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 교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되고,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선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학교 운동장에서 공선법 제79조의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까지 공선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4) 학교의 행사 개최 등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학교는 공선법 제81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아님.

5)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

□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의 행위

㉔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유·불리한 발언 또는 행위

○ 교원이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공선법 제9조·제85조 제1항에 위반되고, 국·공립학교 교원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업적을 홍보한 경우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도 위반됨.

○ 교원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이나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선법 제60조·제85조 제3항·제4항에 위반되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도 위반됨.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됨.

㉔ 18세 학생 대상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경우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선법 제9조·제8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

□ 학교 밖 또는 수업과정과 무관한 행위

교원이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학교 밖에서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여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운용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봄.

## 6) 18세 학생의 활동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운영 기준

□ 정당 가입 및 당직 취임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

□ 정치자금 기부

18세 학생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18세 학생이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에 위반됨.

## 7) 교원의 활동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운영 기준

□ 정당 가입

교원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 학생 대상 정당 가입 권유·강요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정당법」 제42조에 위반될 것임.

※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위반될 것임.

□ 정치자금 기부

교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부가 금지됨.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기탁금 제외)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위반될 것임.

□ 학생 대상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교원이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또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고지·안내하는 것은 공선법 제9조·제60조·제85조, 「정치자금법」 제15조에 위반될 수 있음.

8) 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사례 예시

〈표 II-6 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사례 예시〉

주체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18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 활동을 하는 행위</li> <li>■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li> <li>■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되는 행위</li> <li>■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하는 행위</li> <li>■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li> <li>■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운동</li> <li>■ 정당에의 가입</li> <li>■ 정치자금 기부</li> <li>■ 공선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li> <li>■ 선거운동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선법 제86조 제1항의 경우 제외)</li> <li>■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li> <li>■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행위</li> <li>■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li> <li>■ 선거기간에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li> <li>■ 당·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li> <li>■ 비정규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li> </ul>

		<p>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li> <li>■ 학생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li> <li>■ 공선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li> </ul>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단체 내부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li> <li>■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li> </ul>
(예비)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명함배부 및 지지 호소</li> <li>■ 학교에서의 공개장소의 연설·대담</li> <li>■ 입학식·졸업식 등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학교 내 선거운동</li> <li>■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li> <li>■ 학생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글·동영상을 문자메시지·유튜브·SNS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li> <li>■ 선거운동기간 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li> <li>■ 학교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li> <li>■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교의 기관지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발행·배부하는 행위</li> </ul>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의 일환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자격에서 하는 선거운동</li> <li>■ 수업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하는 행위</li> <li>■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li> </ul>

		<p>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글·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li> <li>■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li> <li>■ 특정 후보자의 학교 내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는 행위</li> <li>■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li> <li>■ 정당에의 가입</li> <li>■ 정치자금(기탁금 제외) 기부</li> <li>■ 수업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li> <li>■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li> </ul>
--	--	--

#### 4. 청소년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충청남도 학교교육의 역할과 과제<sup>2)</sup>

충청남도교육청도 2015년 조직 개편을 통해 체육인성건강과 내 ‘인성인권팀’을 신설하고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배치했다. 이 시기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는 등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교육청의 주요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2018년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었고 시도교육청도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육부의 종합계획에 맞춰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이 18세로 확대되면서 ‘학생유권자’가 대거 등장하고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1)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지향점

#####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및 배경

- 사회 갈등의 증가 :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사회로 계층, 세대, 성별 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한국사회의 갈등 지수

〈표 II-7 OECD 국가의 사회갈등 지수〉

(단위 : 표준화 된 값[1,2])

순위	2004		2014	
	국가명	지수	국가명	지수
1	터키	1.412	멕시코	1.507
2	멕시코	1.387	터키	1.354
3	한국	1.271	한국	1.200
	OECD 평균	0.879	OECD 평균	0.904

※ OECD 34개국 중 한국은 3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한국경제연구원, 2016)<sup>3)</sup>

물론, 사회 갈등의 증가는 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험한 사항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회갈등이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타협의 과정을 거쳐 해결되는가 하는 문제이고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의 양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의 주요 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2) 이 글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제정경제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연합 학술대회 「정치교육의 방향과 과제」(2020. 9. 26.)발표한 원고 ‘정치교육과 지방교육행정(교육청)의 역할과 과제’ (김무광)를 수정 요약한 자료임

3) 교육부, 201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재인용

〈표 II-8 해외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국가	사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나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정치교육' 필수과목으로 편성·운영</li> <li>■ 통독 이후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강화</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능동적 시민을 길러낸다는 목표로 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을 의무화</li> <li>■ 과목명을 '시민도덕교육'으로 개칭('15)</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청소년 문제 발생,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에 대응</li> <li>■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중등교육에서 '시민과목(Citizenship Education)' 필수화</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체제 유지·운영을 위해 사회과 국가교육과정(NCSS)에 주요 목표로 포함</li> <li>■ '시민(Civics)', 사회과목(Social Studies) 등의 교과를 통해 교육</li> </ul>

## ○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경쟁과 효율성을 최선의 가치로 하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협력과 공유가 중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으로 사회의 물적 토대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이 민주시민의 대표적인 자질로 주목 받게 되고 학력관 역시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쌍철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연구를 통해 “학생의 시민의식은 교육과정 접근 방식보다 수업 풍토와 학교 내 참여 경험이 실질적 영향을 준다.”<sup>4)</sup>고 분석하고 있다. 비민주적인 학교환경에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없으므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학교문화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육 혁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지향

##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원칙

교육부는 2018년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의 추진방향으로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기본원칙, 내용 요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성과 둘째, 교수학습 및 평가, 교육활동 지원 등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셋째,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참여와 실천을 통한 민주시민 경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상존하므로 교육부는 연구를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향과 가치, 기본개념 등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4) 이쌍철외.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9

〈표 II-9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원칙5〉

구분	주요내용
기본개념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여 이를 자신, 가정, 학교, 사회에 적용하는 교육
시민적가치	자율, 존중, 연대
시민역량	사회적 공감역량,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 사회참여 역량, 비판적 성찰역량
교육활동 원칙	헌법적 가치 존중, 특정 이념 강요 금지, 논쟁성 재현, 학습자 가치 존중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화 원칙6)

정원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화 원칙으로 존중, 자율, 연대의 가치를 반영하여 각각 보충성, 협업성, 현장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학교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정책 주체의 층위와 역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정책의 발의 및 시행은 일선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예산이나 자문을 제공하고 법이나 조례, 시행령 개정 등을 도울 수 있다.

협업성의 원칙은 자율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협업이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권한과 기능이 상이하여 이들 사이의 병렬적 협업은 가능하지 않으며 기관의 수준에 따라 적절히 분배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원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대의 가치와 연결된 것이다. 현장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정책이 마지막으로 실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림 II-1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화 원칙]

5) 경기도 교육청. 2020학년도 전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정책 협의회 자료집

6) 정원규외.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연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정책중점연구소. 2019

2)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과제

□ 교육부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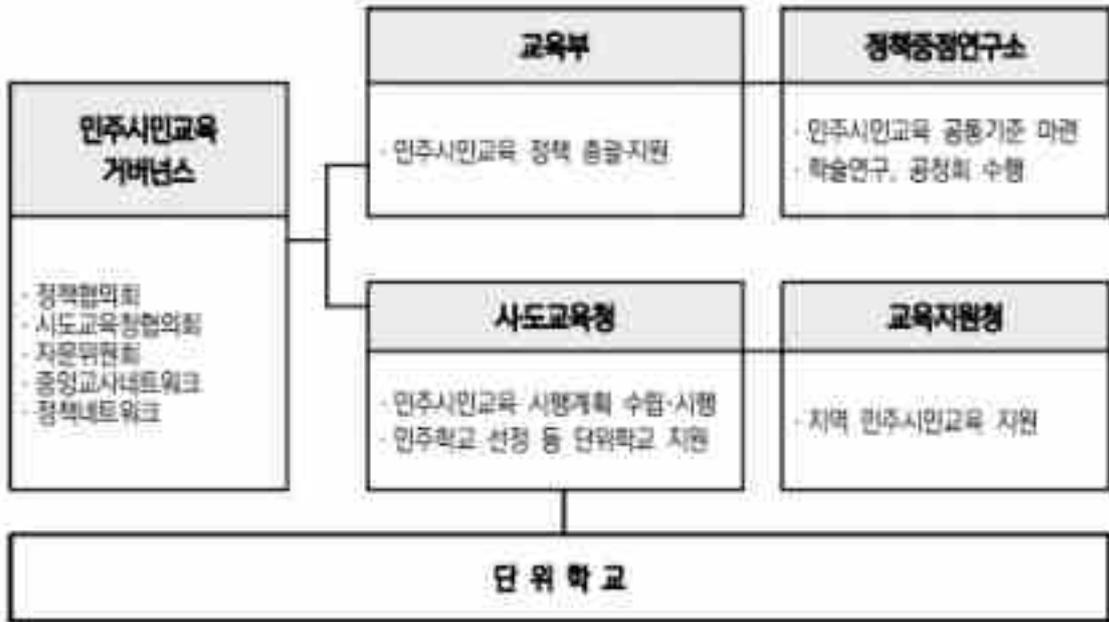
교육부의 위에서 제시한 존중, 자율, 연대의 민주시민교육의 가치 지향과 보충성의 원칙, 협업성의 원칙, 현장성의 원칙이라는 정책화 원칙을 반영하여 2019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림 II-2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교육부의 시행계획을 보면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술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7) 교육부. 2019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 2019



[그림 II-3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체계]

□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역할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목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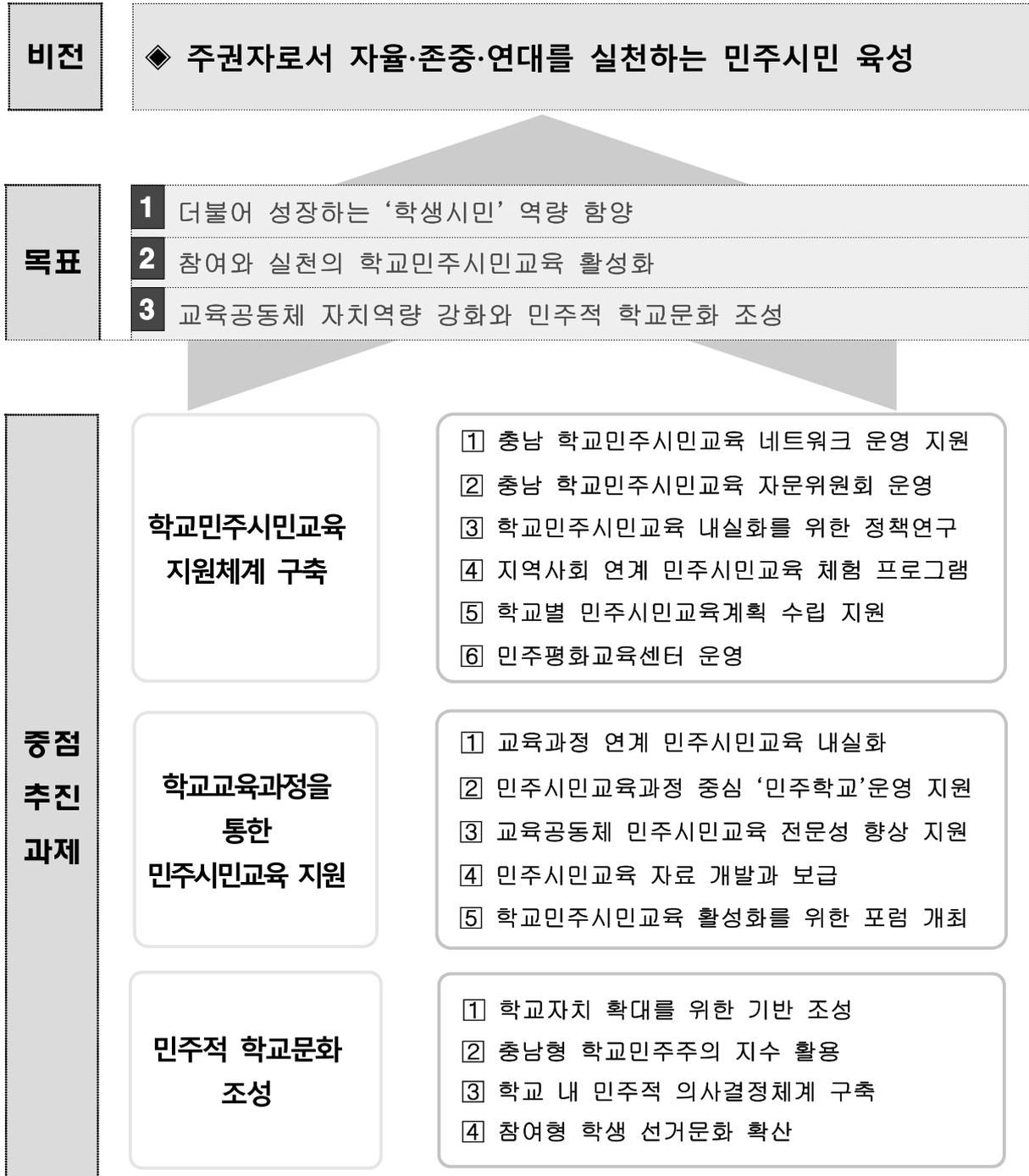
충남교육청은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학교 혁신의 정책의 성과와 2017년 충남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8년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2020년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2015년부터 민주시민교육 담당 팀을 구성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19년 조직 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인권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평화통일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학생자치활동 지원계획,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보충성, 협업성, 현장성의 정책화 원칙 속에 자율, 존중,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주권자로서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시민 역량 함양’, ‘참여와 실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공동체 자치역량 강화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설정된 중점추진과제는 자율·존중·연대의 주요 원칙과 정책화 원칙인 보충성·현장성·협업성을 반영하여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교의 자치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그에 따른 정책의 추진이 시도교육청이 당면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교육부(2019)



[그림 II-4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

**비전**

◆ 주권자로서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

**목표**

- 1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 자치역량 함양
- 2 학교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 참여 확대
- 3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중점  
추진  
과제**

**학생자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1 교육과정 내 학생자치 시간 확보
- 2 학생회실 구축·환경개선 지원
- 3 학생자치 전담교사 지정
- 4 학생자치 지원단 구성·운영
- 5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 운영

**학생 의사결정  
참여기회 확대**

- 1 학교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 2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기회 부여
- 3 소통과 공감의 원탁토론회 운영(학교별, 지역별)
- 4 충남 학생회연합 운영 지원

**학생주도  
자치활동 활성화**

- 1 학생 미래교육 포럼 운영
- 2 학생회 의사결정과정 참여 제도화
- 3 자율적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그림 II-5 충남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정책 추진 방향]

○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2017년 10월 10일에 제정 공포됨
-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으로 정의
- 교육감의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2019년 9월 20일에 제정 공포됨
-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학생자치활동을 “학생이 주체가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학생 스스로 학교 내·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
- 교육감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 2020년 7월 10일에 제정 공포됨
-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함
- 학생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준비중)

-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심의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학교 운영을 통해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의 근거를 마련
- 민주적 학교 운영 원칙, 자치회의 구성(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의견 조정 및 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2020년 2월 28일 제정 공포됨
-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부모회의 설치와 조직, 운영, 교육감의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함

○ 현장의 자발성을 견인하는 교육정책의 추진

충청남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사회에 요구되는 자율, 존중, 연대의 시민적 가치와 그에 따른 역량은 교실수업 뿐 아니라 학교 전반의 민주적 문화와 풍토 속에서 학생들의 삶 속에서 키워지는 것이다.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교육현장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는 지방행정조직 차원에서 보충성, 협업성, 현장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주요 정책 역시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충남교육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주요 정책

■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 충남학교민주시민교육 교원 네트워크 운영지원
- 지역사회 연계 민주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충남 민주누리길'
- 학생참여 예산제의 전면적인 실시(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운영)
- 충남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등

■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원(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 운영)
- 민주시민교육과정 중심 '민주학교 운영 지원'
  - 운영과제: 민주시민교육과정운영, 학교자치 확대, 공간수업 프로젝트 등
- 쟁점중심 토론 수업 및 학생 사회참여 학습 강화
- 교과별 민주시민교육 주제 관련 수업자료 개발 등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충청남도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활용
  - 학교 민주주의 상태와 민주시민교육 실천 정도 진단을 통한 민주적 학교 모습에 대한 규범적 기준 제시
- 참여형 학생 선거문화 확산
  - 18세 선거권 확대 대비 선거교육 실시

# 제 III 장



## 연구방법



## 제 III 장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개요

이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그리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양적연구방법은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양적연구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및 정책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학교 및 지자체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정치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의 요구 및 필요성 파악,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 및 요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조사를 위한 양적연구방법

#### 1) 연구 참여대상

이 연구를 위한 참여대상은 충청남도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2020년도 충청남도 15개 시군 학교와 고등학교 1~3학년 및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총 1,995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1,004명(50.7%), 여자청소년 978명(49.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676명(34.1%), 2학년 677명(34.1%), 그리고 3학년 631명(31.8%)이었다. 학교성적에 따른 분포는 상위권 202명(10.3%), 중상위권 437명(22.2%), 중위권 821명(41.7%), 중하위권 357명(18.1%), 그리고 하위권 152명(7.7%)이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수준 109명(5.6%), 중상위수준 390명(19.9%), 중위수준 1,239명(63.2%), 중하위수준 171명(8.7%), 그리고 하위수준 52명(2.7%)이었다.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아버지 학력수준은 대학원 이상 173명(9.5%), 4년제 대학 졸업 789명(43.4%), 2년제 대학 졸업 104명(5.7%),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753명(41.4%)이었고, 어머니 학력수준은 대학원 이상 117명(6.5%), 4년제 대학 졸업 772명(42.6%), 2년제 대학 졸업 125명(6.9%),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797명(44.0%)이었으며, 보호자 학력수준은 대학원 이상 71명(9.3%), 4년제 대학 졸업 355명(46.5%), 2년제 대학 졸업 35명 (4.6%),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303명(39.7%)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천안 171명(7.1%), 공주 152명(7.7%), 보령 75명(3.8%), 아산 101명(5.1%), 서산 83명(4.2%), 논산 85명(4.3%), 계룡시 93명(4.7%), 당진 98명(5.0%), 금산 126명(6.4%), 부여 160명(8.1%), 서천 155명(7.8%), 청양 146명(7.4%), 홍성 189명(9.6%), 예산 264명(13.3%), 태안 81명(4.1%)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III-1>과 같다.

〈표Ⅲ-1 연구 참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	1004	50.7	
	여	978	49.3	
학년	1학년	676	34.1	
	2학년	677	34.1	
	3학년	631	31.8	
학업성적수준	상	202	10.3	
	중상	437	22.2	
	중	821	41.7	
	중하	357	18.1	
	하	152	7.7	
경제수준	상	109	5.6	
	중상	390	19.9	
	중	1239	63.2	
	중하	171	8.7	
	하	52	2.7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3	9.5
		4년제 대학졸	789	43.4
		2년제 대학졸	104	5.7
		고등학교졸	753	41.4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7	6.5
		4년제 대학졸	772	42.6
		2년제 대학졸	125	6.9
		고등학교졸	797	44.0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9.3
		4년제 대학졸	355	46.5
		2년제 대학졸	35	4.6
		고등학교졸	303	39.7
지역	1) 천안시	171	8.6	
	2) 공주시	152	7.7	
	3) 보령시	75	3.8	
	4) 아산시	101	5.1	
	5) 서산시	83	4.2	
	6) 논산시	85	4.3	
	7) 계룡시	93	4.7	
	8) 당진시	98	5.0	
	9) 금산군	126	6.4	
	10) 부여군	160	8.1	
	11) 서천군	155	7.8	
	12) 청양군	146	7.4	
	13) 홍성군	189	9.6	
	14) 예산군	264	13.3	
	15) 태안군	81	4.1	

## 2) 연구도구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정치관심과 참여, 정치성향, 정치정보 수용 매체, 정치효능감, 그리고 응답자 기본정보 등과 같이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은 기관에 대한 신뢰 14문항,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4문항,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 7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관에 대한 신뢰와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한 문항은 김태준, 홍영란, 김홍민 (2017)에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가 개발하여 사용한 국제 시민 및 시민의식 교육 조사 2016(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2016) 학생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 문항은 김지경 (2013)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의 정의사회에 대한 인식 문항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s  $\alpha$  =.835로 나타나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정치관심과 참여는 정치 관심 수준 10문항, 선거관련 지식 3문항, 정치 개인 활동 참여 9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치 관심 수준은 성지원(2019)에서 사용된 문항은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선거관련 지식 문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의 자료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으며, 개인 활동 참여 문항은 ICCS 2016 학생 설문문항(김태준, 홍영란, 김홍민, 2017)을 활용하였다. 정치관심과 참여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s  $\alpha$  =.835로 나타나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정치성향은 정치성향의 유형 1문항과 정치성향의 수준 1문항 등 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치성향 문항은 성지원(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정치성향의 유형은 지키고자 하는 성향(보수), 유지와 변화의 균형(중도), 그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성향(진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치성향의 수준은 자신의 정치성향의 유형에 따른 생각과 태도에 대한 수준을 10점 척도(1=매우 낮음~ 10=매우 높음)로 평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정치정보 수용 매체는 매체 접촉 수준과 매체 영향순위 13문항, 정치 참여활동 17문항, 그리고 정치참여활동 중요성 인식 17문항 등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체 접촉 수준과 매체 영향 순위 문항은 성지원 (2019)에서 활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고, 정치참여활동은 ICCS 2016 학생 설문문항(김태준, 홍영란, 김홍민, 2017), 성지원 (2019), 이지은(2008) 등에서 활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 인식은 ICCS 2016 학생 설문문항(김태준, 홍영란, 김홍민, 2017)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정치정보 수용 매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s  $\alpha$  =.933으로 나타나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정치효능감은 내적 효능감 6문항과 외적 효능감 6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치효능감 문항은 이지은(2008)과 성지원(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정치효능감은 자신이 정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 또는 기대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 s  $\alpha$  =.820으로 나타나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응답자 기본정보는 성별, 학년, 지역, 학업성적수준, 경제수준, 부모님(보호자) 학력, 그리고 부모님(보호자) 정치활동 및 성향(정치내용의 언급 정도와 정당 및 단체활동 정도) 등과 같이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Ⅲ-2 연구도구의 구성영역 및 문항구성〉

영역	하위영역	문항구성	문항수
I.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1. 기관에 대한 신뢰	1-14	14
	2.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1) 중앙정부기관 2) 지방정부기관	1-4	4
	3.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	1-7	7
II. 정치관심과 참여	1. 관심 수준	1-10	10
	2. 선거관련 지식	1-3	3
	3. 개인 활동 참여	1-9	9
III. 정치성향	1. 정치성향의 유형	1	1
	2. 정치성향의 수준	1	1
IV. 정치정보 수용 매체	1. 매체 접촉 수준	1-12	12
	1-1. 매체 영향 순위	1	1
	2. 정치참여활동	1-17	17
	3. 정치참여 중요성 인식	1-17	17
V. 정치효능감	1. 내적 효능감	1-6	6
	2. 외적 효능감	7-12	6
응답자 기본정보	1. 성별	1	1
	2. 학년	1	1
	3. 지역	1	1
	4. 학업성적수준	1	1
	5. 경제수준	1	1
	6. 부모님(보호자) 학력	1	1
	7. 부모님(보호자) 정치활동 및 성향 1) 정치내용의 언급 정도 2) 정당 및 단체활동 정도	4	4
합계			118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를 조사를 위해 2020년도 기준으로 충청남도 지역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15개 시군별 학교와 고등학교 1~3학년 및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99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위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변인(성별, 학년, 학업성적수준, 경제수준, 부모님(보호자) 학력, 부모님(보호자)의 특성, 그리고 지역별)과 문항의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전략도출을 위한 질적분석방법

이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치참여를 지원하여 선도적인 청소년의 정책 여건 마련과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의 요구 및 필요성 파악,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 및 요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Ⅲ-3 전문가 의견조사〉

영역	자료 수집 및 분석 내용
목적	청소년 정치참여 요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대상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전문가 9명
기간	2020년 8월 ~ 9월
방법	F.G.I 및 개인면담
내용	청소년 정치참여의 요구 및 필요성, 청소년 정치참여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 및 요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도출

전문가 의견조사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전략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참여자는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의 방법은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과 개인면담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면담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다.

#### 1) 조사 대상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전략을 마련하는 목적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한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학교 및 수련시설,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 및 심층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표Ⅲ-4 F.G.I 대상자〉

영역	면담참여자	소속	청소년성장지원 관련 경험	면담일자(시간)
학계 및 연구기관	A1	00연구원	청소년 참정권 관련 연구	2020.09.08.(42분)
현장전문가	A2	00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사회교과 교사	2020.08.14.(88분)
	A3	00청소년수련관	지역 정치참여 프로그램 운영	
	A4	00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 참정권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및 교육청	A5	00교육지원청	청소년 참정권 및 민주시민교육	2020.08.14.(53분)
	A6	00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련 교육 및 청소년 참정권	
청소년	A7	00 충남도당	청소년 인권 및 정치참여 관련 활동	2020.08.14.(68분)
	A8	00청소년의회		
	A9	청소년인권행동 0000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A1)는 대학에서부터 청소년 정치 관련 주제로 연구를 하고, 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정치 관련 내용을 교육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청소년참여기구 및 정치참여 관련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위원회 및 운영을 경험한 현장전문가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A2)는 30년 이상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사회과 교사로서 학교 안과 밖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에 참여하였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전문가(A3)는 13년 이상 수련관에 근무하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 위원회를 통해 정치참여 관련 활동을 운영하였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근무하는 현장전문가(A4)는 10년 이상 청소년시설에 근무한 전문가로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6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전문가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전문가(A6)는 민주시민교육과 선거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전문가(A5)는 20년의 교육경력과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관련 업무와 정치참여 관련 학생 연합회 등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전문가로서 당 소속의 청소년(A7) 전문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당 소속 대학생 위원장, 지역 대학생 위원장 등을 경험하였다.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한 청소년 전문가(A8)는 청소년의회에서 의원과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청소년(A9) 전문가의 경우는 청소년인권 관련 활동 단체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은 8월 ~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사전에 연구에 대하여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면담 시에 서면으로 면담동의서를 얻은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 내외로 실시하였으며, 면담에 대한 사례로서 소정의 답례를 하였다. 면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먼저 연구의 개요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활동 및 연구한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어요?” ,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해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가?” 등 참여자의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정치참여가 왜 필요한가?” ,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등에 청소년 정치참여의 요구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치참여의 내용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요?” 등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여건마련을 위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녹음 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사(transcription)하였으며,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의 목적과 질문의 영역을 고려하여 범주화하여 사례와 함께 해석을 하였으며, 면담 시에 연구자가 연구의 민감성을 위해 작성한 메모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는 가독성이 높도록 내용의 추상화에 따라 주제, 하위범주, 범주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와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두고,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을 분석과 해석을 통해 충분히 답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 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 탐색 결과에 대한 엄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및 결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들로부터 확인을 받는 외부감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분석과 해석의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동료 검수(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여 나온 결과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요구와 앞으로의 정책적 전략 및 여건 마련에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제 IV 장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조사  
양적 연구결과



## 제 IV 장

###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조사의 양적 연구결과

#### 1.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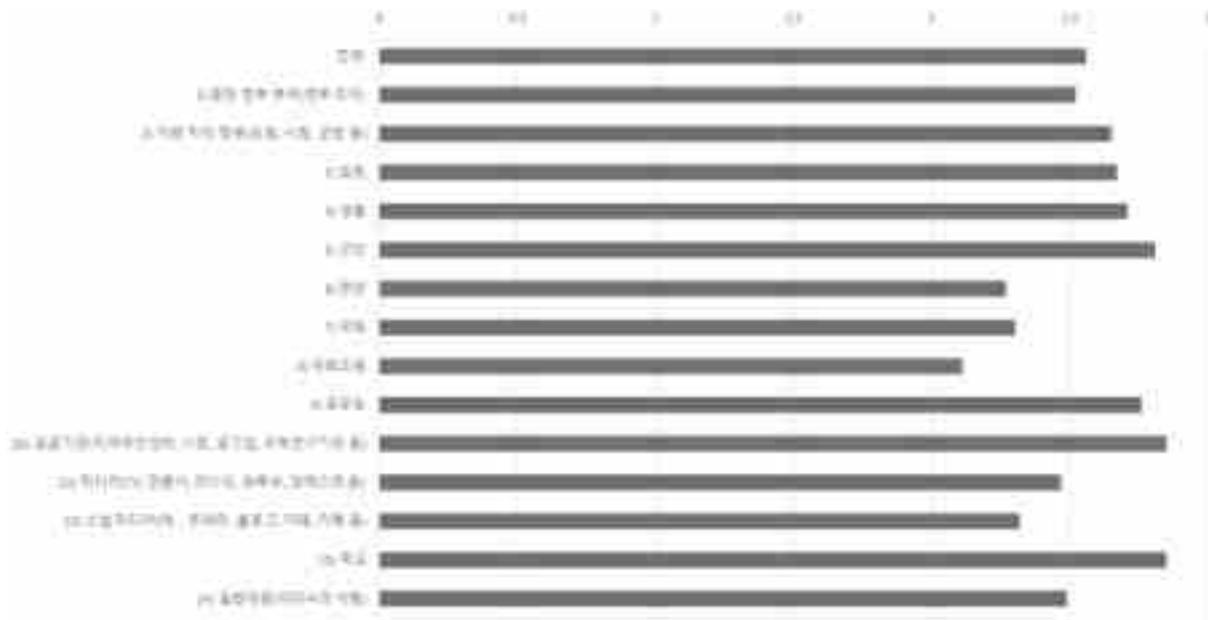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그리고 우리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국내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충청남도 청소년의 국내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지역주민센터, 시청,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등)(M=2.85, SD=.70)과 학교(M=2.85, SD=.74)로 가장 신뢰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군대(M=2.81, SD=.81)의 신뢰가 높았다. 한편, 국회의원(M=2.11, SD=.83)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당(M=2.27, SD=.80)과 국회(M=2.30, SD=.82) 등의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청소년들도 소셜 미디어(예 : 트위터, 블로그, 카페, 카톡 등)와 친숙한 매체로 인식하여 많은 정보들을 수용하면서도,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한 신뢰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 청소년의 국내기관 신뢰 수준〉

구분	N	M	SD
전체	1993	2.56	0.54
1) 중앙 정부 부처(정부 조직)	1983	2.52	0.75
2) 지방 자치 정부(도청, 시청, 군청 등)	1980	2.65	0.72
3) 법원	1989	2.67	0.82
4) 경찰	1983	2.71	0.79
5) 군대	1987	2.81	0.81
6) 정당	1986	2.27	0.80
7) 국회	1985	2.30	0.82
8) 국회의원	1989	2.11	0.83
9) 공무원	1980	2.76	0.73
10) 공공기관(지역주민센터, 시청,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등)	1969	2.85	0.70
11)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유튜브, 팟캐스트 등)	1983	2.47	0.78
12) 소셜 미디어(예 : 트위터, 블로그, 카페, 카톡 등)	1984	2.32	0.82
13) 학교	1984	2.85	0.74
14) 일반대중(대다수의 사람)	1987	2.49	0.76



[그림 IV-1] 청소년의 국내기관 신뢰 수준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국내 기관의 신뢰수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과 변량분석(AN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여학생(M=2.56, SD=.48)이 남학생(M=2.54, SD=.59)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t=-.655,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국내 기관의 신뢰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는 1학년(M=2.64, SD=.55) 학생이 가장 높고, 2학년(M=2.59, SD=.51)과 3학년(M=2.43, SD=.54) 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27.3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년이 높은 학생이 국내 기관의 신뢰에 대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하수준(M=2.63, SD=.53)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상수준(M=2.39, SD=.64)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8.5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중하, 중, 그리고 하 수준 학생의 신뢰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상 수준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상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이 국내 기관 신뢰에 대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상수준(M=2.58, SD=.53)과 중수준(M=2.58, SD=.50)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2.30, SD=.69)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7.3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중상, 중, 그리고 중하 수준 학생의 신뢰수준이 높았으며, 상 그리고 하 수준의 학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제수준이 중간수준인 학생들의 국내 기관 신뢰수준이 높은 반면, 양극화 현상과 같이 상수준과 하수준의 학생들의 국내 기관 신뢰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학력에 있어 아버지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M=2.61, SD=.52)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 졸(M=2.45, SD=.6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5.6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고등학교졸, 대학졸(4년제, 2년제), 그리고 대학원 이상 졸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국내 기관 신뢰수준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국내 기관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2년제 대학졸(M=2.59, SD=.50)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 졸(M=2.39, SD=.6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4.31$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졸(4년제, 2년제)과 고등학교 졸이 높고, 대학원 이상 졸이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업수준에 비해 국내 기관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M=2.62, SD=.54)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M=2.32, SD=.6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5.76$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졸(4년제, 2년제)과 고등학교 졸이 높고, 대학원 이상 졸이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호자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업수준에 비해 국내 기관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수준에 따른 국내 기관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가끔 말하는 부모(M=2.60, SD=.52)가 가장 높고,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M=2.48, SD=.61)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4.32$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가끔 말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다른 부모들의 학생들보다 국내 기관 신뢰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활동의 참여 수준에 따른 국내 기관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가끔 활동하는 부모(M=2.66, SD=.54)가 가장 높고,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M=2.37, SD=.61)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5.2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가끔 활동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다른 부모들의 학생들보다 국내 기관 신뢰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내기관 신뢰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93	2.56	0.54			
성별	남	1,002	2.54	.59	-.655		
	여	978	2.56	.48			
학년	1학년	675	2.64	.55	27.32**	1, 2>3	
	2학년	676	2.59	.51			
	3학년	631	2.43	.54			
학업성적수준	상	202	2.39	.64	8.50**	중하, 중, 하>중상>상	
	중상	435	2.50	.51			
	중	821	2.59	.51			
	중하	357	2.63	.53			
	하	152	2.58	.54			
경제수준	상	109	2.36	0.73	7.35**	중상, 중, 중하>상, 하	
	중상	390	2.58	0.53			
	중	1237	2.58	0.51			
	중하	171	2.55	0.47			
	하	52	2.30	0.69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3	2.45	0.61	5.66**	고졸>대학>대학원
		4년제 대학 졸	787	2.54	0.54		
		2년제 대학 졸	104	2.51	0.41		
		고등학교 졸	753	2.61	0.52		

구분			N	M	SD	t/F값
부모님 (보호자) 정치참여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7	2.39	0.60	4.31** 대학, 고등> 대학원
		4년제 대학 졸	770	2.56	0.55	
		2년제 대학 졸	125	2.59	0.50	
		고등학교 졸	797	2.57	0.52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2.32	0.67	5.76** 대학, 고등> 대학원
		4년제 대학 졸	354	2.59	0.53	
		2년제 대학 졸	35	2.57	0.52	
		고등학교 졸	303	2.62	0.54	
정치 관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4	2.48	0.55	4.32** 가끔>매우자주, 자주, 전혀안함
		자주함	518	2.53	0.55	
		가끔함	950	2.60	0.52	
		전혀 안함	237	2.53	0.56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2.37	0.73	5.24** 가끔>매우 열심히, 상당히, 안함
		상당히 활동	90	2.56	0.64	
		가끔 활동	295	2.66	0.54	
		활동 안함	1534	2.54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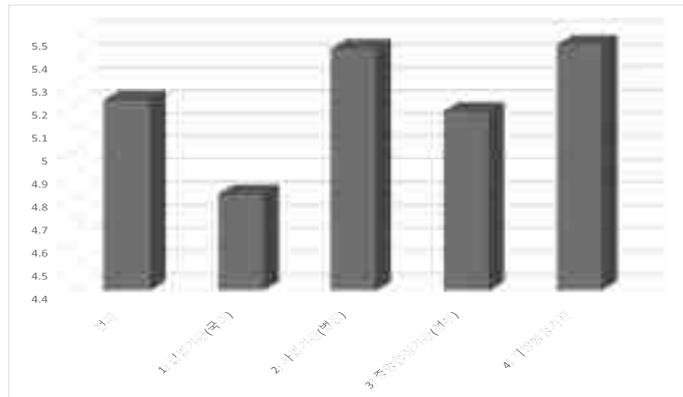
\*:  $p < .05$ , \*\*:  $p < .01$

## 2)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충청남도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5.23/10.00(SD=2.08)이었으며,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M=5.47, SD=2.17)로 가장 높았으며, 입법기관(국회)(M=4.82, SD=2.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Ⅳ-3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구분	N	M	SD
전체	1991	5.23	2.08
1) 입법기관(국회)	1991	4.82	2.29
2) 사법기관(법원)	1989	5.45	2.38
3) 중앙행정기관(정부)	1990	5.18	2.33
4)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1989	5.47	2.17



[그림Ⅳ-2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 권력기관의 신뢰수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과 변량분석(AN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남학생(M=5.29, SD=2.18)이 여학생(M=5.16, SD=1.96)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t=1.41$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국가 권력기관의 신뢰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는 1학년(M=5.43, SD=2.06) 학생이 가장 높고, 2학년(M=5.39, SD=2.03), 그리고 3학년(M=4.83, SD=2.08) 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7.45$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년이 높은 학생이 국가 권력기관의 신뢰에 대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수준(M=5.39, SD=1.99)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상수준(M=4.72, SD=2.44)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4.46$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수준 학생의 신뢰수준이 가장 낮았고, 나머지 학생들의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이 국가 권력기관 신뢰에 대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상수준(M=5.43, SD=2.19)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상수준(M=4.47, SD=2.44)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6.61$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중상, 중, 그리고 중하 수준 학생의 신뢰수준이 높았으며, 상과 하 수준의 학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제수준이 중간수준인 학생들의 국가 권력기관 신뢰수준이 높은 반면, 양극화 현상과 같이 상수준과 하수준의 학생들의 신뢰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학력에 있어 아버지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M=5.31, SD=2.00)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 졸(M=4.94, SD=2.3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49$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에 상관없이 국가 권력기관의 신뢰수준이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2년제 대학졸(M=5.47, SD=2.01)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 졸(M=4.66, SD=2.3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77$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졸(4년제, 2년제)과 고등학교 졸이 높고, 대학원 이상 졸이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업수준에 따라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졸(M=5.33, SD=2.11)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M=4.61, SD=2.5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2.35$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자의 학력에 상관없이 국가 권력기관의 신뢰수준이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수준에 따른 국가 권력기관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가끔 말하는 부모(M=5.39, SD=2.05)가 가장 높고,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M=4.98, SD=2.12)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4.1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가끔 말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다른 부모들의 학생들보다 국가 권력기관 신뢰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활동의 참여 수준에 따른 국내 기관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가끔 활동하는 부모(M=5.54, SD=2.09)가 가장 높고,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M=5.00, SD=2.67)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2.68$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가끔 활동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들의 학생들보다 국가 권력기관 신뢰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가 권력기관 신뢰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91	5.23	2.08			
성별	남	1001	5.29	2.18	1.41		
	여	977	5.16	1.96			
학년	1학년	675	5.43	2.06	17.45**	1, 2>3	
	2학년	675	5.39	2.03			
	3학년	630	4.83	2.08			
학업성적수준	상	202	4.72	2.44	4.46**	중상, 중, 중하, 하>상	
	중상	435	5.19	2.07			
	중	819	5.39	1.99			
	중하	357	5.25	2.02			
	하	152	5.13	2.04			
경제수준	상	109	4.47	2.44	6.61**	중상, 중, 중하>상, 하	
	중상	389	5.43	2.19			
	중	1236	5.30	1.99			
	중하	171	5.07	1.87			
	하	52	4.54	2.52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3	4.94	2.31	1.49	-
		4년제 대학졸	786	5.25	2.16		
		2년제 대학졸	103	5.22	1.78		
		고등학교졸	753	5.31	2.00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7	4.66	2.37	3.77**	대학, 고등> 대학원
		4년제 대학졸	769	5.30	2.16		
		2년제 대학졸	124	5.47	2.01		
		고등학교졸	797	5.23	1.98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4.61	2.58	2.35	-
		4년제 대학졸	353	5.33	2.11		
		2년제 대학졸	35	5.16	2.13		
		고등학교졸	303	5.30	2.05		
부모님 (보호자) 정치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4.98	2.12	4.14**	가끔>매우자주, 자주, 전혀 안함
		자주함	517	5.17	2.11		
		가끔함	950	5.39	2.05		
		전혀 안함	237	5.01	2.03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5.00	2.67	2.68*	가끔>매우 열심히
		상당히 활동	89	5.15	2.21		
		가끔 활동	295	5.54	2.09		
		활동 안함	1533	5.18	2.05		

\*:  $p < .05$ , \*\*:  $p < .01$

3) 우리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현황

충청남도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현황에 대한 분석은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의식,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의식,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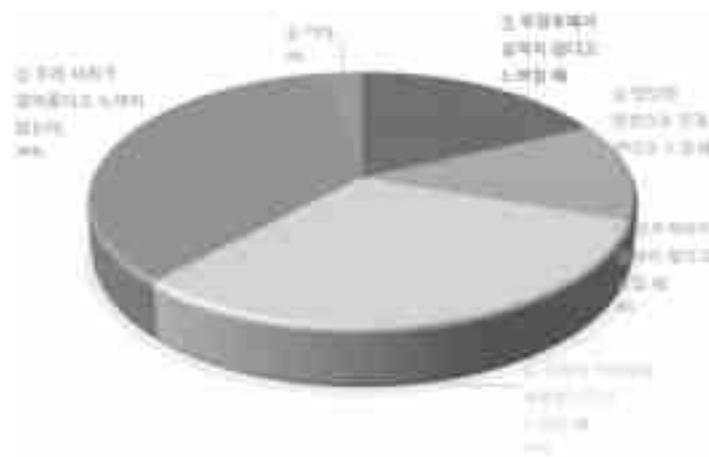
(1) 청소년이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

충청남도 청소년이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에 있어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느끼지 않는다’가 35.7%(699명)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다고 느껴질 때’가 31.4%(615명)가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4.4%(86명)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있어서 카이제곱 검정( $\chi^2$ )을 한 결과, 성별에 있어  $\chi^2=27.5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은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다고 느낄 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느낄 때’,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다고 느껴질 때’와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Ⅳ-5 청소년이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

구분	N	%	성별	
			남자	여자
전체	1958	100	981	964
①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351	17.9	198	149
②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느낄 때	158	8.1	95	63
③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고 느낄 때	86	4.4	53	31
④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다고 느껴질 때	615	31.4	285	327
⑤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699	35.7	321	374
⑥ 기타	49	2.5	29	20
			27.59**	

\*\* :  $p<.01$



[그림Ⅳ-3 청소년이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

2)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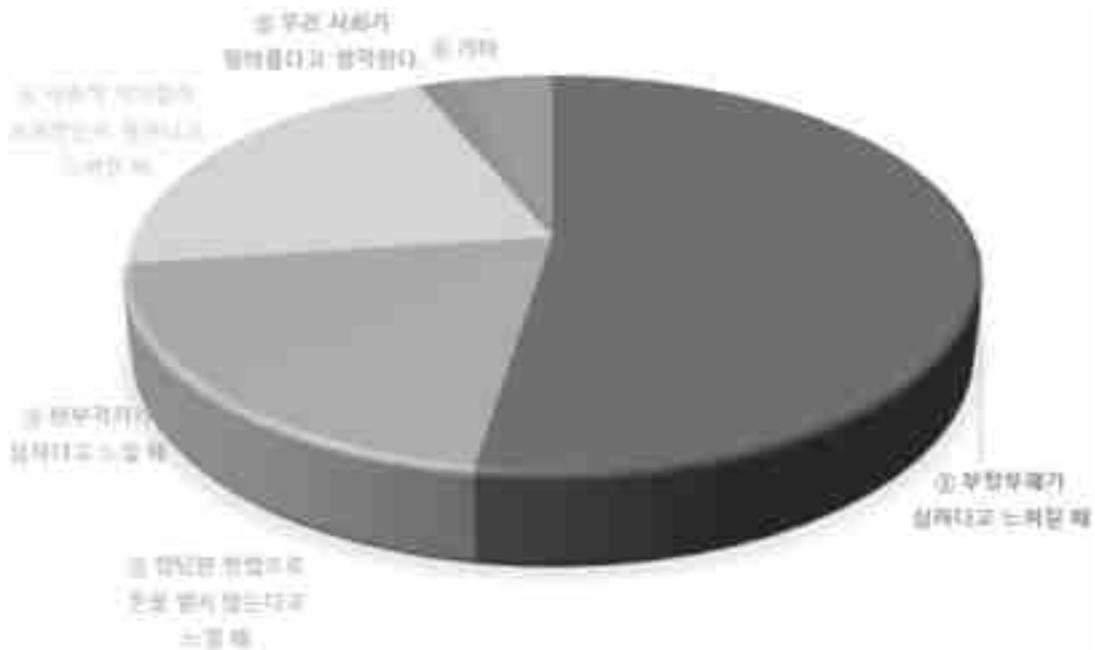
우리사회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52.4%(99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10.5%(199명)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학생은 1.7%(32명)에 머물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카이자승 검정( $\chi^2$ )을 한 결과,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에 있어 성별( $\chi^2=28.38, p<.01$ )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학년( $\chi^2=19.26, p<.05$ )에서는 2학년의 비율이 높았고, 학업성적수준( $\chi^2=60.90, p<.01$ )과 경제적 수준( $\chi^2=41.82, p<.01$ )에서는 중수준의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님의 정치적 관심( $\chi^2=26.95, p<.05$ )에서는 가끔 말하시는 부모의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Ⅳ-6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

구분	전체		성별		학년		
	N	%	남자	여자	1	2	3
①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	991	52.4	510	475	305	345	336
②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고 느낄 때	199	10.5	105	93	76	68	54
③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느낄 때	188	9.9	113	75	63	69	56
④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397	21	158	238	147	128	121
⑤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32	1.7	20	11	14	7	10
⑥ 기타	84	4.4	42	39	39	26	17
			28.386**		19.262*		

\*:  $p<.05$ , \*\*:  $p<.01$



[그림Ⅳ-4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

〈표Ⅳ-6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계속)〉

구분	전체		학업성적수준				
	N	%	상	중상	중	중하	하
①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	991	52.4	118	238	<b>428</b>	144	52
②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고 느낄 때	199	10.5	14	35	78	48	23
③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느낄 때	188	9.9	21	32	76	44	15
④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397	21	29	72	171	85	35
⑤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32	1.7	2	8	10	8	3
⑥ 기타	84	4.4	7	23	24	14	13
			60.908**				

구분	전체		경제적 수준				
	N	%	상	중상	중	중하	하
①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	991	52.4	63	217	<b>614</b>	65	19
②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고 느낄 때	199	10.5	9	39	118	25	6
③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느낄 때	188	9.9	11	26	123	19	7
④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397	21	15	65	264	38	7
⑤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32	1.7	0	7	18	3	2
⑥ 기타	84	4.4	7	15	41	12	5
			41.82**				

구분	전체		부모님 정치관심			
	N	%	매우자주	자주	가끔	전혀안함
①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	991	52.4	130	274	<b>474</b>	103
②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고 느낄 때	199	10.5	17	44	111	25
③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느낄 때	188	9.9	21	48	97	20
④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397	21	59	95	172	59
⑤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32	1.7	5	1	18	6
⑥ 기타	84	4.4	11	25	37	9
			26.95*			

\*:  $p < .05$ , \*\*:  $p < .01$

(3)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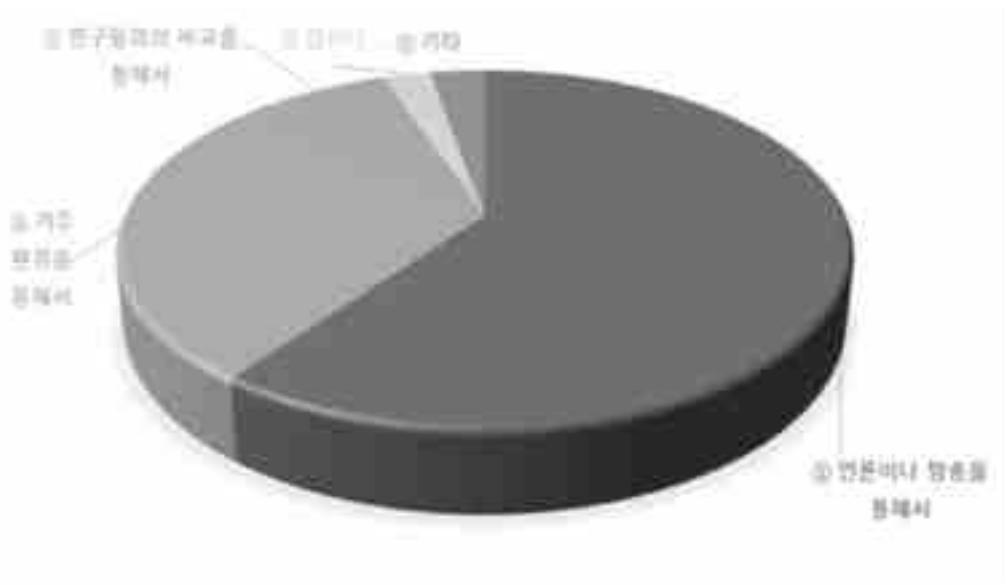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에 있어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가 60.2%(927명)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환경을 통해서’가 26.9%(414명)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7.5%(116명), 그리고 ‘잡지나 책을 통해서’가 2.5%(38명)를 차지하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카이자승 검정( $\chi^2$ )을 한 결과, 성별( $\chi^2=11.01, p<.05$ )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경제적 수준( $\chi^2=29.32, p<.05$ )에서는 중수준의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의 정치활동 참여 수준( $\chi^2=23.66, p<.05$ )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부모의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Ⅳ-7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

구분	전체		성별		경제적 수준				
	N	%	남자	여자	상	중상	중	중하	하
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927	60.2	423	499	38	193	608	59	19
② 거주 환경을 통해서	414	26.9	204	208	23	75	248	46	12
③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116	7.5	68	47	9	24	58	15	6
④ 잡지나 책을 통해서	38	2.5	17	21	3	7	22	5	1
⑤ 기타	44	2.9	27	17	4	6	27	5	1
			11.01*		29.32*				

\*:  $p<.05$



[그림Ⅳ-5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

〈표Ⅳ-7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계속)〉

구분	전체		부모님 정치활동			
	N	%	매우열심	상당히	가끔	활동안함
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927	60.2	12	38	137	727
② 거주 환경을 통해서	414	26.9	5	21	59	321
③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116	7.5	6	6	12	90
④ 잡지나 책을 통해서	38	2.5	1	1	11	24
⑤ 기타	44	2.9	2	4	5	32
			23.66*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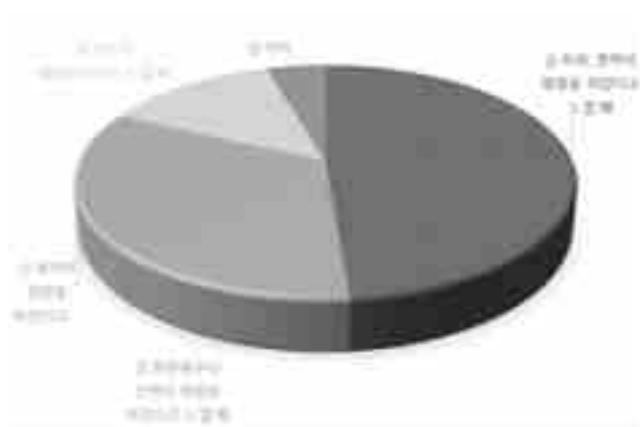
## (4)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지위, 권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가 48.7%(867명)로 가장 높았으며, ‘재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가 20.9%(373명)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가 13.3%(237명), 그리고 ‘전관예우나 인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가 12.6%(224명)를 차지하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카이제곱 검정( $\chi^2$ )을 한 결과, 성별( $\chi^2=3.39, p<.01$ )에서 ‘지위, 권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와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재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와 ‘전관예우나 인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Ⅳ-8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구분	N	%	남자	여자
① 지위, 권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	867	48.7	423	441
② 전관예우나 인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	224	12.6	129	93
③ 재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	373	20.9	211	159
④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237	13.3	87	149
⑤ 기타	81	4.5	48	31
전체	1,782	100	3.39**	

\*\*:  $p < .01$ 

[그림Ⅳ-6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5)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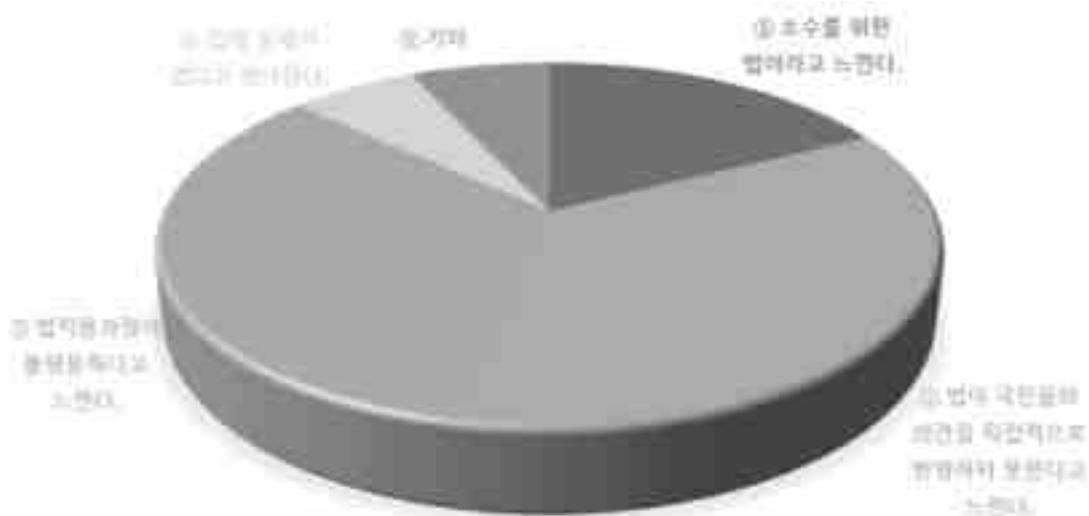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에 있어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가 35.8%(690명)로 가장 높았으며, ‘법 적용 과정이 불평등하다고 느낀다’가 33.4%(644명)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소수를 위한 법이라고 느낀다’가 17.5%(338명), 그리고 ‘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6.3%(122명)를 차지하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카이제곱 검정( $\chi^2$ )을 한 결과, 성별( $\chi^2=3.39, p<.01$ )에서 ‘소수를 위한 법이라고 느낀다’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취수준성별( $\chi^2=3.39, p<.01$ )은 중수준의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 $\chi^2=3.39, p<.01$ )에 있어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4년제 대학졸의 비율이 높고, ‘법 적용 과정이 불평등하다고 느낀다’는 고등학교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Ⅳ-9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

구분	전체		성별	
	N	%	남자	여자
① 소수를 위한 법이라고 느낀다.	338	17.5	196	140
②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690	35.8	325	358
③ 법 적용 과정이 불평등하다고 느낀다.	644	33.4	296	345
④ 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22	6.3	77	45
⑤ 기타	133	6.9	78	55
			26.77**	

\*:  $p<.05$ , \*\*:  $p<.01$



[그림Ⅳ-7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

〈표Ⅳ-9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계속)〉

구분	전체		학업성적수준				
	N	%	상	중상	중	중하	하
① 소수를 위한 법이라고 느낀다.	338	17.5	45	65	126	62	34
②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690	35.8	65	140	306	128	41
③ 법적용과정이 불평등하다고 느낀다.	644	33.4	63	149	274	107	47
④ 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22	6.3	10	25	44	25	17
⑤ 기타	133	6.9	16	38	44	26	6
			3.79**				

\*\*:  $p < .01$ 

구분	전체		부모님의 학력(아버지)			
	N	%	대학원	4년대학	2년대학	고졸
① 소수를 위한 법이라고 느낀다.	338	17.5	38	126	21	120
②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690	35.8	65	289	36	234
③ 법적용과정이 불평등하다고 느낀다.	644	33.4	47	250	31	270
④ 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22	6.3	11	33	9	57
⑤ 기타	133	6.9	8	52	3	57
			25.77**			

\*\*:  $p < .01$ 

## (6)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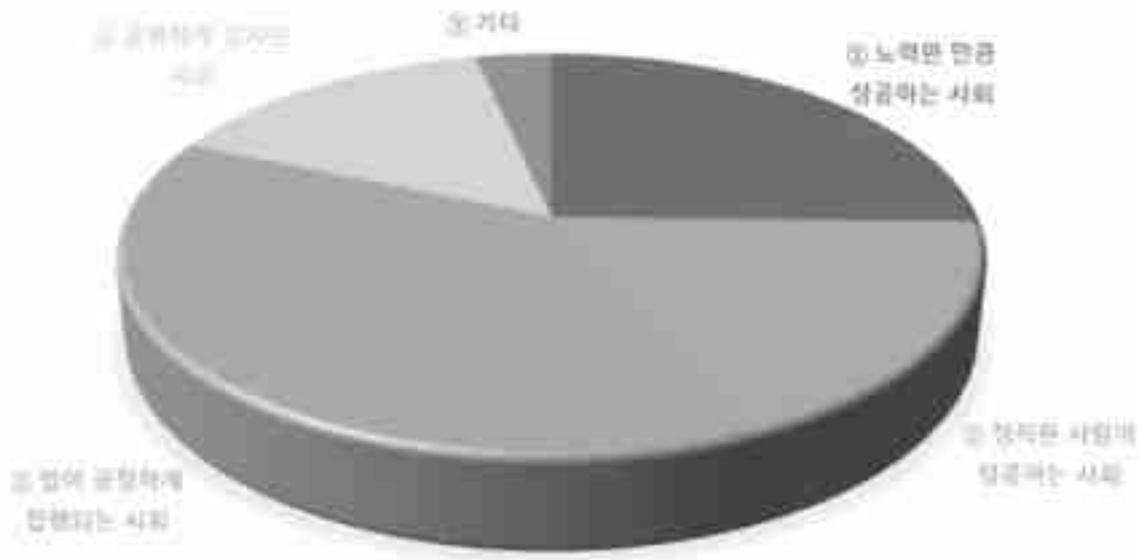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가 37.9%(722명)로 가장 높았으며,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가 25.4%(483명)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18.3%(348명), 그리고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는 15.1%(287명)를 차지하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카이제곱 검정( $\chi^2$ )을 한 결과, 성별( $\chi^2=18.64$ ,  $p < .01$ )에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 $\chi^2=20.90$ ,  $p < .01$ )에서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와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는 1학년의 비율이 높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는 2학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 수준성별( $\chi^2=41.35$ ,  $p < .01$ )은 중수준의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 $\chi^2=34.18$ ,  $p < .01$ )에 있어 ‘중수준의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Ⅳ-10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성별		학년		
	N	%	남자	여자	1	2	3
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	483	25.4	272	208	181	150	150
②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348	18.3	181	165	98	129	119
③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722	37.9	320	398	225	257	237
④ 공평하게 잘사는 사회	287	15.1	151	135	117	97	72
⑤ 기타	65	3.4	34	30	20	18	26
			18.64**		20.90**		

\*\*:  $p < .01$



[그림 IV-8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표 IV-10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계속)>

구분	전체		학업성적수준				
	N	%	상	중상	중	중하	하
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	483	25.4	64	114	205	59	37
②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348	18.3	30	76	146	66	27
③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722	37.9	70	174	294	131	46
④ 공평하게 잘사는 사회	287	15.1	21	38	129	70	26
⑤ 기타	65	3.4	8	17	21	11	6
			41.35**				

\*:  $p < .05$ , \*\*:  $p < .01$

구분	전체		경제적 수준				
	N	%	상	중상	중	중하	하
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	483	25.4	39	100	286	41	12
②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348	18.3	15	67	225	28	7
③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722	37.9	28	158	448	60	16
④ 공평하게 잘사는 사회	287	15.1	19	40	194	20	10
⑤ 기타	65	3.4	5	12	31	9	5
			34.18**				

\*:  $p < .05$ , \*\*:  $p < .01$

## 2. 청소년의 정치관심과 참여에 대한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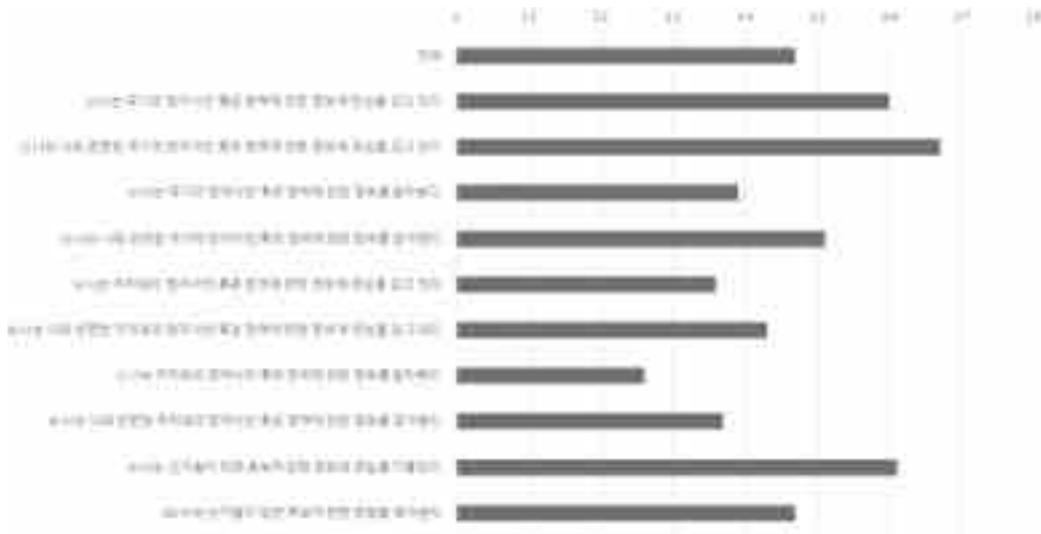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관심과 참여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 그리고 청소년의 정치활동 수준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한 전체 평균은 2.47(SD=.66)로 나타났고, ‘2) 나는 나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2.67(SD=.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 나는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가 2.37(SD=.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Ⅳ-11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구분	N	M	SD
전체	1989	2.47	0.66
1) 나는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89	2.60	0.79
2) 나는 나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88	2.67	0.78
3) 나는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1986	2.39	0.78
4) 나는 나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1983	2.51	0.78
5) 나는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86	2.36	0.77
6) 나는 나와 관련된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86	2.43	0.78
7) 나는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1986	2.26	0.76
8) 나는 나와 관련된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1981	2.37	0.77
9) 나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관련 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1987	2.61	0.86
10) 나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	1987	2.47	0.88



[그림Ⅳ-9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표Ⅳ-1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및 정책의 관심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89	2.47	0.66		
성별	남	1001	2.45	0.70	-1.13	
	여	977	2.49	0.61		
학년	1학년	676	2.45	0.66	.45	
	2학년	675	2.47	0.65		
	3학년	629	2.49	0.66		
학업성적수준	상	201	2.64	0.76	19.02** 상, 중상> 중>중하, 하	
	중상	437	2.62	0.62		
	중	818	2.45	0.63		
	중하	357	2.30	0.63		
	하	152	2.28	0.70		
경제수준	상	109	2.62	0.86	9.75** 상, 중상> 중, 중하, 하	
	중상	389	2.61	0.67		
	중	1236	2.43	0.62		
	중하	171	2.33	0.60		
	하	52	2.35	0.80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3	2.62	0.75	4.65** 대학원> 대학>고졸
		4년제 대학졸	788	2.50	0.64	
		2년제 대학졸	102	2.48	0.63	
		고등학교졸	752	2.43	0.62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7	2.50	0.82	1.57 -
		4년제 대학졸	771	2.52	0.65	
		2년제 대학졸	124	2.47	0.53	
		고등학교졸	795	2.45	0.64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2.50	0.91	5.19** 4년대졸>고졸
		4년제 대학졸	354	2.57	0.65	
		2년제 대학졸	35	2.38	0.56	
		고등학교졸	303	2.36	0.66	
부모님 (보호자) 정치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2.85	0.70	69.95** 매우 자주> 자주>가끔>안함
		자주함	517	2.60	0.58	
		가끔함	949	2.39	0.61	
		전혀 안함	238	2.11	0.68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2.70	0.92	8.30** 매우 열심히> 상당히, 가끔> 안함
		상당히 활동	89	2.62	0.72	
		가끔 활동	295	2.60	0.65	
		활동 안함	1533	2.43	0.64	

\*:  $p < .05$ , \*\*:  $p < .01$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과 변량분석(AN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여학생(M=2.49, SD=.61)이 남학생(M=2.45, SD=.70)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t=-1.13$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정치 및 정책 참여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는 1학년(M=2.45, SD=.66), 2학년(M=2.47, SD=.65), 그리고 3학년(M=2.49, SD=.66) 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45$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에 따른 정치 및 정책 참여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상수준(M=2.64, SD=.76)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2.28, SD=.70)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9.02$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한 결과, 상과 중상수준 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수준, 그리고 중하 및 하 수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정치 및 정책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상수준(M=2.62, SD=.86)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하수준(M=2.33, SD=.60)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9.75$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과 중상 수준의 학생이 높고, 중, 중하, 그리고 하 수준의 학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정치 및 정책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학력에 있어 아버지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 졸(M=2.62, SD=.75)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졸(M=2.43, SD=.6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4.65$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 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졸(2년제, 4년제), 그리고 고등학교졸 순으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 및 정책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졸(M=2.52, SD=.65)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졸(M=2.45, SD=.6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57$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에 상관없이 정치 및 정책 참여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졸(M=2.57, SD=.65)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졸(M=2.36, SD=.6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5.1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4년제 대학졸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졸이 낮게 나타났다. 즉,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 및 정책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수준에 따른 정치 및 정책 참여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M=2.85, SD=.70)가 가장 높고, 전혀 말 안하는 부모(M=2.11, SD=.68)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69.95$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자주, 자주, 가끔, 그리고 전혀 말 안하는 부모를 둔 학생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정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부모를 둔 학생일수록 정치 및 정책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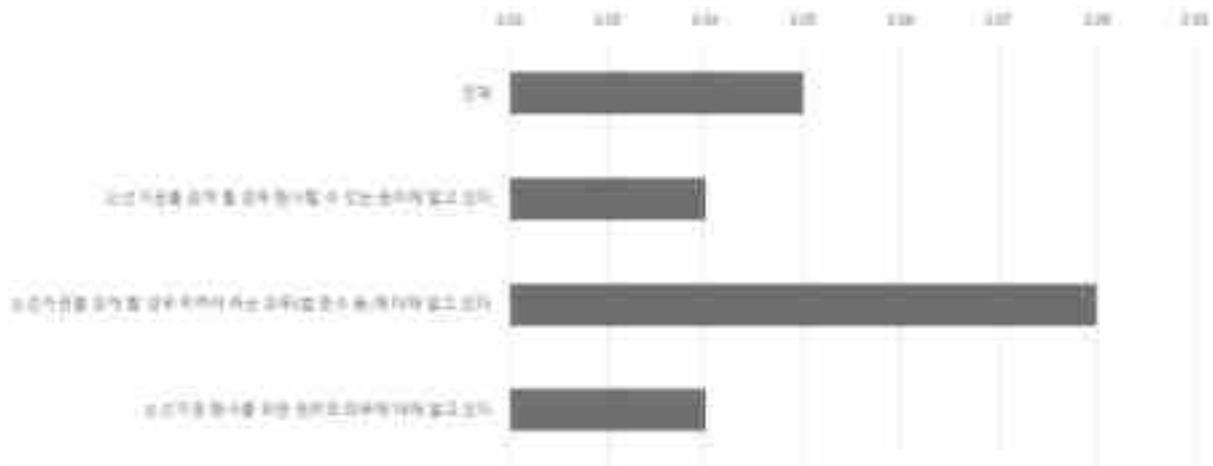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활동의 참여 수준에 따른 정치 및 정책 참여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M=2.70, SD=.92)가 가장 높고, 전혀 활동 안하는 부모(M=2.43, SD=.64)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8.3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 상당히 활동 및 가끔 활동하는 부모, 그리고 전혀 활동을 안하는 부모를 둔 학생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모를 둔 학생일수록 정치 및 정책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

청소년들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 수준의 전체 평균은 3.05(SD=.69)로 나타났고, ‘2)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지켜야 하는 의무(법 준수 등)에 대해 알고 있다.’가 3.08(SD=.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알고 있다.’와 ‘3)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고 있다.’가 3.04(SD=.73, SD=.75)로 나타났다.

<표IV-13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

구분	N	M	SD
전체	1986	3.05	0.69
1)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알고 있다.	1984	3.04	0.73
2)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지켜야 하는 의무(법 준수 등)에 대해 알고 있다.	1985	3.08	0.74
3)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고 있다.	1983	3.04	0.75



[그림 IV-10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거지식에 대한 수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과 변량분석 (AN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여학생(M=3.07, SD=.66)이 남학생(M=3.04, SD=.71)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t=-.09,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선거지식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는 1학년(M=3.02, SD=.68), 2학년(M=3.08, SD=.70), 그리고 3학년(M=3.07, SD=.69) 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367,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에 따른 선거지식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상수준(M=3.22, SD=.65)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2.74, SD=.73)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21.0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한 결과, 상과 중상수준 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수준, 중하수준, 그리고 하수준으로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선거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상수준(M=3.18, SD=.67)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2.81, SD=.85)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7.22$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수준, 중상 수준, 그리고 중 수준의 학생이 중하와 하 수준의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선거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학력에 있어 아버지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 졸(M=3.16, SD=.70)이 가장 높고, 2년제 대학졸(M=3.01, SD=.7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2.82$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 졸과 4년제 대학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제 대학교졸과 고등학교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졸(M=3.11, SD=.67)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졸(M=3.04, SD=.6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41$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에 상관없이 선거지식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졸(M=3.14, SD=.68)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졸(M=2.93, SD=.7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4.8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 졸과 대학졸(2년제, 4년제)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졸이 낮게 나타났다. 즉,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수준에 따른 선거지식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M=3.36, SD=.66)가 가장 높고, 전혀 말 안하는 부모(M=2.81, SD=.77)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2.06$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자주, 자주, 가끔, 그리고 전혀 말 안하는 부모를 둔 학생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정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부모를 둔 학생일수록 선거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활동의 참여 수준에 따른 선거지식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M=3.13, SD=.85)가 가장 높고, 전혀 활동 안하는 부모(M=3.04, SD=.68)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87$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모와 상관 없이 선거지식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1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거지식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86	3.05	0.69		
성별	남	999	3.04	0.71	-.09	
	여	976	3.07	0.66		
학년	1학년	675	3.02	0.68	1.367 -	
	2학년	673	3.08	0.70		
	3학년	629	3.07	0.69		
학업성적수준	상	200	3.16	0.76	21.05** 상, 중상>중>중하>하	
	중상	437	3.22	0.65		
	중	817	3.07	0.65		
	중하	356	2.89	0.67		
	하	152	2.74	0.73		
경제수준	상	108	3.09	0.85	7.22** 상, 중상, 중>중하, 하	
	중상	389	3.18	0.67		
	중	1234	3.04	0.65		
	중하	171	2.90	0.72		
	하	52	2.81	0.85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2	3.16	0.70	2.82* 대학원, 4년 대학>2년대학, 고졸
		4년제 대학졸	787	3.10	0.67	
		2년제 대학졸	102	3.01	0.73	
		고등학교졸	752	3.02	0.68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6	3.05	0.73	1.41 -
		4년제 대학졸	771	3.11	0.67	
		2년제 대학졸	123	3.06	0.67	
		고등학교졸	794	3.04	0.69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0	3.12	0.77	4.99** 대학원, 대졸>고졸
		4년제 대학졸	354	3.14	0.68	
		2년제 대학졸	35	3.03	0.76	
		고등학교졸	303	2.93	0.70	
부모님 (보호자) 정치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3.36	0.66	32.06** 매우 자주>자주>가끔>안함
		자주함	517	3.13	0.64	
		가끔함	947	3.00	0.66	
		전혀 안함	237	2.81	0.77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3.13	0.85	.87 -
		상당히 활동	89	3.05	0.78	
		가끔 활동	295	3.11	0.68	
		활동 안함	1530	3.04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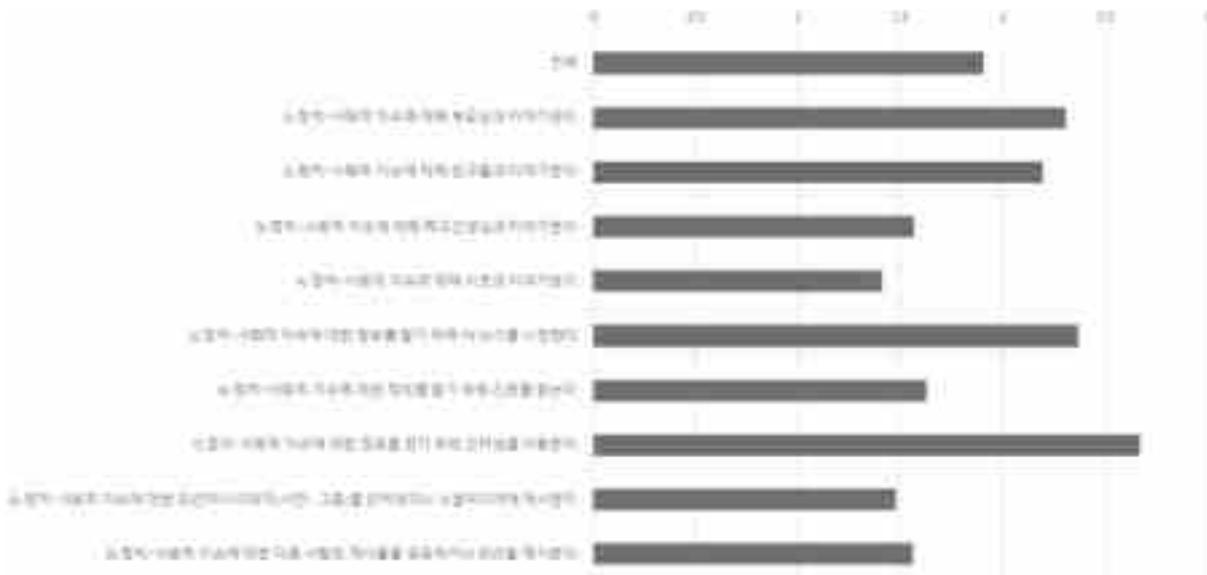
\*:  $p < .05$ , \*\*:  $p < .01$

3) 청소년의 정치 활동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준의 전체 평균은 1.91(SD=.59)로 나타났고, ‘7)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가 2.67(SD=.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웃과 이야기한다.’가 1.41(SD=.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Ⅳ-15 청소년의 정치활동 수준>

구분	N	M	SD
전체	1989	1.91	0.59
1)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1988	2.31	0.90
2)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1987	2.20	0.87
3)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학교선생님과 이야기한다.	1988	1.57	0.74
4)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웃과 이야기한다.	1987	1.41	0.73
5)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TV 뉴스를 시청한다.	1985	2.37	0.92
6)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1982	1.63	0.84
7)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1986	2.67	0.94
8)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이미지(사진·그림)를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1985	1.48	0.80
9)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1986	1.56	0.83



[그림Ⅳ-11 청소년의 정치활동 수준]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수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과 변량분석 (AN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여학생(M=1.92, SD=.56)이 남학생(M=1.91, SD=.62)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t=-.20$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정치활동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는 1학년(M=1.90, SD=.62), 2학년(M=1.95, SD=.59), 그리고 3학년(M=1.89, SD=.57) 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80$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에 따른 정치활동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상수준(M=2.14, SD=.72)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하와 하수준(M=1.77, SD=.53), SD=.65)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9.76$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한 결과, 상수준이 제일 높고, 중상수준, 중수준, 그리고 중하와 하수준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상수준(M=2.18, SD=.81)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1.82, SD=.78)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9.63$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과 중상 수준이 제일 높고, 중, 중하, 하수준수준의 학생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제수준이 상과 중상인 학생들의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학력에 있어 아버지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 졸(M=2.09, SD=.71)이 가장 높고, 2년제 대학졸(M=1.87, SD=.5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6.17$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 졸이 가장 높고, 4년제 대학졸, 2년제 대학교졸, 그리고 고등학교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인 학생이 일반 학생들보다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 졸(M=2.00, SD=.75)이 가장 높고, 2년제 대학졸(M=1.88, SD=.5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2.08$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에 상관없이 정치활동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 졸(M=2.08, SD=.84)이 가장 높고, 2년제 대학졸(M=1.73, SD=.5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6.9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 졸과 4년제 대학졸이 가장 높았으며, 2년제 대학졸과 고등학교졸이 낮게 나타났다. 즉,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수준에 따른 정치활동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M=2.39, SD=.67)가 가장 높고, 전혀 말 안하는 부모(M=1.51, SD=.45)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36.27$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자주, 자주, 가끔, 그리고 전혀 말 안하는 부모를 둔 학생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정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부모를 둔 학생일수록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활동의 참여 수준에 따른 정치활동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M=2.28, SD=.88)가 가장 높고, 전혀 활동 안하는 부모(M=1.87, SD=.56)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7.71$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열심히 활동이 제일 높고, 상당히 활동과 가끔 활동이 중간수준이었으며, 전혀 활동 안하는 부모를 둔 학생의 정치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모의 학생일수록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16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89	1.91	0.59		
성별	남	1002	1.91	0.62	-20	
	여	976	1.92	0.56		
학년	1학년	676	1.90	0.62	1.80 -	
	2학년	675	1.95	0.59		
	3학년	629	1.89	0.57		
학업성적수준	상	202	2.14	0.72	19.76** 상> 중상>중>중하, 하	
	중상	437	2.02	0.60		
	중	818	1.88	0.54		
	중하	356	1.77	0.53		
	하	152	1.77	0.65		
경제수준	상	109	2.18	0.81	19.63** 상, 중상, > 중, 중하, 하	
	중상	389	2.08	0.60		
	중	1236	1.85	0.53		
	중하	171	1.83	0.58		
	하	52	1.82	0.78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3	2.09	0.71	6.17** 대학원> 4년 대학, 2년대학, 고졸
		4년제 대학졸	787	1.93	0.58	
		2년제 대학졸	103	1.87	0.54	
		고등학교졸	752	1.88	0.57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7	2.00	0.75	2.08 -
		4년제 대학졸	771	1.95	0.59	
		2년제 대학졸	124	1.88	0.58	
		고등학교졸	795	1.90	0.57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2.08	0.84	6.99* 대학원, 4년대졸>2년대 졸, 고졸
		4년제 대학졸	354	2.00	0.59	
		2년제 대학졸	35	1.73	0.53	
		고등학교졸	303	1.83	0.58	
부모님 (보호자) 정치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2.39	0.67	136.27** 매우 자주>자주>가끔 >안함
		자주함	517	2.06	0.57	
		가끔함	949	1.81	0.51	
		전혀 안함	238	1.51	0.45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2.28	0.88	17.71** 매우열심히>상당히, 가끔>활동안함
		상당히 활동	89	2.17	0.66	
		가끔 활동	295	2.03	0.63	
		활동 안함	1533	1.87	0.56	

\*:  $p < .05$ , \*\*:  $p < .01$

### 3. 청소년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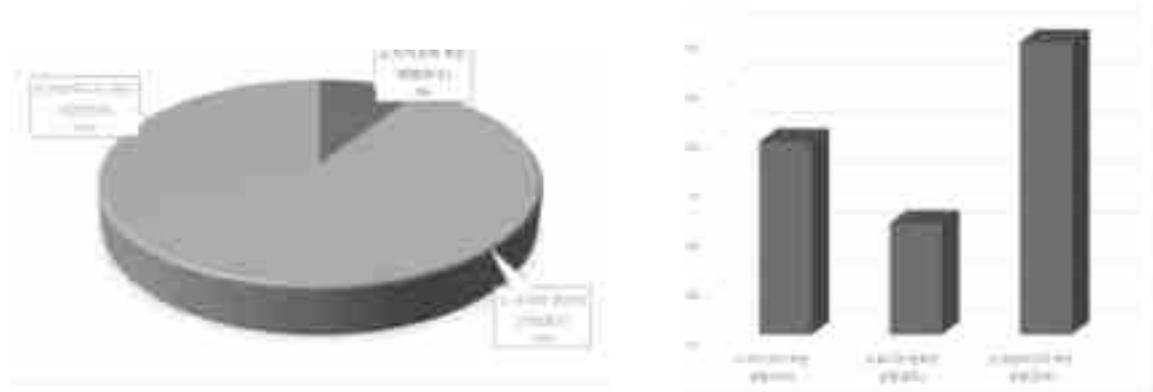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성향에 있어서는 정치성향의 유형과 정치 성향의 수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고,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성향 유형에 있어서는 현재 상태의 유지와 변화의 균형을 이루는 중도 유형이 58.1%(1,154명), 변화하고자 하는 진보 유형이 32.8%(652명),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보수 성향이 9.1%(180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정도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변화하고자 하는 진보 성향 수준의 평균은 6.58/10(SD=1.90)로 가장 높았고, 지키고자 하는 보수 성향 수준의 평균 6.18(SD=2.2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유지와 변화의 균형을 이루는 중도 성향 수준의 평균은 5.85(SD=1.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한 결과,  $F=33.48$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진보성향이 가장 높았고, 중도성향, 그리고 보수성향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Ⅳ-17 청소년의 정치 성향 유형 및 수준>

정치 성향	유형		수준			
	N	%	M	SD	F	사후
1) 지키고자 하는 성향(보수)	180	9.1	6.18	2.21	33.48**	진보>중도>보수
2) 유지와 변화의 균형(중도)	1154	58.1	5.85	1.70		
3) 변화하고자 하는 성향(진보)	652	32.8	6.58	1.90		

\*\* :  $p<.01$



[그림Ⅳ-12 청소년의 정치 성향 유형(좌) 및 수준(우)]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성향의 유형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카이자승 검정( $\chi^2$ )을 한 결과, 성별, 학년, 학업성취수준, 경제적 수준, 그리고 부모님의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에 있어  $\chi^2=27.9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은 보수성향의 비율이 높고, 여학생은 중도성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  $\chi^2=16.7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학년은 중도 성향의 비율이 높고, 2학년은 진보 성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에 있어  $\chi^2=26.5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수준이 중도성향의 비율이 높고, 중상수준이

진보의 성향이 보수는 중과 중하 수준의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  $\chi^2=40.77$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중수준이 각 정치성향의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정치관심 수준에 있어  $\chi^2=13.98$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끔 활동하시는 부모를 둔 학생들의 정치성향 비율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표Ⅳ-18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성향 유형의 차이분석〉

정치 성향	유형		성별		학년		
	N	%	남자	여자	1	2	3
1) 지키고자 하는 성향(보수)	180	9.1	124	55	76	49	54
2) 유지와 변화의 균형(중도)	1154	58.1	553	596	402	370	379
3) 변화하고자 하는 성향(진보)	652	32.8	323	324	196	255	196
			27.90**		16.74**		

정치 성향	유형		학업성적수준				
	N	%	상	중상	중	중하	하
1) 지키고자 하는 성향(보수)	180	9.1	36	30	60	38	16
2) 유지와 변화의 균형(중도)	1154	58.1	113	244	489	206	88
3) 변화하고자 하는 성향(진보)	652	32.8	53	162	268	112	47
			26.50**				

정치 성향	유형		경제적수준				
	N	%	상	중상	중	중하	하
1) 지키고자 하는 성향(보수)	180	9.1	24	44	82	18	9
2) 유지와 변화의 균형(중도)	1154	58.1	58	213	741	103	25
3) 변화하고자 하는 성향(진보)	652	32.8	27	133	409	50	18
			40.77**				

정치 성향	유형		부모님 정치관심			
	N	%	매우 자주	자주	가끔	전혀 안함
1) 지키고자 하는 성향(보수)	180	9.1	29	37	90	20
2) 유지와 변화의 균형(중도)	1154	58.1	123	313	563	138
3) 변화하고자 하는 성향(진보)	652	32.8	102	167	294	78
			13.98**			

\*\* :  $p<.01$

#### 4.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경로 및 정치활동 실태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에 대한 경로와 정치활동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치정보를 수용하는 매체, 정치 정보 수용 매체에 대한 영향인식 순위, 정치활동 참여 실태,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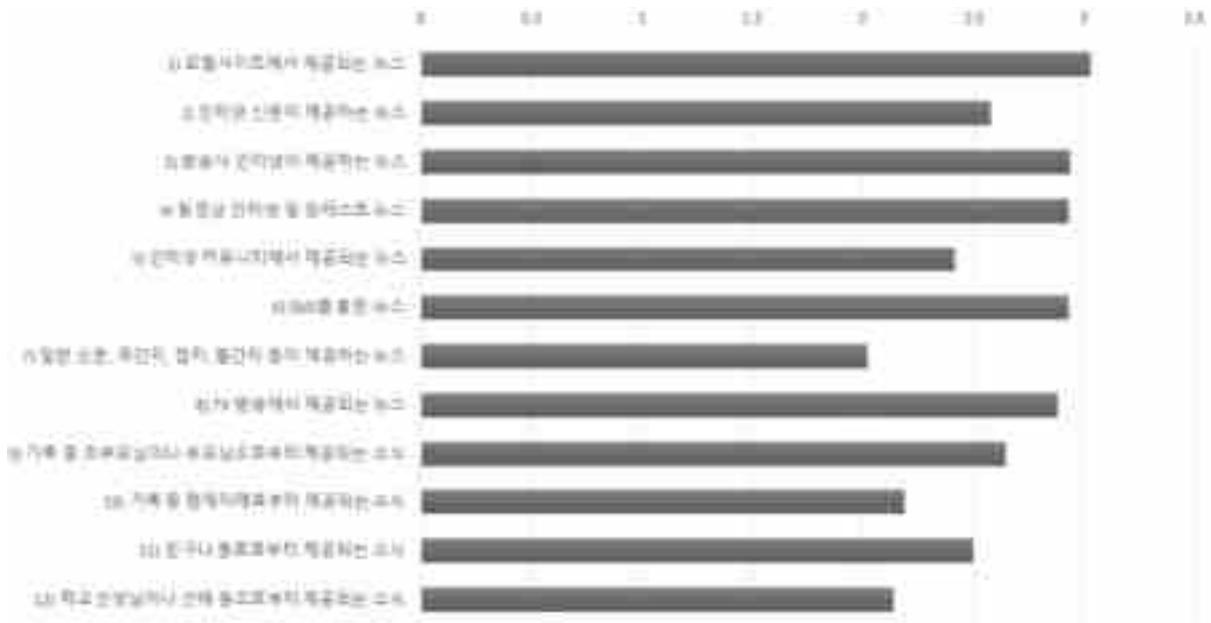
##### 1)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 유형 및 영향 인식

충청남도 청소년이 정치 정보를 수용하는 매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1위는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가 3.03(SD=.77)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가 2.94(SD=.78)로 많았으며, 3위는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가 2.93(SD=.87)과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가 2.93(SD=.92)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반면,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가 2.02(SD=.82)로 가장 낮은 정치 정보 수용 매체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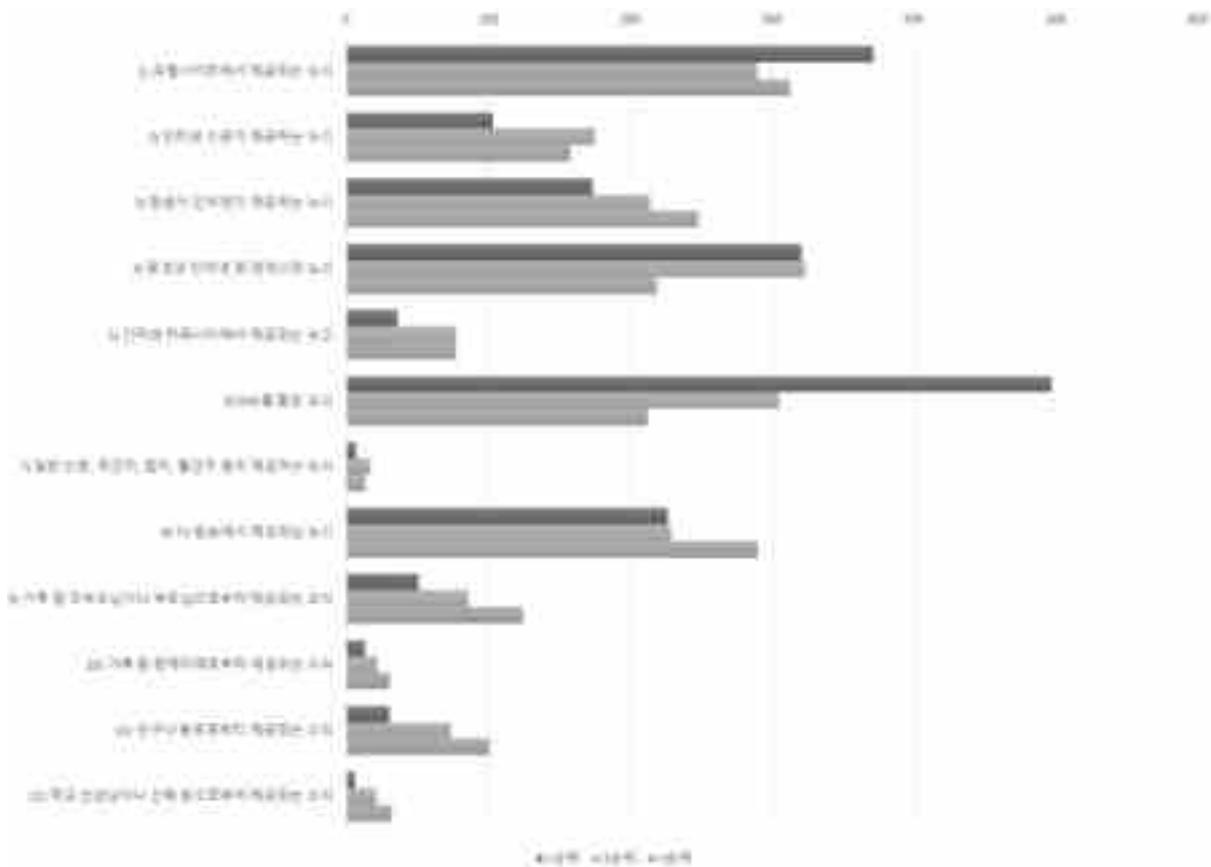
다음으로 정치 정보를 수용하는 매체를 통해 자신이 영향을 받는 순위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1위는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가 497명이고, 2위는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가 323명이었으며, 3위는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가 313명으로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매체 순위로 나타났다.

〈표Ⅳ-19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 경로 및 영향인식 수준〉

구분	평균 및 표준편차			영향 인식 순위		
	N	M	SD	1	2	3
전체	1990	2.60	0.52	1837	1832	1819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1989	3.03	0.77	371	290	313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1986	2.58	0.86	103	175	158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1985	2.94	0.78	174	214	248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1988	2.93	0.87	321	323	219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1985	2.42	0.89	36	77	77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1989	2.93	0.92	497	305	212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1985	2.02	0.82	7	17	13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1982	2.88	0.83	227	229	290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986	2.65	0.85	51	86	125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986	2.19	0.90	13	22	31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989	2.50	0.85	31	73	101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988	2.14	0.87	6	21	32



[그림 IV-13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 경로]



[그림 IV-14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영향 인식 순위]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과 변량분석(AN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여학생(M=2.69, SD=.48)이 남학생(M=2.52, SD=.55)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가  $t=-7.16$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는 2학년(M=2.63, SD=.53)학생이 가장 높고, 3학년(M=2.57, SD=.5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F=2.10$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과 상관없이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상수준(M=2.64, SD=.65)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2.49, SD=.62)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8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 중하 그리고 중수준의 학생이 중하와 하수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 수준이 중수준 이상이 중수준 이하의 학생들보다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상수준(M=2.71, SD=.48)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2.33, SD=.62)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8.9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과 중상 수준이 가장 높고, 중과 중하수준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하수준의 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학력에 있어 아버지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학졸(2년제, 4년제)와 고등학교졸(M=2.61)이 동일하게 높고, 대학원 이상 졸(M=2.58, SD=.6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02$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과 상관없이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2년제 대학졸(M=2.63, SD=.48)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졸(M=2.62, SD=.5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69$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과 상관없이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졸(M=2.67, SD=.50)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M=2.50, SD=.7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40$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4년제 대학졸을 둔 보호자의 학생이 대학원 이상 졸을 둔 보호자의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수준에 따른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M=2.89, SD=.55)가 가장 높고, 전혀 말하지 않는 부모(M=2.22, SD=.59)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94.32$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 가끔 말하는 부모, 가끔 말하는 부모, 그리고 전혀 말하지 않는 부모를 둔 학생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활동의 참여 수준에 따른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활동하는 부모(M=2.83, SD=.55)가 가장 높고, 활동 안하는 부모(M=2.57, SD=.51)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1.77$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당히 활동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가장 높고, 가끔 활동하는 부모를 둔 학생, 그리고 활동안하는 부모를 둔 학생 순으로 정치 정보 수용 매체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20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정보 수용 매체 접촉 수준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90	2.60	0.52			
성별	남	1003	2.52	0.55	-7.16**	여>남	
	여	976	2.69	0.48			
학년	1학년	675	2.61	0.53	2.10	-	
	2학년	675	2.63	0.53			
	3학년	631	2.57	0.51			
학업성적수준	상	202	2.64	0.65	3.84**	상, 중상, 중>중하, 하	
	중상	436	2.66	0.48			
	중	819	2.61	0.49			
	중하	357	2.55	0.52			
	하	152	2.49	0.62			
경제수준	상	109	2.62	0.74	8.99**	상, 중상, > 중, 중하>하	
	중상	390	2.71	0.48			
	중	1236	2.58	0.49			
	중하	171	2.54	0.57			
	하	52	2.33	0.73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72	2.58	0.63	.02	-
		4년제 대학졸	788	2.61	0.51		
		2년제 대학졸	104	2.61	0.45		
		고등학교졸	752	2.61	0.51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6	2.51	0.73	1.69	-
		4년제 대학졸	771	2.62	0.51		
		2년제 대학졸	125	2.63	0.48		
		고등학교졸	796	2.62	0.50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71	2.50	0.74	3.40*	4년대졸>대학원
		4년제 대학졸	354	2.67	0.50		
		2년제 대학졸	35	2.57	0.42		
		고등학교졸	303	2.56	0.56		
부모님 (보호자) 정치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4	2.89	0.55	94.04**	매우 자주>자주>가끔>안함
		자주함	516	2.73	0.45		
		가끔함	950	2.55	0.47		
		전혀 안함	238	2.22	0.59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2.73	0.73	11.77**	상당히> 가끔>활동안함
		상당히 활동	89	2.83	0.55		
		가끔 활동	294	2.70	0.54		
		활동 안함	1535	2.57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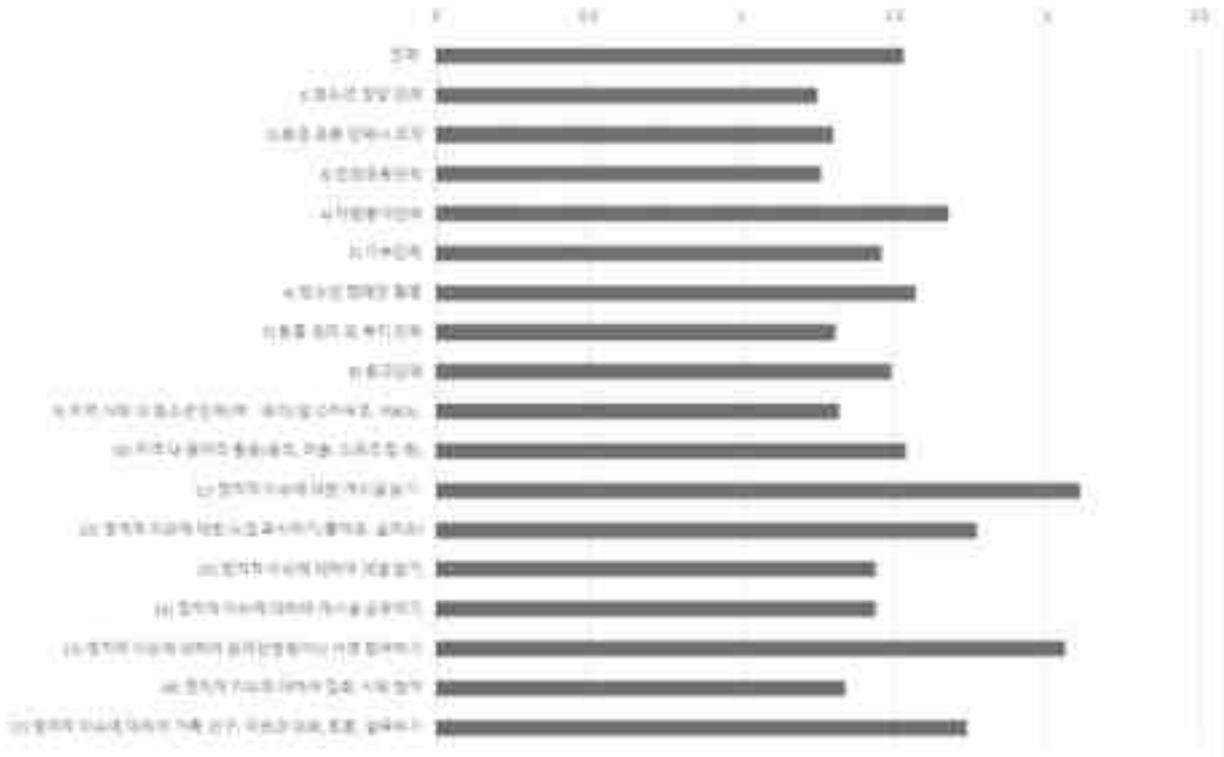
\*:  $p < .05$ , \*\*:  $p < .01$

## 2)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활동 참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참여 수준은 1.53(SD=.50)이었으며, ‘1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기사글 읽기’가 2.11(SD=1.03)로 가장 참여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15)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청원이나 서명 참여하기’가 2.06(SD=1.07), ‘12) 정치적 이슈에 대한 느낌 표시하기(좋아요, 싫어요)’가 1.77(SD=.9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 청소년 정당 단체’가 1.25(SD=.58)로 가장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 인권운동단체’가 1.26(SD=.59), ‘2)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가 1.30(SD=.6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Ⅳ-21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

구분	N	M	SD
전체	1976	1.53	0.50
1) 청소년 정당 단체	1973	1.25	0.58
2)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1972	1.30	0.61
3) 인권운동단체	1971	1.26	0.59
4) 자원봉사단체	1972	1.68	0.85
5) 기부단체	1967	1.46	0.73
6) 청소년 캠페인 활동	1968	1.57	0.79
7) 동물 권리 및 복지 단체	1971	1.31	0.64
8) 종교단체	1969	1.49	0.89
9)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단체(예 : 보이/걸 스카우트, YMCA)	1967	1.32	0.67
10) 지역 내 동아리 활동(음악, 미술, 스포츠 팀 등)	1961	1.54	0.86
1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기사글 읽기	1970	2.11	1.03
12) 정치적 이슈에 대한 느낌 표시하기(좋아요, 싫어요)	1973	1.77	0.97
13)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댓글 달기	1972	1.44	0.77
14)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기사글 공유하기	1965	1.44	0.78
15)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청원이나 서명 참여하기	1972	2.06	1.07
16)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집회, 시위 참여	1970	1.34	0.67
17)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 토론, 설득하기	1973	1.74	0.93



[그림 IV-15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과 변량분석(AN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여학생(M=1.56, SD=.47)이 남학생(M=1.51, SD=.53)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가  $t=-2.65$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치 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는 2학년(M=1.58, SD=.50)학생이 가장 높고, 3학년(M=1.49, SD=.4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F=5.8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상수준(M=1.71, SD=.64)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1.46, SD=.53)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0.83$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과 중상 수준의 학생이 중, 중하, 그리고 하수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 수준이 중상 이상 수준인 학생들이 보다 정치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상수준(M=1.75, SD=.69)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1.46, SD=.55)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5.97$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과 중상 수준이 높고, 중, 중하, 그리고 하수준의 학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중상 이상인 학생들의 정치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학력에 있어 아버지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졸(M=1.64, SD=.60)으로 가장 높고, 2년제 대학졸(M=1.49, SD=.4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86$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 졸업이 가장 높고, 4년제 대학졸, 그리고 2년제 대학졸과 고등학교졸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정치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졸(M=1.68, SD=.66)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졸(M=1.50, SD=.4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4.8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졸이 가장 높고, 대학졸(2년제, 4년제), 그리고 고등학교졸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졸(M=1.68, SD=.73)이 가장 높고, 2년제 대학졸(M=1.43, SD=.4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6.77$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졸과 4년제 대학졸을 둔 보호자의 학생이 2년제 대학졸과 고등학교졸을 둔 보호자의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수준에 따른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M=1.80, SD=.54)가 가장 높고, 전혀 말하지 않는 부모(M=1.29, SD=.39)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61.6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 가끔 말하는 부모, 가끔 말하는 부모, 그리고 전혀 말하지 않는 부모를 둔 학생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M=1.97, SD=.75)가 가장 높고, 활동 안하는 부모(M=1.47, SD=.45)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44.05$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와 상당히 활동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가장 높고, 가끔 활동하는 부모를 둔 학생, 그리고 활동 안하는 부모를 둔 학생 순으로 정치참여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활동 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정치참여활동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2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활동 참여 실태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76	1.53	0.50			
성별	남	996	1.51	0.53	-2.65	여>남	
	여	970	1.56	0.47			
학년	1학년	670	1.53	0.54	5.80	2>3	
	2학년	672	1.58	0.50			
	3학년	626	1.49	0.45			
학업성적수준	상	200	1.71	0.64	10.83**	상, 중상> 중, 중하, 하	
	중상	434	1.60	0.48			
	중	816	1.50	0.46			
	중하	355	1.48	0.47			
	하	149	1.46	0.53			
경제수준	상	109	1.75	0.69	15.97**	상, 중상, > 중, 중하, 하	
	중상	388	1.66	0.53			
	중	1226	1.48	0.44			
	중하	170	1.50	0.53			
	하	52	1.46	0.55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69	1.64	0.60	3.86**	대학원> 4년대졸> 2년대졸, 고졸
		4년제 대학졸	787	1.56	0.51		
		2년제 대학졸	104	1.49	0.44		
		고등학교졸	747	1.51	0.47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5	1.68	0.66	4.84**	대학원> 4년대졸, 2년대졸> 고졸
		4년제 대학졸	765	1.56	0.50		
		2년제 대학졸	124	1.56	0.53		
		고등학교졸	794	1.50	0.46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69	1.68	0.73	6.77**	대학원, 4년대졸>2년대 졸, 고졸
		4년제 대학졸	352	1.59	0.49		
		2년제 대학졸	35	1.43	0.46		
		고등학교졸	301	1.45	0.45		
부모님 (보호자) 정치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2	1.80	0.54	61.60**	매우 자주>자주>가 끔>안함
		자주함	516	1.64	0.53		
		가끔함	941	1.46	0.44		
		전혀 안함	237	1.29	0.39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1	1.97	0.75	44.05**	매우 열심히, 상당히> 가끔>활동안함
		상당히 활동	88	1.87	0.64		
		가끔 활동	293	1.71	0.53		
		활동 안함	1526	1.47	0.45		

\*:  $p<.05$ , \*\*:  $p<.01$

### 3) 청소년의 정치 활동 중요성 인식 실태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식 수준은 3.00(SD=2.23)이었으며, ‘1) 모든 선거 참여’가 3.29(SD=.78)로 중요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3) 가족의 경제적인 안녕을 보장하기’가 3.28(SD=.76)로 높았으며, ‘12) 항상 법을 준수하기’가 3.27(SD=.77), 그리고 ‘15) 자신의 의견을 가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가 3.27(SD=.76)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5)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가 2.10(SD=2.34)로 중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 정당단체 가입’가 2.19(SD=.75), ‘6) 정치 토론 참여’가 2.47(SD=.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Ⅳ-23 청소년의 정치 활동 중요성 인식 실태〉

구분	N	M	SD
전체	1977	3.00	2.23
1) 모든 선거 참여	1975	3.29	0.78
2) 정당단체 가입	1971	2.19	0.75
3) 역사 학습	1971	3.15	0.83
4)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 주시	1971	3.01	0.79
5)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1973	2.10	2.34
6) 정치 토론 참여	1967	2.47	0.86
7)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1972	3.12	0.86
8) 지역 사회에 유익한 활동 참여	1968	2.89	0.81
9) 인권증진운동 참여	1973	2.96	0.84
10) 환경보호운동 참여	1973	3.04	0.83
11) 열심히 일하기	1972	3.22	0.78
12) 항상 법을 준수하기	1971	3.27	0.77
13) 가족의 경제적인 안녕을 보장하기	1971	3.28	0.76
14)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예 : 물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1972	3.18	0.78
15) 자신의 의견을 가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1972	3.27	0.76
16)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지원하기	1972	3.10	0.78
17) 다른 지역 지원 활동 참여하기	1973	2.75	0.86



학력에 상관없이 동일 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졸(M=2.67, SD=.50)이 가장 높고, 2년제 대학졸(M=2.59, SD=.5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8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졸과 4년제 대학졸을 둔 보호자의 학생이 2년제 대학졸과 고등학교졸을 둔 보호자의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수준에 따른 정치활동 중요성 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M=3.19, SD=.50)가 가장 높고, 전혀 말하지 않는 부모(M=2.74, SD=.71)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0.9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 가끔 말하는 부모, 가끔 말하지 않는 부모, 그리고 전혀 말하지 않는 부모를 둔 학생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부모의 청소년일수록 정치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정치활동 중요성 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M=3.15, SD=.64)가 가장 높고, 활동 안하는 부모(M=2.94, SD=.56)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34$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 상당히 활동하는 부모, 그리고 가끔 활동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활동 안하는 부모를 둔 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활동 중요성 실태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77	3.00	2.23			
성별	남	995	2.88	0.62	-6.37**	여>남	
	여	971	3.04	0.50			
학년	1학년	669	2.97	0.58	5.80**	1, 2>3	
	2학년	672	2.99	0.56			
	3학년	627	2.91	0.57			
학업성적수준	상	199	3.00	0.70	13.18**	상, 중상> 중, 중하, 하	
	중상	434	3.05	0.46			
	중	816	2.98	0.52			
	중하	356	2.88	0.59			
	하	149	2.70	0.75			
경제수준	상	109	2.87	0.83	6.33**	중상 > 상, 중, 중하 > 하	
	중상	388	3.04	0.56			
	중	1227	2.95	0.52			
	중하	170	2.92	0.60			
	하	51	2.67	0.83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68	2.97	0.73	2.12	-
		4년제 대학졸	787	2.99	0.52		
		2년제 대학졸	104	2.86	0.51		
		고등학교졸	747	2.94	0.59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4	2.93	0.77	.05	-
		4년제 대학졸	765	2.98	0.56		
		2년제 대학졸	124	2.92	0.49		
		고등학교졸	795	2.95	0.57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115	2.65	0.57	3.84**	대학원, 4년대졸> 2년대졸, 고졸
		4년제 대학졸	765	2.67	0.50		
		2년제 대학졸	124	2.59	0.54		
		고등학교졸	794	2.63	0.50		
부모님 (보호자) 정치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3.19	0.50	30.94**	매우 자주>자주>가 끔>안함
		자주함	516	3.01	0.53		
		가끔함	941	2.92	0.54		
		전혀 안함	236	2.74	0.71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1	3.15	0.64	3.34*	매우 열심히, 상당히, 가끔>활동 안함
		상당히 활동	88	3.02	0.62		
		가끔 활동	293	3.02	0.57		
		활동 안함	1526	2.94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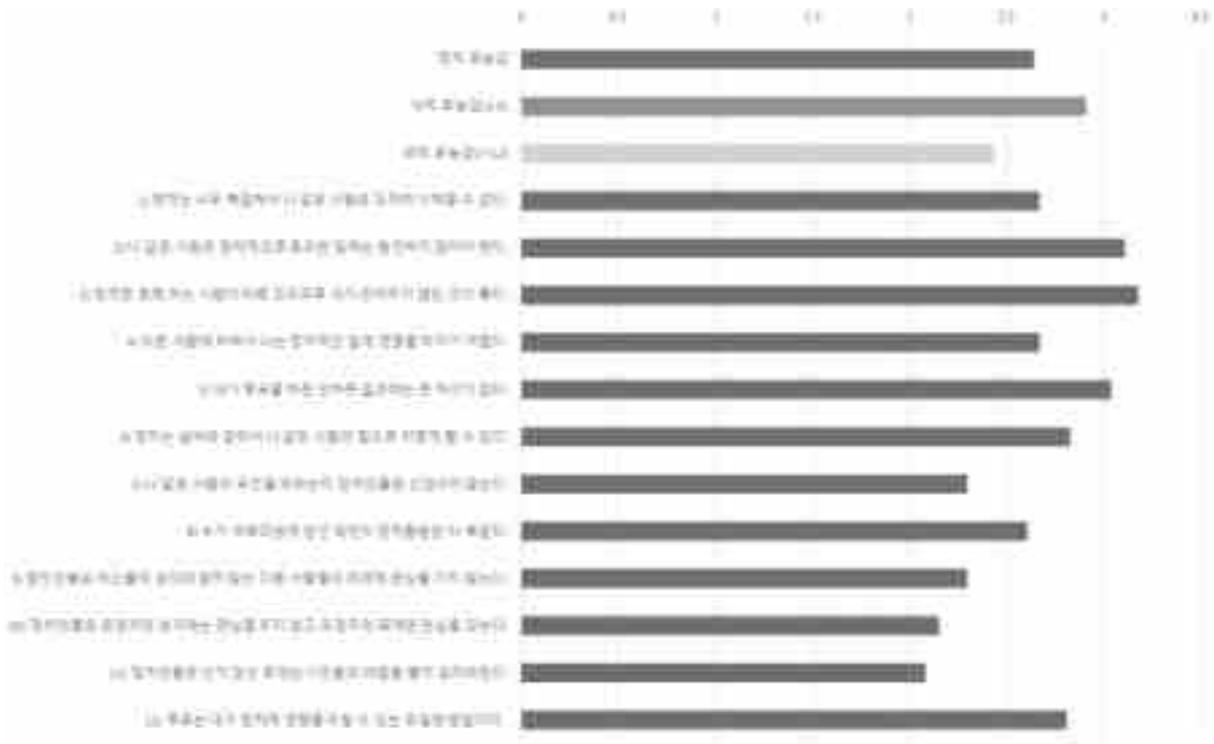
\*:  $p<.05$ , \*\*:  $p<.01$

## 5.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에 대한 인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2.64(SD=.51)이었으며, 내적 효능감은 2.91(SD=.65)이고 외적효능감은 2.43(SD=.56)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3) 정치란 원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3.18(SD=.77)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1) 정치인들은 선거 당선 후에는 시민들의 바람을 빨리 잊어버린다.’가 2.08(SD=.8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5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

구분	N	M	SD
정치 효능감	1975	2.64	0.51
내적 효능감(1-6)	1975	2.91	0.65
외적 효능감(7-12)	1974	2.43	0.56
1)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975	2.67	0.80
2) 나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	1973	3.11	0.77
3) 정치란 원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73	3.18	0.77
4)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정치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1971	2.67	0.89
5) 내가 투표를 하든 안하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1971	3.04	0.87
6) 정치는 날씨와 같아서 나 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1974	2.83	0.91
7)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치인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1972	2.30	0.95
8)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 되던지 정치활동은 다 똑같다.	1972	2.61	0.96
9)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	1972	2.30	0.89
10)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생각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유권자의 표에만 관심을 갖는다.	1974	2.15	0.89
11) 정치인들은 선거 당선 후에는 시민들의 바람을 빨리 잊어버린다.	1974	2.08	0.86
12) 투표는 내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973	2.81	0.95



[그림 IV-17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

충청남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 효능감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과 변량분석 (AN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여학생(M=2.68, SD=.50)이 남학생(M=2.62, SD=.52)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가  $t=-2.65$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는 1학년(M=2.69, SD=.50)학생이 가장 높고, 3학년(M=2.60, SD=.5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F=4.9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상수준(M=2.72, SD=.54)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2.47, SD=.55)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7.6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 중상, 그리고 중수준의 학생이 가장 높고, 중하 수준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하수준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상수준(M=2.70, SD=.53)의 학생이 가장 높았고, 하수준(M=2.49, SD=.60)의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3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 중상, 그리고 중수준의 학생이 중하와 하수준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중수준 이상의 학생의 정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학력에 있어 아버지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원졸(M=2.69, SD=.56)이 가장 높고, 2년제 대학졸(M=2.61, SD=.4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05$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졸(M=2.67, SD=.50)이 가장 높고, 2년제 대학졸(M=2.59, SD=.5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12$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자의 학력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 학력별 차이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졸(M=2.68, SD=.51)이 가장 높고, 2년제 대학졸(M=2.51, SD=.5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9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졸과 4년제 대학졸을 둔 보호자의 학생이 2년제 대학졸과 고등학교졸을 둔 보호자의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님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수준에 따른 정치 효능감에 있어서는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M=2.79, SD=.55)가 가장 높고, 전혀 말하지 않는 부모(M=2.57, SD=.51)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11.75$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자주 말하는 부모, 가끔 말하는 부모, 그리고 가끔 말하는 부모와 전혀 말하지 않는 부모를 둔 학생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부모의 청소년일수록 정치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에 있어서는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M=2.78, SD=.62)가 가장 높고, 활동 안하는 부모(M=2.63, SD=.50)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21$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부모, 상당히 활동하는 부모, 그리고 가끔 활동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활동 안하는 부모를 둔 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6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 효능감의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값		
전체		1975	2.64	0.51			
성별	남	996	2.62	0.52	-2.65**	여>남	
	여	970	2.68	0.50			
학년	1학년	670	2.69	0.50	4.99**	1, 2>3	
	2학년	671	2.64	0.50			
	3학년	627	2.60	0.53			
학업성적수준	상	200	2.72	0.54	7.69**	상, 중상, 중 > 중하 > 하	
	중상	434	2.70	0.48			
	중	816	2.65	0.49			
	중하	355	2.59	0.54			
	하	149	2.47	0.55			
경제수준	상	109	2.64	0.63	3.39**	상, 중상, 중 > 중하, 하	
	중상	387	2.70	0.53			
	중	1227	2.64	0.48			
	중하	170	2.57	0.54			
	하	52	2.49	0.60			
부모님 (보호자) 학력	아버지	대학원 이상 졸	168	2.69	0.56	1.05	-
		4년제 대학졸	787	2.66	0.50		
		2년제 대학졸	104	2.61	0.49		
		고등학교졸	747	2.63	0.51		
	어머니	대학원 이상 졸	115	2.65	0.57	1.12	-
		4년제 대학졸	765	2.67	0.50		
		2년제 대학졸	124	2.59	0.54		
		고등학교졸	794	2.63	0.50		
	보호자	대학원 이상 졸	69	2.64	0.58	1.99	-
		4년제 대학졸	352	2.68	0.51		
		2년제 대학졸	35	2.51	0.55		
		고등학교졸	301	2.60	0.52		
부모님 (보호자) 정치참여	정치 관심	매우 자주 함	253	2.79	0.55	11.75**	매우 자주>자주>가끔, 안함
		자주함	515	2.69	0.51		
		가끔함	941	2.61	0.48		
		전혀 안함	237	2.57	0.51		
	정치 활동	매우 열심히 활동	32	2.78	0.62	3.21*	매우 열심히, 상당히, 가끔>활동안함
		상당히 활동	88	2.68	0.50		
		가끔 활동	293	2.72	0.51		
		활동 안함	1525	2.63	0.50		

\*:  $p < .05$ , \*\*:  $p < .01$

## 6.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

### 1) 충청남도 지역에 따른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실태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지역별로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정치관심, 선거지식, 개인적 정치활동, 정치정보 수용, 정치활동 참여, 정치활동 참여, 그리고 정치효능감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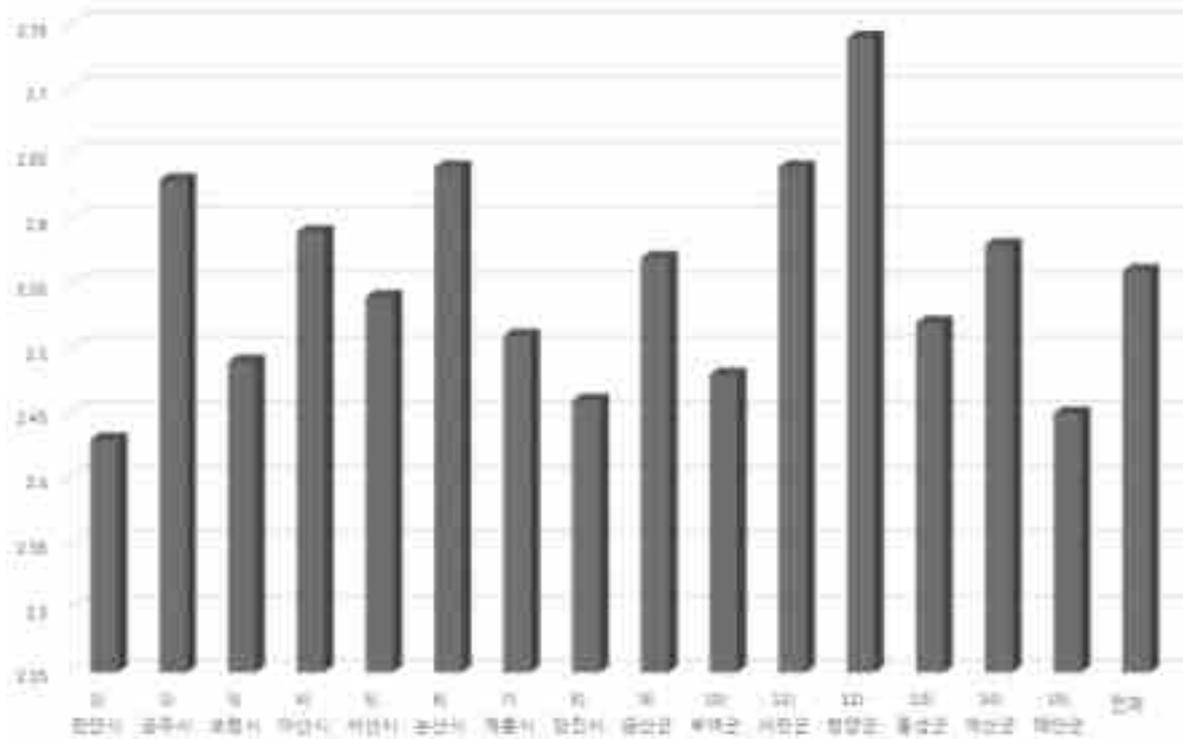
#### (1) 국가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국가신뢰에 대한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3.51$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을 한 결과, 청양군( $M=2.74$ ,  $SD=.54$ ), 서천군( $M=2.64$ ,  $SD=.46$ ), 논산시( $M=2.64$ ,  $SD=.49$ ), 그리고 공주시( $M=2.63$ ,  $SD=.56$ ) 등이 높고, 천안시( $M=2.43$ ,  $SD=.58$ ), 태안군( $M=2.45$ ,  $SD=.50$ ), 그리고 당진시( $M=2.46$ ,  $SD=.46$ )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7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71	2.43	0.58	3.51** 12, 6, 11, 2 >4, 5 >1, 3, 8, 15
2) 공주시	152	2.63	0.56	
3) 보령시	75	2.49	0.64	
4) 아산시	101	2.59	0.51	
5) 서산시	83	2.54	0.45	
6) 논산시	85	2.64	0.49	
7) 계룡시	92	2.51	0.59	
8) 당진시	97	2.46	0.46	
9) 금산군	126	2.57	0.53	
10) 부여군	160	2.48	0.61	
11) 서천군	155	2.64	0.46	
12) 청양군	146	2.74	0.54	
13) 홍성군	189	2.52	0.48	
14) 예산군	264	2.58	0.53	
15) 태안군	81	2.45	0.50	
전체	1977	2.56	0.54	

\*:  $p<.05$ , \*\*:  $p<.01$



[그림 IV-18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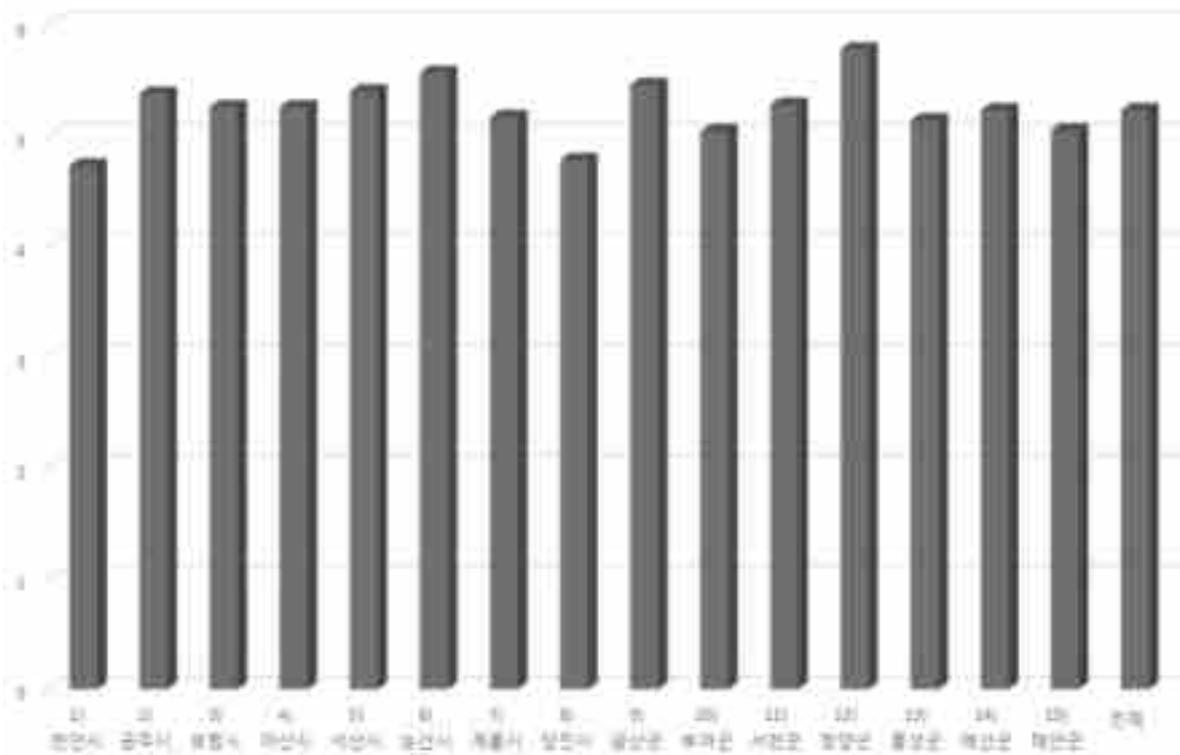
(2) 국가권력기관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대한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2.3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을 한 결과, 청양군( $M=5.78$ ,  $SD=1.91$ )과 논산시( $M=5.57$ ,  $SD=1.87$ ) 등이 높고, 천안시( $M=4.73$ ,  $SD=2.20$ ), 당진시( $M=4.78$ ,  $SD=1.96$ )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8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70	4.73	2.20	2.34** 12, 6, 9, 2 > 3, 4, 11, 14 > 1, 8, 10, 15
2) 공주시	152	5.38	2.08	
3) 보령시	75	5.26	2.12	
4) 아산시	101	5.26	2.06	
5) 서산시	83	5.40	1.72	
6) 논산시	85	5.57	1.87	
7) 계룡시	92	5.17	2.35	
8) 당진시	97	4.78	1.96	
9) 금산군	126	5.46	1.96	
10) 부여군	160	5.04	2.25	
11) 서천군	155	5.28	1.99	
12) 청양군	146	5.78	1.91	
13) 홍성군	189	5.14	2.02	
14) 예산군	263	5.23	2.10	
15) 태안군	81	5.05	2.14	
전체	1975	5.23	2.07	

\*:  $p < .05$ , \*\*:  $p < .01$



[그림 IV-19 충청남도 지역별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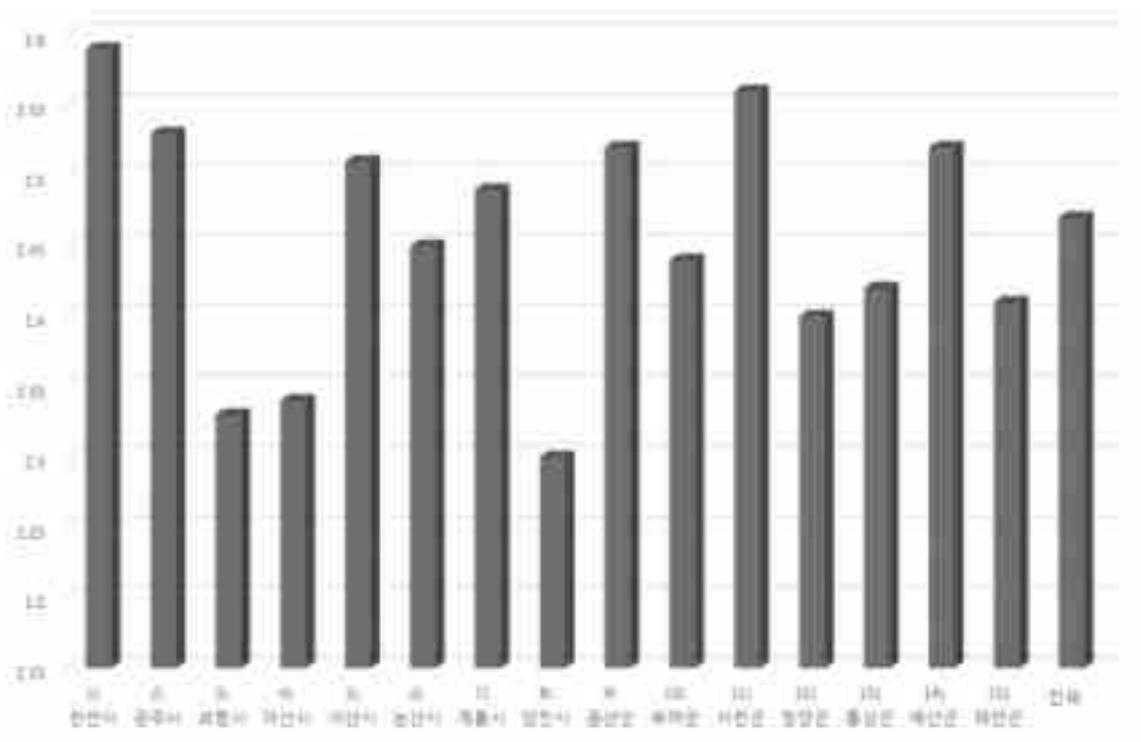
(3)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관심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2.1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을 한 결과, 천안시( $M=2.59$ ,  $SD=.66$ )와 서천군( $M=2.56$ ,  $SD=.59$ ) 등이 높고, 당진시( $M=2.30$ ,  $SD=.61$ ), 보령시( $M=2.33$ ,  $SD=.78$ ), 그리고 아산시( $M=2.34$ ,  $SD=.58$ )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29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70	2.59	0.66	2.19** 1, 11, 2, 9, 14 > 6, 10, 12>8, 3, 4
2) 공주시	152	2.53	0.63	
3) 보령시	75	2.33	0.78	
4) 아산시	101	2.34	0.58	
5) 서산시	83	2.51	0.65	
6) 논산시	85	2.45	0.64	
7) 계룡시	93	2.49	0.70	
8) 당진시	98	2.30	0.61	
9) 금산군	126	2.52	0.62	
10) 부여군	160	2.44	0.73	
11) 서천군	155	2.56	0.59	
12) 청양군	146	2.40	0.60	
13) 홍성군	188	2.42	0.66	
14) 예산군	263	2.52	0.67	
15) 태안군	80	2.41	0.64	
전체	1975	2.47	0.66	

\*:  $p<.05$ , \*\*:  $p<.01$



[그림Ⅳ-20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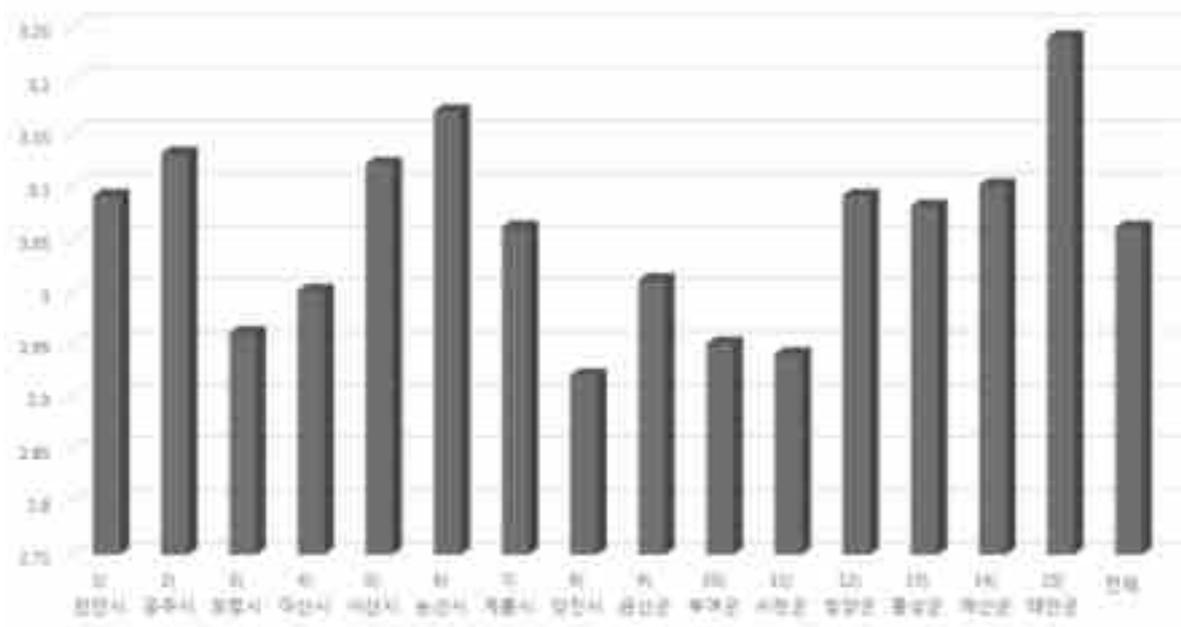
(4) 선거지식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선거지식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1.95$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을 한 결과, 태안군( $M=3.24$ ,  $SD=.71$ )과 논산시( $M=3.17$ ,  $SD=.76$ ) 등이 높고, 당진시( $M=2.92$ ,  $SD=.56$ )와 서천군( $M=2.94$ ,  $SD=.68$ )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0 충청남도 지역별 선거지식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70	3.09	0.63	1.95*      15, 6, 2 > 8, 11
2) 공주시	152	3.13	0.62	
3) 보령시	75	2.96	0.86	
4) 아산시	101	3.00	0.58	
5) 서산시	83	3.12	0.72	
6) 논산시	85	3.17	0.76	
7) 계룡시	92	3.06	0.70	
8) 당진시	98	2.92	0.56	
9) 금산군	126	3.01	0.71	
10) 부여군	160	2.95	0.74	
11) 서천군	155	2.94	0.68	
12) 청양군	146	3.09	0.68	
13) 홍성군	188	3.08	0.67	
14) 예산군	261	3.10	0.68	
15) 태안군	80	3.24	0.71	
전체	1972	3.06	0.69	

\*:  $p<.05$ , \*\*:  $p<.01$



[그림 IV-21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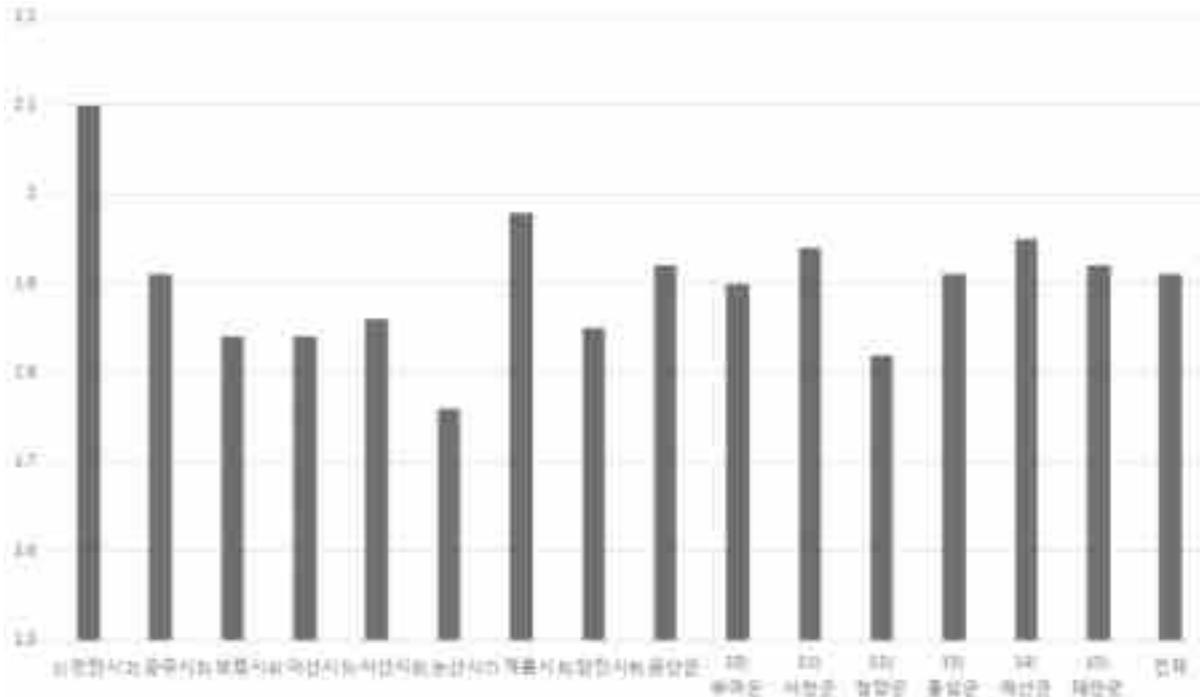
(5) 정치활동에 대한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활동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2.4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을 한 결과, 천안시( $M=2.10$ ,  $SD=.67$ )와 계룡시( $M=1.98$ ,  $SD=.68$ ) 등이 높고, 논산시( $M=1.76$ ,  $SD=.52$ )와 청양군( $M=1.82$ ,  $SD=.59$ )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1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70	2.10	0.67	2.40** 1, 7, 14, 11, 15 > 6, 12, 3, 4
2) 공주시	152	1.91	0.56	
3) 보령시	75	1.84	0.69	
4) 아산시	101	1.84	0.52	
5) 서산시	83	1.86	0.55	
6) 논산시	85	1.76	0.52	
7) 계룡시	93	1.98	0.68	
8) 당진시	98	1.85	0.53	
9) 금산군	126	1.92	0.57	
10) 부여군	160	1.90	0.59	
11) 서천군	155	1.94	0.63	
12) 청양군	146	1.82	0.59	
13) 홍성군	188	1.91	0.52	
14) 예산군	262	1.95	0.61	
15) 태안군	81	1.92	0.52	
전체	1975	1.91	0.59	

\*:  $p<.05$ , \*\*:  $p<.01$



[그림 IV-22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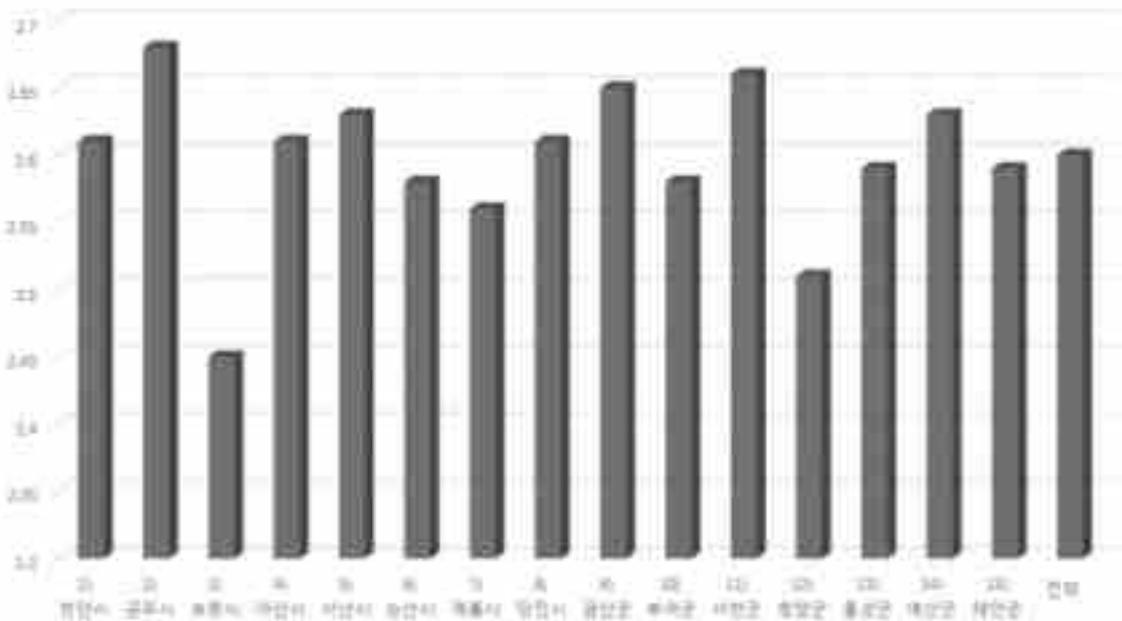
(6)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정보 수용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1.42,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표Ⅳ-32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69	2.61	0.55	1.42 -
2) 공주시	152	2.68	0.54	
3) 보령시	75	2.45	0.62	
4) 아산시	101	2.61	0.42	
5) 서산시	83	2.63	0.46	
6) 논산시	85	2.58	0.57	
7) 계룡시	93	2.56	0.55	
8) 당진시	98	2.61	0.46	
9) 금산군	126	2.65	0.48	
10) 부여군	160	2.58	0.58	
11) 서천군	155	2.66	0.48	
12) 청양군	146	2.51	0.50	
13) 홍성군	188	2.59	0.49	
14) 예산군	264	2.63	0.55	
15) 태안군	81	2.59	0.50	
전체	1976	2.60	0.52	

\*:  $p<.05$ , \*\*:  $p<.01$



[그림Ⅳ-23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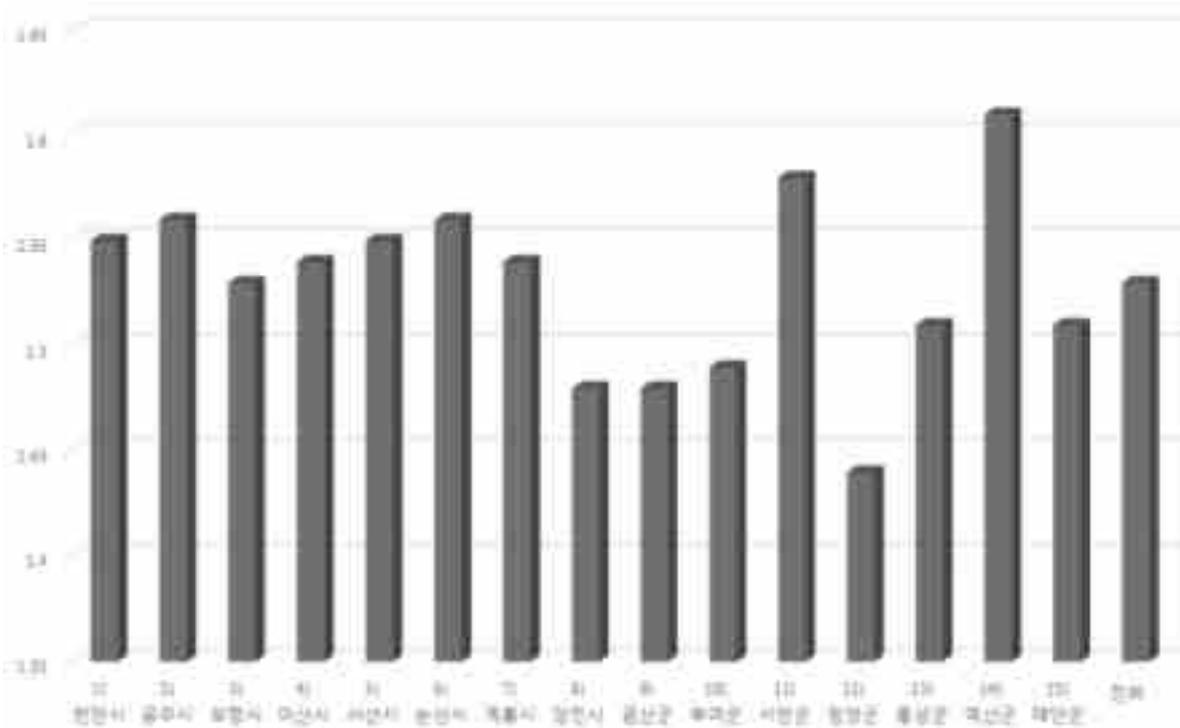
(7) 정치활동 참여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활동 참여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1.32,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치활동 참여수준은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33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69	1.55	0.51	1.312 -
2) 공주시	148	1.56	0.53	
3) 보령시	74	1.53	0.74	
4) 아산시	100	1.54	0.52	
5) 서산시	82	1.55	0.46	
6) 논산시	84	1.56	0.53	
7) 계룡시	92	1.54	0.49	
8) 당진시	98	1.48	0.43	
9) 금산군	125	1.48	0.43	
10) 부여군	160	1.49	0.50	
11) 서천군	155	1.58	0.49	
12) 청양군	143	1.44	0.45	
13) 홍성군	189	1.51	0.43	
14) 예산군	263	1.61	0.53	
15) 태안군	81	1.51	0.46	
전체	1963	1.53	0.50	

\*:  $p<.05$ , \*\*:  $p<.01$



[그림Ⅳ-24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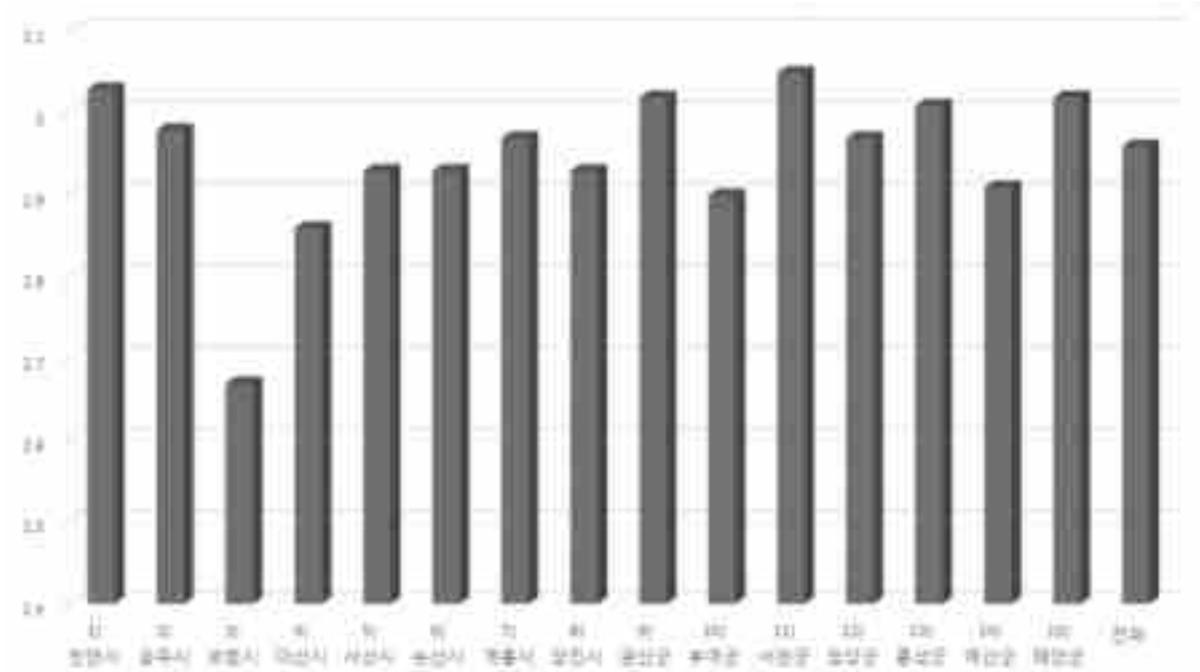
(8)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의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활동 참여 중요도 수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2.62$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을 한 결과, 서천군( $M=3.05$ ,  $SD=.45$ )와 천안시( $M=3.03$ ,  $SD=.51$ ) 등이 높고, 보령시( $M=2.67$ ,  $SD=.80$ )와 아산시( $M=2.86$ ,  $SD=.59$ )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34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69	3.03	0.51	2.62** 11, 1, 9, 15, 13, 2 > 3, 4, 10
2) 공주시	148	2.98	0.60	
3) 보령시	73	2.67	0.80	
4) 아산시	100	2.86	0.59	
5) 서산시	82	2.93	0.44	
6) 논산시	84	2.93	0.58	
7) 계룡시	92	2.97	0.47	
8) 당진시	98	2.93	0.53	
9) 금산군	126	3.02	0.57	
10) 부여군	160	2.90	0.63	
11) 서천군	155	3.05	0.45	
12) 청양군	143	2.97	0.53	
13) 홍성군	189	3.01	0.54	
14) 예산군	263	2.91	0.63	
15) 태안군	81	3.02	0.50	
전체	1963	2.96	0.57	

\*:  $p<.05$ ,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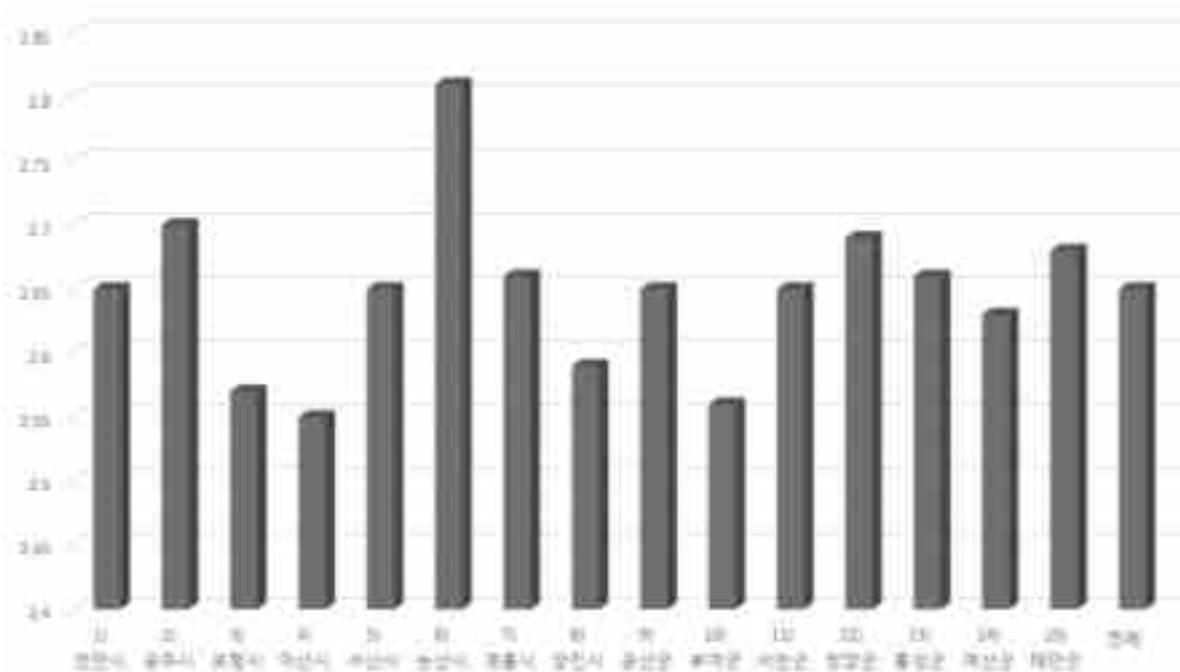
[그림Ⅳ-25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9) 정치효능감에 대한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효능감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F=1.62$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치효능감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35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효능감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	N	M	SD	t/F값
1) 천안시	168	2.65	0.55	1.622 -
2) 공주시	148	2.70	0.52	
3) 보령시	74	2.57	0.55	
4) 아산시	100	2.55	0.40	
5) 서산시	82	2.65	0.50	
6) 논산시	84	2.81	0.55	
7) 계룡시	92	2.66	0.51	
8) 당진시	98	2.59	0.49	
9) 금산군	126	2.65	0.49	
10) 부여군	160	2.56	0.51	
11) 서천군	155	2.65	0.49	
12) 청양군	143	2.69	0.57	
13) 홍성군	189	2.66	0.47	
14) 예산군	263	2.63	0.51	
15) 태안군	81	2.68	0.50	
전체	1963	2.65	0.51	



[그림Ⅳ-26 충청남도 지역별 정치효능감에 대한 차이분석]

## 2)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정치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정치관심, 선거지식, 개인적 정치활동, 정치정보 수용, 정치활동 참여, 정치활동 참여, 그리고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신뢰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F=7.41$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44$ , adj.  $R^2=.038$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국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정보 수용 매체는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145$ ,  $t=4.925$ ,  $p<.01$ )와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 $\beta=.073$ ,  $t=2.765$ ,  $p<.01$ )가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매체가 국가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는 ( $\beta=-.082$ ,  $t=-2.829$ ,  $p<.01$ ) 부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매체가 국가신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36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32	1.056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082	-2.829**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1	-.043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29	1.083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7	.607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73	2.765**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4	.157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08	.263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43	1.543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22	.767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51	-1.739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45	4.925**
$R^2=.044$ , adjusted $R^2=.038$ , $F=7.41$ **		

\*:  $p<.05$ , \*\*:  $p<.01$

### (2)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F=4.04$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24$ , adj.  $R^2=.018$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정보 수용 매체는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122, t=4.089, p<.01$ )가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매체가 국가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는 ( $\beta=-.077, t=-2.638, p<.01$ ) 부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매체가 국가신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37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권력기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58	1.869
<b>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b>	<b>-.077</b>	<b>-2.638**</b>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033	.949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05	-.185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04	.124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04	-.152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8	-.286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3	.417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47	1.660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06	-.212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15	-.496
<b>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b>	<b>.122</b>	<b>4.089**</b>

$R^2=.024, \text{ adjusted } R^2=.018, F=4.004**$

\*:  $p<.05$ , \*\*:  $p<.01$

### (3)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관심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F=69.617,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300, \text{ adj. } R^2=.296$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치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정보 수용 매체는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beta=.217, t=8.745, p<.01$ )가 정적영향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 $\beta=.138, t=6.048, p<.01$ ),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 $\beta=.114, t=3.916, p<.01$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 $\beta=.095, t=3.644, p<.01$ ),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085, t=3.387, p<.01$ ),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082, t=3.428, p<.01$ ), 그리고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 $\beta=.086, t=3.186, p<.01$ )가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매체가 정치관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는 ( $\beta=-.080, t=-3.539, p<.01$ ) 부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매체가 정치관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38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관심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95	3.644**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217	8.745**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114	3.916**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06	.260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38	1.568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80	-3.539**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138	6.048**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86	3.186**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82	3.428**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13	.527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85	3.387**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9	-1.541
$R^2=.300$ , adjusted $R^2=.296$ , $F=69.617^{**}$		

\*:  $p < .05$ , \*\*:  $p < .01$

#### (4)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선거지식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선거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F=23.505$ ,  $p < .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127$ , adj.  $R^2=.121$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선거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정보 수용 매체는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 $\beta=.119$ ,  $t=3.643$ ,  $p < .01$ ),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beta=.104$ ,  $t=3.745$ ,  $p < .01$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 $\beta=.097$ ,  $t=3.316$ ,  $p < .01$ ),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 $\beta=.086$ ,  $t=2.830$ ,  $p < .01$ ), 그리고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076$ ,  $t=2.710$ ,  $p < .01$ )가 정적영향관계가 나타나 해당매체가 선거지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087$ ,  $t=-3.078$ ,  $p < .01$ )이 부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매체가 선거지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39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선거지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97	3.316**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104	3.745**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119	3.643**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21	.790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31	-1.129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31	1.241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3	-.114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86	2.830**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0	1.138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16	-.578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76	2.710**
12) 학교 선생님이거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87	-3.078**
$R^2=.127$ , adjusted $R^2=.121$ , $F=23.505^{**}$		

\*:  $p < .05$ , \*\*:  $p < .01$ 

## (5)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F=98.639$ ,  $p < .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378$ , adj.  $R^2=.374$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치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정보 수용 매체는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는 ( $\beta=.165$ ,  $t=7.034$ ,  $p < .01$ ),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 $\beta=.141$ ,  $t=6.546$ ,  $p < .01$ ),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140$ ,  $t=5.905$ ,  $p < .01$ ),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 $\beta=.139$ ,  $t=5.049$ ,  $p < .01$ ),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101$ ,  $t=4.507$ ,  $p < .01$ ),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 $\beta=.085$ ,  $t=3.443$ ,  $p < .01$ ),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 $\beta=.063$ ,  $t=2.473$ ,  $p < .01$ ), 그리고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055$ ,  $t=2.346$ ,  $p < .05$ )가 정적영향 관계가 나타나 해당매체가 정치활동 수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40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개인 정치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85	3.443**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165	7.034**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139	5.049**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15	.685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24	1.059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04	-.171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141	6.546**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63	2.473*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01	4.507**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55	2.346*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140	5.905**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25	1.048
$R^2=.378$ , adjusted $R^2=.374$ , $F=98.639^{**}$		

\*:  $p < .05$ , \*\*:  $p < .01$

(6)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F=38.438$ ,  $p < .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193$ , adj.  $R^2=.188$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정보 수용 매체는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 $\beta=.104$ ,  $t=4.236$ ,  $p < .01$ ),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는 ( $\beta=.088$ ,  $t=3.284$ ,  $p < .01$ ),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085$ ,  $t=3.115$ ,  $p < .01$ ),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076$ ,  $t=2.966$ ,  $p < .01$ ),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 $\beta=.071$ ,  $t=2.912$ ,  $p < .01$ ),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 $\beta=.086$ ,  $t=2.743$ ,  $p < .01$ ),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 $\beta=.060$ ,  $t=2.299$ ,  $p < .05$ ), 그리고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 $\beta=.056$ ,  $t=2.098$ ,  $p < .05$ )가 정적영향관계가 나타나 해당매체가 정치참여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41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33	1.168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088	3.284**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086	2.743**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31	1.245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60	2.299*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71	2.912**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104	4.236**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32	1.106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76	2.966**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56	2.098*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85	3.115**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21	-.769
$R^2=.193$ , adjusted $R^2=.188$ , $F=38.438^{**}$		

\*:  $p<.05$ , \*\*:  $p<.01$ 

## (7)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F=1.987$ ,  $p>.05$ 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12$ , adj.  $R^2=.006$ 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에 있어 정치정보 수용 매체는 영향관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42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활동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6	-.515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037	1.260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010	.295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35	1.254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6	-.562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07	.266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038	-1.393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7	.519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44	1.559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1	1.041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2	1.059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07	-.246
$R^2=.012$ , adjusted $R^2=.006$ , $F=1.987$		

\*:  $p<.05$ , \*\*:  $p<.01$

(8)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F=8.443$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0$ ,  $adj. R^2=.044$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정보 수용 매체는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beta=.122$ ,  $t=4.192$ ,  $p<.01$ )와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 $\beta=.080$ ,  $t=2.542$ ,  $p<.01$ )가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매체가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43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t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0	.331
<b>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b>	<b>.122</b>	<b>4.192**</b>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2	-.060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019	-.698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011	.391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002	-.078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005	.179
<b>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b>	<b>.080</b>	<b>2.542**</b>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9	1.393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48	1.624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46	1.547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037	-1.265

$R^2=.050$ , adjusted  $R^2=.044$ ,  $F=8.443**$

\*:  $p<.05$ , \*\*:  $p<.01$

### 3) 청소년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국가기관신뢰, 국가권력기관신뢰, 정치관심 수준, 선거지식 수준, 정치활동 수준, 정치성향 수준, 정치정보 매체별 수용 수준, 정치활동 참여수준, 정치성향 수준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청소년의 정치성향 유형 및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정치성향 유형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성향 유형(보수, 중도, 진보)에 따른 정치참여인식에 대한 차이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 신뢰에 있어서는  $F=3.69$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 의하면, 중도 성향의 청소년이 진보 성향의 청소년보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있어서는  $F=5.18$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 의하면, 중도 성향의 청소년이 진보와 보수 성향의 청소년보다 국가권력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관심 수준에 있어서는  $F=6.0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 의하면, 진보와 보수 성향의 청소년이 중도 성향의 청소년보다 정치관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지식 수준에 있어서는  $F=7.1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 의하면, 진보 성향의 청소년이 중도와 보수 성향의 청소년보다 선거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 수준에 있어서는  $F=9.61$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 의하면, 진보와 보수 성향의 청소년이 중도 성향의 청소년보다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 수준에 있어서는  $F=33.48$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 의하면, 진보 성향의 청소년이 가장 높고, 보수 성향의 청소년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중도 성향의 청소년이 정치성향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있어서는  $F=1.39$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있어서는 정치성향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활동 수준에 있어서는  $F=8.1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 의하면, 진보와 보수 성향의 청소년이 중도 성향의 청소년보다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활동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F=.38$ ,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정치성향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에 있어서는  $F=4.26$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 의하면, 진보 성향의 청소년이 중도 성향의 청소년보다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국가기관 및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있어서는 중도 성향의 청소년이 높고, 나머지 정치참여 인식 영역에 있어서는 진보 및 보수 성향의 청소년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44 청소년의 정치성향 유형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

	구분	N	M	SD	F	사후분석
국가기관신뢰	보수	180	2.55	0.65	3.69*	중도>진보
	중도	1153	2.58	0.53		
	진보	651	2.51	0.52		
	Total	1984	2.56	0.54		
국가권력기관신뢰	보수	180	5.01	2.29	5.18**	중도>진보, 보수
	중도	1153	5.35	2.05		
	진보	650	5.06	2.06		
	Total	1983	5.23	2.08		
정치관심수준	보수	180	2.57	0.77	6.00**	진보, 보수 > 중도
	중도	1153	2.43	0.62		
	진보	651	2.51	0.68		
	Total	1984	2.47	0.66		
선거지식수준	보수	180	3.01	0.73	7.10**	진보>보수, 중도
	중도	1151	3.01	0.67		
	진보	650	3.14	0.70		
	Total	1981	3.05	0.68		
정치활동_개인	보수	180	2.02	0.74	9.61**	진보, 보수>중도
	중도	1154	1.86	0.55		
	진보	650	1.97	0.61		
	Total	1984	1.91	0.59		
정치성향 수준	보수	180	6.19	2.21	33.4**	진보>보수>중도
	중도	1132	5.85	1.70		
	진보	639	6.59	1.90		
	전체	1951	6.12	1.85		
정치정보접촉수준	보수	180	2.57	0.58	1.39	-
	중도	1153	2.59	0.51		
	진보	652	2.63	0.52		
	Total	1985	2.60	0.52		
정치참여 활동수준	보수	180	1.62	0.57	8.19**	진보, 보수>중도
	중도	1140	1.50	0.47		
	진보	650	1.58	0.52		
	Total	1970	1.54	0.50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보수	180	2.90	0.62	.38	-
	중도	1141	3.04	2.90		
	진보	650	2.98	0.60		
	Total	1971	3.00	2.24		
정치효능감	보수	179	2.66	0.54	4.26**	진보>중도
	중도	1140	2.62	0.50		
	진보	650	2.69	0.52		
	Total	1969	2.65	0.51		

\*:  $p < .05$ , \*\*:  $p < .01$

## (2) 청소년의 정치 성향 수준이 정치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성향 수준에 따른 정치참여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신뢰에 대한 회귀모형은  $F=10.47$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005$ , adj.  $R^2=.005$ 로 나타났으며,  $\beta=.073$ ,  $t=3.23$ ,  $p<.01$ 수준에서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력기관신뢰에 대한 회귀모형은  $F=39.90$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020$ , adj.  $R^2=.020$ 로 나타났으며,  $\beta=.142$ ,  $t=6.31$ ,  $p<.01$ 수준에서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관심수준에 대한 회귀모형은  $F=130.89$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063$ , adj.  $R^2=.062$ 로 나타났으며,  $\beta=.251$ ,  $t=11.44$ ,  $p<.01$ 수준에서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지식수준에 대한 회귀모형은  $F=117.79$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057$ , adj.  $R^2=.057$ 로 나타났으며,  $\beta=.239$ ,  $t=10.85$ ,  $p<.01$ 수준에서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 수준에 대한 회귀모형은  $F=97.84$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048$ , adj.  $R^2=.047$ 로 나타났으며,  $\beta=.219$ ,  $t=9.89$ ,  $p<.01$ 수준에서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대한 회귀모형은  $F=75.52$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037$ , adj.  $R^2=.037$ 로 나타났으며,  $\beta=.193$ ,  $t=8.69$ ,  $p<.01$ 수준에서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F=62.56$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031$ , adj.  $R^2=.031$ 로 나타났으며,  $\beta=.177$ ,  $t=7.91$ ,  $p<.01$ 수준에서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회귀모형은  $F=.00$ ,  $p>.05$ 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R^2=.000$ , adj.  $R^2=.000$ 로 나타났으며,  $\beta=-.001$ ,  $t=-.03$ ,  $p>.05$ 수준에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F=62.94$ ,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032$ , adj.  $R^2=.031$ 로 나타났으며,  $\beta=.178$ ,  $t=7.93$ ,  $p<.01$ 수준에서 정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활동 참여 중요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있어 청소년 정치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인식이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정적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표Ⅳ-45 청소년의 정치 성향 수준이 정치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모델값	$\beta$	t
국가기관신뢰	$R^2=.005$ , adjusted $R^2=.005$ , $F=10.477^{**}$	.073	3.237**
국가권력기관신뢰	$R^2=.020$ , adjusted $R^2=.020$ , $F=39.902^{**}$	.142	6.317**
정치관심수준	$R^2=.063$ , adjusted $R^2=.062$ , $F=130.895^{**}$	.251	11.441**
선거지식수준	$R^2=.057$ , adjusted $R^2=.057$ , $F=117.799^{**}$	.239	10.854**
정치활동_개인	$R^2=.048$ , adjusted $R^2=.047$ , $F=97.848^{**}$	.219	9.892**
정치정보접촉수준	$R^2=.037$ , adjusted $R^2=.037$ , $F=75.523^{**}$	.193	8.690**
정치참여 활동수준	$R^2=.031$ , adjusted $R^2=.031$ , $F=62.560^{**}$	.177	7.910**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R^2=.000$ , adjusted $R^2=.000$ , $F=.001$	-.001	-.033
정치효능감	$R^2=.032$ , adjusted $R^2=.031$ , $F=62.949^{**}$	.178	7.934**

\*\* :  $p<.01$

(3)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 여부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 여부에 따른 정치참여인식에 대한 차이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 신뢰에 있어서는  $t=.08,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기관신뢰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있어서는  $t=1.23,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권력기관 신뢰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관심 수준에 있어서는  $t=-16.9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을 한 청소년의 정치관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지식 수준에 있어서는  $t=-9.9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을 한 청소년의 선거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 수준에 있어서는  $t=-23.8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을 한 청소년의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있어서는  $t=-16.7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을 한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활동 수준에 있어서는  $t=-58.7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을 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6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 여부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

	정치참여 활동 유무	N	M	SD	t
국가기관신뢰	무	1,308	2.55	0.54	.08
	유	603	2.55	0.55	
국가권력기관신뢰	무	1,308	5.23	2.06	1.23
	유	603	5.12	2.11	
정치관심수준	무	1,308	2.30	0.61	-16.97**
	유	602	2.81	0.61	
선거지식수준	무	1,307	2.95	0.68	-9.95**
	유	600	3.28	0.64	
정치활동_개인	무	1,310	1.72	0.46	-23.88**
	유	600	2.33	0.63	
정치정보수용수준	무	1,310	2.47	0.50	-16.78**
	유	602	2.88	0.46	
정치참여 활동수준	무	1,310	1.26	0.21	-58.74**
	유	603	2.12	0.43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무	1,309	2.86	0.58	-10.59**
	유	603	3.15	0.49	
정치효능감	무	1,309	2.60	0.51	-6.13**
	유	603	2.75	0.49	

\*\* :  $p<.01$

정치참여 활동 중요성에 있어서는  $t=-10.5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을 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에 있어서는  $t=-6.13$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참여 활동을 한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참여 활동 여부에 있어 정치참여 활동을 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청소년의 정치참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분석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의 각 영역별(국가기관 신뢰, 국가권력기관 신뢰, 정치관심, 선거지식, 정치활동, 정치정보 수용, 정치참여 활동, 정치참여 활동 중요성, 그리고 정치효능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과 정치참여 인식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가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Model 6)은  $F=36.12$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496$ , adj.  $R^2=.482$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국가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학년( $\beta=-.076$ ,  $t=-2.75$ ,  $p<.01$ )과 학업성취수준( $\beta=.120$ ,  $t=3.86$ ,  $p<.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인식 변인은 국가권력기관 신뢰( $\beta=.597$ ,  $t=20.47$ ,  $p<.01$ )와 정치참여활동 중요도( $\beta=.102$ ,  $t=3.09$ ,  $p<.01$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권력기관 신뢰수준이 높고 정치참여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7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국가신뢰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β	t값	β	t값	β	t값	β	t값	β	t값	β	t값
상수		26.222 **		16.904 **		13.528 **		8.653 **		7.269 **		6.295 **
개인특성	성별	.004	-0.004	-1.00	.033	1.180	.035	1.253	.010	.351	.016	.557
	학년	-.147	-4.023 **	-.150	-4.057 **	-.086	-3.096 **	-.085	-3.078 **	-.082	-2.956 **	-2.757 **
	성적	.164	4.480 **	.145	3.544 **	.116	3.786 **	.127	4.104 **	.133	4.286 **	.120
가정환경	경제수준		.007	.160	-.009	-.276	-.005	-.177	-.013	-.424	-.014	-.455
	아버지 학력		.020	.303	.010	.193	.017	.345	.020	.408	.019	.390
	어머니학력		-.017	-.253	-.035	-.679	-.044	-.847	-.045	-.884	-.046	-.910
	보호자 학력		.058	.716	.065	1.081	.067	1.108	.069	1.152	.066	1.106
	부모 정치이야기		-.011	-.272	-.013	-.431	.011	.346	.020	.641	.021	.656
부모 정치활동		.007	.190	.002	.071	.007	.224	.000	-.016	.008	.271	
정의로운 사회인식				.649	23.457 **	.643	23.167 **	.629	22.518 **	.597	20.475 **	
정치관심과 활동	정치관심수준											
	선거지식수준											
	정치활동_개인											
정치정보수용 및 참여	정치정보접촉수준											
	정치참여_활동수준											
	정치참여_활동_중요도											
	정치효능감											
R2		.51		.54		.469		.476		.485		.496
adjusted R2		.047		.042		.461		.466		.473		.482
△ R2		.051		.004		.414		.007		.009		.012
F		12.744**		4.525**		62.258**		49.087**		41.128**		36.121**
△ F		12.744		.445		550.229		3.223		3.955		5.340

\*:  $p < .05$ , \*\*:  $p < .01$

(2)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Model 6)은  $F=32.3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469, \text{adj. } R^2=.454$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학년( $\beta=-.076, t=-2.75, p<.01$ )과 학업성취수준( $\beta=.120, t=3.86, p<.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인식 변인은 국가권력기관 신뢰( $\beta=.597, t=20.47, p<.01$ )와 정치참여활동 중요도( $\beta=.102, t=3.09, p<.01$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권력기관 신뢰수준이 높고 정치참여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개인특성	성별	.004	119	-.004	-100	.033	1,180	.035	1,253	.010	351	.016	557	
	학년	-.147	-4.023	-.150	-4.057	-.086	-3.096	-.085	-3.078	-.082	-2.956	-.076	-2.757	
	성적	.164	4.480	.145	3.544	.116	3.786	.127	4.104	.133	4.286	.120	3.869	
가정환경	경제수준		.007	160	.007	160	-.009	-276	-.005	-177	-.013	-424	-.014	-455
	아버지 학력		.020	303	.020	303	.010	193	.017	345	.020	408	.019	390
	어머니 학력		-.017	-253	-.017	-253	-.035	-679	-.044	-847	-.045	-884	-.046	-910
	보통자 학력		.058	716	.058	716	.065	1,081	.067	1,108	.069	1,152	.066	1,106
	부모 정치이야기		-.011	-272	-.011	-272	-.013	-431	.011	346	.020	641	.021	656
부모 정치활동		.007	190	.007	190	.002	107	.007	224	.000	-016	.008	271	
정의로운 사회인식						.649	23.457		23.167		22.518		.597	20.475
정치관심과 활동	정치관심수준					.081	2.208		2.208	*	1.571		.061	1.602
	선거지식수준					-.020	-652		-652		-1.281		-.020	-638
	정치활동개인					.022	582		582		-264		-.010	-226
정치정보수용 및 참여	정치정보접촉수준					.059	1,650		1,650		1,650		.055	1,569
	정치참여활동수준					-.022	-640		-640		-640		-.017	-517
	정치참여활동중요도					.091	2,778		2,778	**	2,778		.102	3,096
정치효능감														1,783
R2		.016		.017		.448		.452		.453		.469		
adjusted R2		.011		.005		.440		.441		.440		.454		
$\Delta$ R2		.016		.002		.430		.004		.001		.016		
F		3.755**		1.387		57.241**		44.520**		36.168**		32.345**		
$\Delta$ F		3.755		.215		550.229		1.616		.440		6.996		

\*:  $p<.05$ , \*\*:  $p<.01$

(3) 정치관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관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Model 6)은  $F=38.16$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510$ , adj.  $R^2=.497$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치관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참여 인식 변인은 선거지식( $\beta=.110$ ,  $t=3.56$ ,  $p<.01$ ), 정치활동( $\beta=.429$ ,  $t=11.19$ ,  $p<.01$ ), 정치정보 수용 수준( $\beta=.108$ ,  $t=3.11$ ,  $p<.01$ ), 정치참여 활동( $\beta=.086$ ,  $t=2.60$ ,  $p<.01$ ), 정치참여활동 중요도( $\beta=.063$ ,  $t=1.94$ ,  $p<.05$ ), 그리고 정치효능감( $\beta=1.183$ ,  $t=3.61$ ,  $p<.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관심과 활동 수준이 높고, 정치정보 수용 및 참여수준이 높으며,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관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관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개인특성	상수	.001	23.897**	-.013	19.281**	-.012	14.274**	.029	2.322*	-.009	.406	-.1207
	성별	-.029	-.787	-.009	-.252	.012	.338	.005	1.012	.012	-.320	-.413
	학년	-.199	-5.402**	-.127	-3.195**	-.148	-3.712**	-.051	-1.595	-.045	-.416	.112
가정환경	경제수준		-.018	-.451	-.019	-.476	.031	.997	.027	.886	-.029	-.955
	아버지 학력		-.071	-1.100	-.074	-1.154	-.058	-1.151	-.058	-1.167	.030	1.011
	어머니 학력		.112	1.676	.114	1.731	.043	.815	.043	.836	.047	.933
	보호자 학력		-.059	-.760	-.068	-.875	-.010	-.162	-.002	-.031	-.003	-.054
	부모 정치이야기		-.247	-6.425**	-.246	-6.443**	-.009	-.283	.008	.259	.016	.506
	부모 정치활동		-.021	-.554	-.022	-.586	-.004	-.135	.006	.212	.002	.058
정의로운 사회인식	국가기관 신뢰		.144	2.998**	.144	2.998**	.084	2.208*	.060	1.571	.060	1.602
	국가권력기관 신뢰		-.005	-.106	-.005	-.106	-.004	-.119	-.012	-.318	.005	.125
정치관심과 활동	선거지식수준				.188	6.207**	.188	6.207**	.148	4.807**	.110	3.564**
	정치활동수준				.560	17.235**	.560	17.235**	.445	11.367**	.429	11.197**
정치정보수용 및 참여	정치정보전출수준								.104	2.930**	.108	3.118**
	정치참여 활동수준								.078	2.288*	.086	2.602**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102	3.111**	.063	1.943*
	정치효능감										1.183	3.565**
R2		.040	.111		.130		.457		.480		.510	
adjusted R2		.036	.100		.116		.447		.468		.497	
$\Delta$ R2		.040	.071		.019		.327		.023		.030	
F		9.856**	9.802**		9.558**		45.443**		40.330**		38.167**	
$\Delta$ F		9.856	9.426		7.630		211.434		10.330		14.338	

\*:  $p<.05$ , \*\*:  $p<.01$

(4) 선거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거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Model 6)은  $F=13.6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271$ , adj.  $R^2=.251$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선거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보호자 학력( $\beta=-.145$ ,  $t=-2.03$ ,  $p<.01$ )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인식 변인은 국가권력기관 신뢰( $\beta=.111$ ,  $t=3.56$ ,  $p<.05$ ), 정치관심 수준( $\beta=.163$ ,  $t=3.56$ ,  $p<.01$ ), 그리고 정치참여활동 중요도( $\beta=.149$ ,  $t=3.78$ ,  $p<.15$ ), 그리고 정치효능감( $\beta=1.183$ ,  $t=3.61$ ,  $p<.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자 학력, 국가권력기관 신뢰, 정치관심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선거지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개인특성	성별	-0.02	27.185**	-0.02	19.317**	-0.07	15.293**	.005	8.476**	-0.42	6.159	**	5.298**
	학년	.004	-0.52	.022	-0.334	.034	-1.96	.031	.133	.039	-1.205		-1.394
	성적	-.178	-4.820**	-.122	-3.040**	-.129	-3.193**	-.074	-1.910	-.054	-1.417		-.845
가정환경	경제수준			-.019	-4.67	-.021	-5.23	-.006	-1.65	-.017	-4.43		-.295
	아버지 학력			.039	.599	.037	.573	.062	1.018	.065	1.078		.057
	어머니 학력			.115	1.701	.113	1.677	.071	1.118	.065	1.045		.068
	보호자 학력			-.195	-2.465*	-.195	-2.476**	-.172	-2.323*	-.152	-2.093*		-.145
	부모 정치이야기			-.210	-5.368**	-.210	-5.392**	-.101	-2.590**	-.080	-2.085*		-.071
정의로운 사회인식 정서관심과 활동	부모 정치활동			.073	1.923	.073	1.908	.085	2.379*	.083	2.321*		.067
	국가기관신뢰					.021	.432	-.030	-.652	-.059	-1.281		-.029
	국가권력기관신뢰					.088	1.835	.093	2.062*	.079	1.782		.111
	정서관심수준							.276	6.207**	.216	4.807**		.163
	정치활동_개인							.117	2.498*	.036	.699		.045
정치정보수용 및 참여	정치정보접촉수준									.058	1.336		.063
	정치참여_활동수준									.048	1.159		.051
	정치참여_활동_중요도									.195	4.961**		.149
정치효능감												.411	
R2		.032		.084		.095		.203		.239		.271	
adjusted R2		.028		.073		.081		.188		.221		.251	
$\Delta$ R2		.032		.052		.011		.108		.036		.032	
F		7.821**		7.235**		6.716**		13.782**		13.731**		13.644**	
$\Delta$ F		7.821		6.753		4.095		47.743		10.971		10.271	

\*:  $p<.05$ , \*\*:  $p<.01$

(5)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Model 6)은  $F=53.83$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595$ , adj.  $R^2=.584$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치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 $\beta=-.106$ ,  $t=-4.19$ ,  $p<.01$ )과 부모 정치관심 수준( $\beta=.132$ ,  $t=4.75$ ,  $p<.01$ )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인식 변인은 정치관심 수준( $\beta=.355$ ,  $t=11.197$ ,  $p<.01$ ), 정치정보 수용 수준( $\beta=.276$ ,  $t=9.24$ ,  $p<.01$ ), 정치참여 활동( $\beta=.194$ ,  $t=6.62$ ,  $p<.15$ ), 그리고 정치효능감( $\beta=.769$ ,  $t=2.53$ ,  $p<.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일수록, 부모 정치관심 수준, 정치관심 수용 수준, 정치참여 활동 수준, 그리고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개인특성	성별	-0.045	22.716 **	-0.070	21.604 **	-0.071	16.935 **	-0.064	7.906 **	-0.105	2.688	-0.106	2.366 **
	학년	-0.040	-1.223	-0.011	-2.048 *	.001	-2.088 *	-0.008	-2.322 *	.002	-4.143 **	.007	-4.193 **
	성적	-.231	-6.331 **	-0.116	-3.095 **	-.129	-3.418 **	-0.041	-1.332	-0.046	.076	-.047	-1.689
가정환경	경제수준			-0.082	-2.187 *	-0.082	-2.191 *	-0.071	-2.326 *	-0.047	-1.735	-0.049	-1.788
	아버지 학력			-0.039	-6.35	-0.040	-6.62	-0.04	-0.80	-0.020	-4.53	-0.017	-3.84
	어머니 학력			0.087	1.386	0.090	1.430	0.021	4.06	0.029	6.30	0.029	6.40
	부모자 학력			-0.031	-4.25	-0.037	-5.09	0.013	.220	.017	.320	.018	.341
	부모 정치이야기			-0.353	-9.703 **	-0.352	-9.696 **	-0.206	-6.756 **	-0.130	-4.665 **	-0.132	-4.757 **
정리로운 사회인식	부모 정치활동			-0.056	-1.569	-0.056	-1.587	-0.050	-1.741	-0.006	-.245	-0.005	-.207
	국가기관신뢰			.100	2.180 *	.100	2.180 *	.022	.582	-0.009	-.264	-0.008	-.226
	국가권력기관신뢰			-0.031	-6.82	-0.031	-6.82	-0.035	-9.951	-0.037	-1.144	-0.047	-1.433
정치관심과 활동	정치관심수준							.530	17.235 **	.350	11.367 **	.355	11.197 **
	선거지식수준							.075	2.498	.019	.699	.025	.894
정치정보수용 및 참여	정치정보접촉수준									.278	9.281 **	.276	9.243 **
	정치참여 활동수준									.199	6.813 **	.194	6.625 **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037	1.248	.041	1.392
정치효능감											.769	2.539 *	
R2		.057		.205		.212		.485		.590		.595	
adjusted R2		.053		.195		.199		.476		.580		.584	
$\Delta$ R2		.057		.148		.006		.274		.104		.005	
F		14.401**		20.286**		17.212*8		51.002**		62.895**		53.836**	
$\Delta$ F		14.401		21.958		2.890		186.919		59.377		2.855	

\*:  $p<.05$ , \*\*:  $p<.01$

(6)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Model 6)은  $F=26.6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421, adj. R^2=.405$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 $\beta=.117, t=3.86, p<.01$ )과 부모 정치관심 수준( $\beta=-.091, t=-2.70, p<.05$ )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인식 변인은 정치관심 수준( $\beta=.128, t=3.11, p<.01$ ), 정치활동 수준( $\beta=.395, t=9.24, p<.01$ ), 정치참여 활동( $\beta=.077, t=2.14, p<.05$ ),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beta=.121, t=3.44, p<.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부모 정치관심 수준이 낮고, 정치관심 수준, 정치활동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52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개인특성	상수	.131	26.786**	.106	22.016**	.106	16.514**	.140	5.778**	.115	4.442**	.117	4.608**	
	성별	-.029	3.541**	-.005	2.951**	.017	2.990**	.012	4.696**	.021	3.824**	.021	3.868**	
	성적	-.104	-2.798**	-.029	-1.144	-.050	-1.265	.038	.406	.047	.709	.044	.710	
가정환경	경제수준		-.037	-0.941	-.038	-0.975	.002	.075	.002	.075	-.001	-.018	-.001	-.032
	아버지 학력		.011	.179	.008	.134	.008	.134	.034	.647	.036	.690	.037	.699
	어머니 학력		.042	.631	.044	.677	.044	.677	-.020	-.367	-.021	-.377	-.022	-.412
	보호자 학력		-.018	-0.228	-.026	-.341	.014	.222	.014	.222	.024	.380	.024	.375
	부모 정치이야기		-.307	-8.010**	-.305	-8.051**	-.098	-2.897**	-.098	-2.897**	-.091	-2.704**	-.091	-2.704**
	부모 정치활동		-.020	-.548	-.022	-.583	.001	.043	.001	.043	.012	.366	.013	.396
정의로운 사회인식	국가기관신뢰			.148	3.085**	.148	3.085**	.081	2.004*	.066	1.650	.064	1.569	
	국가권력기관신뢰			.000	-.001	.000	-.001	.008	.201	.001	.018	.000	.008	
정치관심과 활동	정치관심수준							.146	3.690**	.116	2.930**	.128	3.118**	
	선거지식수준							.072	2.194*	.044	1.336	.050	1.476	
	정치활동개인							.442	10.889**	.394	9.281**	.395	9.243**	
정치정보수용 및 참여	정치참여 활동수준									.079	2.213*	.077	2.145*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115	3.314**	.121	3.446**	
정치효능감												.039	.107	
R2		.027		.123		.143		.404		.419		.421		
adjusted R2		.023		.111		.130		.392		.405		.405		
$\Delta R2$		.027		.095		.021		.260		.015		.002		
F		6.666**		10968**		10.701**		33.927**		31.501**		26.624**		
$\Delta F$		6.666		12.788		8.460		102.193		9.063		.774		

\*:  $p<.05$ , \*\*:  $p<.01$

(7) 정치참여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참여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Model 6)은  $F=20.78$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302$ ,  $adj. R^2=.344$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치참여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경제수준( $\beta=-.069$ ,  $t=-2.02$ ,  $p<.05$ )과 부모 정치활동 수준( $\beta=-.180$ ,  $t=-5.54$ ,  $p<.05$ ), 그리고 정치참여 인식 변인은 정치관심 수준( $\beta=.112$ ,  $t=2.60$ ,  $p<.01$ ), 정치활동 수준( $\beta=.305$ ,  $t=6.62$ ,  $p<.01$ ), 정치정보 수용 수준( $\beta=.085$ ,  $t=2.14$ ,  $p<.05$ ),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beta=.122$ ,  $t=3.31$ ,  $p<.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과 부모 정치활동 수준이 낮고, 정치관심 수준, 정치활동 수준, 정치정보 수용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활동 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개인특성	상수	.019	20.337**	.010	21.029**	.012	16.727**	.040	6.936**	.006	1.96	.005	5.880**
	성별	-.082	-2.215*	-.054	-1.550	-.044	-1.246	-.049	-1.553	-.045	-1.438	-.043	-1.368
	학년	-.155	-4.179**	-.033	-.858	-.042	-1.070	.034	.959	.042	1.211	.041	1.165
가정환경	경제수준			-.094	-2.405*	-.094	-2.431*	-.060	-1.748	-.068	-2.001*	-.069	-2.027*
	아버지 학력			.025	.397	.024	.375	.045	.814	.048	.868	.050	.910
	어머니 학력			.017	.256	.017	.260	-.039	-.671	-.040	-.708	-.041	-.726
	보통자 학력			-.076	-.997	-.079	-1.033	-.043	-.633	-.037	-.559	-.036	-.541
	부모 정치이야기			-.202	-5.352**	-.201	-5.346**	-.025	-.703	-.011	-.306	-.014	-.386
	부모 정치활동			-.194	-5.271**	-.195	-5.293**	-.176	-5.388**	-.180	-5.565**	-.180	-5.549**
	국가기관신뢰			.024	.519	.052	1.098	-.005	-.112	-.027	-.640	-.022	-.517
정치관심과 활동	국가권력기관신뢰							.030	.729	.025	.600	.023	.563
	정치관심수준							.128	3.086**	.096	2.288*	.112	2.602**
	선거지식수준							.069	2.008*	.040	1.159	.044	1.253
정치정보수용 및 참여	정치활동개인							.370	8.671**	.312	6.813**	.305	6.625**
	정치정보접촉수준									.088	2.213*	.085	2.145*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116	3.195**	.122	3.312**
정치효능감													
R2	.030		.149		.154		.343		.358		.362		
adjusted R2	.026		.138		.140		.329		.344		.344		
$\Delta R2$	.030		.119		.005		.189		.016		.003		
F	7.260**		13.736**		11.630**		26.132**		24.449**		20.789**		
$\Delta F$	7.260		16.500		1.985		67.277		8.671		1.172		

\*:  $p<.05$ , \*\*:  $p<.01$

(8)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Model 6)은  $F=18.9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340, \text{adj. } R^2=.322$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 $\beta=.152, t=4.73, p<.01$ ), 학업성취도( $\beta=-.093, t=-1.94, p<.05$ ), 선거지식 수준( $\beta=.135, t=3.78, p<.01$ ), 정치정보 수용 수준( $\beta=.138, t=3.44, p<.01$ ),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beta=.127, t=3.31, p<.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일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낮고, 경제수준이 높으며, 국가기관 신뢰, 정치관심 수준, 선거지식 수준, 정치정보 수용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4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활동 참여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개인특성	상수												
	성별	.173	4.754**	.168	4.656**	.172	4.859**	.187	5.763**	.163	5.024**	.152	4.738**
	학업성취도	-.083	-2.281*	-.066	-1.847	-.035	-.981	-.044	-1.345	-.039	-1.226	-.047	-1.483
가정환경	성적	-.186	-5.129**	-.147	-3.699**	-.175	-4.457**	-.103	-2.842**	-.113	-3.140**	-.093	-2.621**
	경제수준			.050	1.252	.047	1.220	.068	1.913	.075	2.140*	.077	2.223*
	아버지 학력			-.055	-.860	-.060	-.950	-.048	-.830	-.058	-1.022	-.061	-1.091
	어머니 학력			.084	1.262	.086	1.317	.030	.498	.037	.633	.042	.715
	보호자 학력			-.103	-1.319	-.112	-1.474	-.057	-.815	-.054	-.779	-.052	-.764
	부모 정치이야기			-.190	-4.930**	-.188	-5.002**	-.048	-1.296	-.031	-.861	-.025	-.689
정의로운 사회인식	부모 정치활동			.036	.948	.034	.924	.033	.977	.055	1.606	.044	1.315
	국가기관신뢰			.175	3.693**	.175	3.693**	.130	2.979**	.120	2.778**	.133	3.096**
	국가권력기관신뢰			.053	1.136	.053	1.136	.042	.978	.037	.879	.060	1.427
정치관심과 활동	정치관심수준												
	선거지식수준												
	정치활동개인												
정치정보수용 및 참여	정치정보접촉수준												
	정치참여 활동수준												
	정치효능감												
R2	.067		.110		.154		.295		.318		.340		
adjusted R2	.064		.099		.141		.281		.303		.322		
$\Delta$ R2	.067		.043		.044		.141		.023		.022		
F	17.184**		9.739**		11.669**		20.999**		20.409**		18.902**		
$\Delta$ F	17.184		5.678		18.221		46.860		11.769		7.724		

\*:  $p<.05$ , \*\*:  $p<.01$

(9)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및 정치참여 인식 변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Model 6)은  $F=5.1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111, \text{adj. } R^2=.089$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참여 인식 변인은 정치관심 수준( $\beta=.231, t=4.66, p<.01$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관심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55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특성, 그리고 정치참여인식 요인이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개인특성	상수	.022	29.619**	.019	20.449**	.023	15.674**	.028	9.242**	.021	8.946**
	성별	-.038	-1.028	-.030	-.798	-.011	-.300	-.016	-.445	-.014	-.380
	학년	.099	2.659**	.073	1.741	.087	2.083*	.042	1.032	.028	.680
가정환경	경제수준		.000	-.008	-.003	-.060	.005	.119	-.005	-.121	
	아버지 학력		-.008	-.121	-.011	-.163	.005	.069	.014	.212	
	어머니 학력		.006	.088	.006	.080	-.030	-.440	-.036	-.534	
	보호자 학력		-.028	-.338	-.031	-.386	-.003	-.035	.001	.018	
	부모 정치이야기		.085	2.110*	.085	2.111*	-.008	-.188	-.011	-.262	
정의로운 사회인식	부모 정치활동		.003	.063	.001	.035	.003	.077	-.010	-.248	
	국가기관신뢰		.079	1.549	.079	1.549	.042	.848	.034	.690	
정치관심과 활동	국가권력기관신뢰		.071	1.418	.071	1.418	.067	1.381	.065	1.345	
	정치관심수준						230	4.748**	.231	4.661**	
	선거지식수준						.063	1.570	.053	1.288	
정치정보 수용 및 참여	정치활동-개인						.020	.401	.053	.946	
	정치정보접촉수준								-.065	-1.392	
	정치참여 활동수준								-.054	-1.210	
R2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097	2.238**	
	R2	.011	.020	.020	.037	.037	.101	.101	.111		
adjusted R2	.007	.007	.007	.022	.022	.083	.089				
$\Delta$ R2	.011	.008	.008	.018	.018	.064	.009				
F	2.711*	1.537	1.537	2.491**	2.491**	5.644**	5.113**				
$\Delta$ F	2.711	1.003	1.003	6.514	6.514	16.597	2.469				

\*:  $p<.05$ , \*\*:  $p<.01$

제 V 장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조사  
질적 연구결과



## 제 V 장

###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조사 질적 연구 결과<sup>9)</sup>

이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치참여를 지원하여 선도적인 청소년의 정책 여건 마련과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의 요구 및 필요성 파악,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 및 요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학교 및 수련시설,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범주, 9개의 하위범주, 2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1 청소년 정치참여 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주제
청소년 정치참여의 어려움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사회적으로 불편함 청소년이 정치에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짐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함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참여 교육이 부족함 참여에 대하여 지원할 준비가 부족함
정치참여 활동의 필요성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성장함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의 표현하는 기회로 참여함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성장함
	실천적이고 가치 있게 사회에 기여함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펼침 실천적 활동을 통한 가치 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함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내용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함	기본적인 제도와 의사결정 구현에 이해가 필요함 정치참여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함
	실천적 정치참여를 경험함	이론과 병행된 실천적 움직임이 필요함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해 정치참여를 경험함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가치 있는 실현을 통해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임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여 지속적 참여가 필요함 목소리 반영에 대한 환류와 신뢰감을 줌
	자율적인 권한과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 참여의 내실화를 가져옴	자발적이고 주도적 정치참여가 내실화를 가져옴 청소년 활동의 규제보다는 자율성이 필요함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됨	학교와 지역사회의 만남과 유연성 필요함 참여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구성원의 의식 고취가 필요함

9) 이 부분은 강경균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작성하였음.

## 1. 청소년 정치참여의 어려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고,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긴다.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기에 어려운 구조이고,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한 인식과, 이념적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 반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은 ‘참여’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적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의 목소리 반영과 이에 대한 환류가 불명확하다. 또한 청소년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선동되거나, 정치적 올바른 선택을 못할 것이라는 편견, 정치적 판단에 대한 우려 등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 의견을 무시하거나 의견을 듣고 실제적 반영이 어려운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정치참여는 매우 부족하며,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의 기관에서 정치참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의해 쉽게 학교 밖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입시교육으로 인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하여 교사의 적극적 지지와 학교의 행정적 편리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의 교수·학습자료는 성인중심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고민을 만들어 주고, 학생 중심의 실제적인 정치참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청소년의 문제의식과 날 것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가 청소년이 정치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와 지원이 요구된다.

### 1)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고, 청소년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청소년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의견이 무시되고, 제시한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1)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사회적으로 불편함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사회적으로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한 인식과 정치적 단어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치’라는 단어가 이념적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청소년의 경우는 정치보다는 ‘참여’의 단어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직접 정치에 나가서 정책 일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청소년은 그것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자체도 청소년들은 뭐 이제 선거연령이 낮아져서 이제 고3정도는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의사들을 반영할 수 없고 또 자기가 어떤 뭐 정치,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대한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저, 저도, 저조차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정치에 대한 어, 본인의.. 그 어떤 정체성이나 이것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안타까운..마음이 좀 드는 거죠, 이제 예.

지역에서 정치참여 그 담에 뭐 청소년 의회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네 일할 때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게 정치라는 단어가 약간 성향이라던가, 이념적이라는 뉘앙스를 좀 많이 내포한다던가, 요 단어보다는 사회참여라던가 뭐 참여활동이라던가 요런 걸로 좀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 사실 많았었는데,

청소년 참여가 있으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로서? 뭐, 의견이 반영되고? 그러다보니까 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상황이 있... 있는 거 같긴 해요. 근데 저도 그게 어떤 게 정확히 개선되는지, 댜는지는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위의 진술처럼, 우리의 사회가 청소년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이고, 정치 참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는지 못 느끼고 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사회적으로 불편하다.

## (2) 청소년이 정치에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짐

청소년이라는 존재가 미성숙한 존재로 생각이 되고, 특히 정치는 성인이 참여하는 것이라는 인식되며, 이에 따라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청소년이라는 존재자체를 약간 미성숙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전제,

사실 거기에 국민이라는 말의 의미에, 우린 항상 국민은 어른으로만 생각했던거죠. 거기 괄호열고, 청소년 제외, 어린이 제외, 이런 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제외해놓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민주주의 어른들의 것이다. 내가 불편하긴 했어도, 아.. 좀 나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의식들, 인식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이 친구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거나 이데올로기에 선동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제 걱정 반 우려 반 이런 것 때문에... 좀 뭐야 좁게 생각하시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올바른 선택으로서 누군가를 대표로 뽑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로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한데...

그래서 나왔던 정책이나 혹은 나왔던 어떤 정치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니네들이 뭘 알아?'라고 하는, 이게 발전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지지해준다고 하면 혹은 동기가 좀 명확하다고 하면 함께하는데 조금 좋지 않을까...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선동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미성숙한 존재로 생각한다.

## 2)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함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정치참여는 매우 부족하며,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부족하다. 학교의 기관에서 다양한 정치참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제한이 있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으로서 공간적으로 행정에 의해 쉽게 학교 밖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입시교육으로 인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따라서 교사의 적극적 지지와 학교의 행정적 편리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시위주의 교육을 우선시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수학습자료는 성인중심의 시각으로 정치참여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지식이나 안내 차원에서 정치참여를 배우며,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는 교육을 제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치참여에 대한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고민을 만들어 주고, 학생 중심의 실제적인 정치참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래 정치 참여를 위한 지식이나 안내 차원의 인지적인 정치참여보다는 실천을 고려하는 학습이 아니라 현재 청소년이 실제로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 기회 제공, 성인들이 인식, 사회적지지 등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문제의식과 날 것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데, 그 고민을 정제하여 제시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력해짐을 느끼는 등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에 대하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

### (1)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참여 교육이 부족함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정치참여는 매우 부족하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으로서 공간적으로 행정에 의해 쉽게 학교 밖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입시교육으로 인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학교의 교수학습자료는 성인중심의 시각으로 정치참여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지식이나 안내 차원에서 정치참여를 배우며,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는 구속력이 있잖아요. 저도 학, 만약에 시청에서 공문을 안 보내주면은 제가 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공문이 이제 효력이 있다 보니까 공문을 확인을 하고 그렇, 그렇게 보내주, 주니까 어... 학생의 약간 자유? 구속력이 계속, 구속력을 계속 받으니까,

“거기 가야돼요.” 하면은 (으흠) 이렇게 사유가 있어야지 사유가 있어도 잘 안 빼줬거든요? 이렇게 학교에 계속 학생들을 구속시켜 놓는데 여기서 애네들이 자력을 터뜨려가지고 의견 제재를, 활동을 하라구요? 못하죠. 애들... 중, 고등학생들의 큰 목표가 수능이고 대학 입시인데 거기서 어떻게 옆길로 썰 수가 있겠냐.

위의 진술처럼 학교의 기관에서 다양한 정치참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교사의 적극적 지지와 학교의 행정적 편리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일단 여유가 있다고 생각,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교육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게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아까 얘기한 입시 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거로 그런 수업을 했을 때 느끼는 부담? 정책의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보내야지,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밖에서 자기의 불편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너무 바빠가지고, 눈 여겨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사실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위의 진술처럼, 입시위주의 교육을 우선시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성인중심의 시각에서의 참여방식들을 초등교과서라던가 중등교과서에서는 지금 아직도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건 결국은...

본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 그런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만들어주고, 또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노력을 못했죠.

초중고 교원들, 학생들, 학생들한테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한 번 정도라도 좀... 민주 시민 교육을 좀 받고 정치참여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요렇게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뭐 도내 몇 회를 하고 몇 명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도내학생들 숫자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사실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고민을 만들어 주고, 학생 중심의 실제적인 정치참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천을 고려하고 제시하는 학습방법이 아니라 미래에 성인이 된다면 '이런 식의 참여 방법이 있더라' 식의 어떠한 지식이나 안내차원에서의 참여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을 인지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이 사실 00로서 당연히 교과서에는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맨날 민주주의는 참여로부터 시작해서 완성된다라고 가르쳤으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관련된 뭐가 없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여의도 정치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임기는 가르칠지언정, 여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여의도 활동, 여의도 정치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흠) 지금 뭐 지방자치제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위의 진술처럼, 미래 정치참여를 위한 지식이나 안내 차원의 인지적인 정치참여보다는 실천을 고려하는 학습이 아니라 현재 청소년이 실제로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2) 참여에 대하여 지원할 준비가 부족함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는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는 교육을 제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치참여에 대한 역량을 함양하고 정치효능감을 갖아야 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아직 우리 사회가 정치참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청소년이 제시하는 고민을 정제하여 제안하는 등 사회적 지지와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나는 청소년들이 정책이나 혹은 정치를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구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교육도 있어야 되고, 활동에 대한 어떤 기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어..성인들이 받아줄 것이냐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아까 의원님들이나 혹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들었던 어떤 사례는 그 시장님과 대화 시, 대화하는 시간에 시장님이 청소년들이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박차고 나가더라,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성인들이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좀 있는 것이구요.

어른들은 이게 정치적인 참여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지 말라'라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 오더라고요, '이거는 하면 안돼'라고. 전 되게 좀, 답답한거죠. 아이들이 정치, 그니까 이걸 정치의 개념과 좀 멀게, 순수하게 "저는 우리 형들이 혹은 내 친구들이 이런 아픔을 겪었으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모의식을 하고 싶어요 하는데에, 동아리 활동을 좀 지원해주세요, 라고 아이들이 제안서를 들고 왔는데, 저희들은 이 제안서를 들고서 "미안해, 도와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음 정말 이렇게 십시일반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 부담해서 아이들한테 간식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 도움을 좀 주는 선생님들도 꽤 많으셨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면, 정책, 정치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으로 좀 기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좀, 좀 하게 되네요.

위의 진술처럼,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정치를 참여하는 데 있어 기회 제공, 성인들이 인식, 사회적지지 등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이들의 문제의식을 막 표현할 수,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으로써 참여위원회가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참여위원회도 일종의.. 제도가 된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어떠려나 모르겠지만, '날 것의 고민들'을 어.. 못하고, 자꾸 거기서 이걸 혼련시켜서 (숨 들이쉬며) 제안시키고 제안 시키다보니 나중에 올라간거는 (스읍) 약간은 좀.. 뭐 좀, 문제의식이 좀 많이, 완화된, 약화된? 그런 것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아쉽지 않나?

이제 운영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얘기, 이렇게 청소년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의견 표명을 하는데? 그것들이 뭔가 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웃음) 않거나 그런, 그래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쉬운대로 이렇게 막, 거의 0000 단체 자체도 꽤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희 단체에서 약간 주장하는 것들은 정말 어..... 저, 저게 현실 가능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거든요...(중략)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대로 된 결과로다가 산출이 되지 않으니까 어 쫘 무력해지는, 쫘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무력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뭐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뭔가 좀...

우리들의 사소한 불편들은 다 무시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참여라는 것은 우리의 불편들을, 를 해소하는 의견 표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 혼자서 아, 나 이거 녹차라떼 너무 맛없다, 녹차라떼 맛없으니까 니들 이걸 계산을 해라, 하는 거 보다 나, 아니면 여러 몇몇 사람들 다같이 모여가지고 다같이 의견 표출을 하면은 결국에 그, (으흠) 그렇게 되야지 높은신 분들이 무시를 안 하고 그 의견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뭔가 나와서 뭔가 좀 효능감을 사람들이 좀 느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래서 약간 이게 되네? 약간 이런 거를 좀, 알아... 뭔가 좀 느껴야 되지 않나...(중략) 쫘 그렇게 뭔가 아 이게 진짜 되네? 라는 거를 좀 느껴야지 다른 이, 다른 이제 어떤 관심 없던 분들도 보면서 아 저게 되네? 한 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의 문제의식 즉 날 것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 고민을 정제하여 제시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력해짐을 느끼는 등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에 대하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

## 2. 정치참여 활동의 필요성

청소년들이 정치참여 활동은 삶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하므로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권리를 펼침으로써 자기 권리를 획득하고, 자기 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된다.

## 1)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성장함

청소년이 정치참여는 좁은 의미에서는 선거라고 인식되지만, 넓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참여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견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정치참여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표현하며,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등 생활 속에서의 문제를 변화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의하여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삶의 주체로 성장해 나아간다. 이러한 정치참여 활동은 정치적으로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민교육차원의 활동으로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고, 의사소통방법을 배우며,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

### (1)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의 표현하는 기회로 참여함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정치참여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고 문제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치참여는 청소년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의 확대로서 인식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표현하는 기회이다. 이렇게 문제를 표현함으로써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을 표현하고 변화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 개념을 좀 넓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 또한 정치참여하면 요즘 가장 핫한게 이제 선거권 하향이다 보니까 선거교육으로 좀.. (중략) 이제 어떤 기준에 생각했던 좁은 의미의 정치보다는 이제 일상에서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보여줄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참여가 다 가능한 세대로 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창한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진짜로 진, 그런 게 아니니까. 정확히 말해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불편한 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해소할지, 자기가 의견 표출을 하는 게 정치참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는 이해로 인식하다보면은 이게 어떤 특정 성향 혹은 뭐 이데올로기적 상황으로서 판단하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해보구요.

위의 진술처럼,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치참여는 이데올로기적 상황으로서 판단하는 다소 거창하다고 생각하지만, 넓은 의미로 제시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편한 것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다.

뭐 참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은, 저것이 아닙니다라고, 토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혹은 저것에 대한 내 의견이 비판과 어떤 뭐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대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중략)말문을 터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어떤 참여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어..끼어서 관계하고 뭐 이런게,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인데,

나의, 나는 존엄한 존재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이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다면, 특히 국가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나도 마찬가지로 내 일상의 소소한 행복부터 큰 사회적 조건의 행복까지 이를테면, 입시제도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표현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은 정치참여를 통해 토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배우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표현하고, 변화하고자 노력을 해 나아갈 수 있다.

## (2)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성장함

청소년은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어른들의 말을 먼저 듣긴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어른들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걸 틀리다, 맞다, 옳다, 그르다~ 라는 생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일상 속에 나타나는 문제의식을 여기서 표현하고 함께, 때로는 대립되거나 뭐, 같이 동의하는 부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커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매우 중요한 정치..수업이고, 정치활동의 기초를, 그 역할을 하는거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이제, 민주시민이자 또한 그것이 곧 정치활동 아닌가,

다음에 실제로 지역사회나 청소년 기관, 기구에서 정치참여라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다라도 실제로 결국은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의사결정하는 과정들 그리고 절차들, 의사소통하는 방법들 이런걸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중략) 궁극적으로는 시민교육차원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고 또 예 시민성을 기르는 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거창하게, 약간 정치참여하면은 살짝 사람들이 약간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뭐 학생회를 열어 가지고 회의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일, 일상에서 쪼꼬만, 쪼꼬만 것들 다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정치의 그런 일환이고 다 정치참여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의 자기가 걸 그럼 우리가 다같이 먹을 거를 뭔가 쫘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도 하나의 약간 정치적인 그런 활동? 이 되지 않을까?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교육차원의 활동이다.

## 2) 실천적이고 가치 있게 사회에 기여함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은 청소년이 시민으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펼치고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정치참여 활동은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을 배우고 삶의 불편함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변화하는 것을 느끼는 등 정치참여 관련된 지식을 가치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실천적이고 가치 있는 정치참여 과정을 통해 소신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 (1)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펼침

청소년은 정치참여 활동을 경험하면서 그 동안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느끼고,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있는 기회를 가진다.

저도 선거운동도 한번 도와주고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기나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나이 먹고 하다보니깐, 약간 아 내가 이 중요한거를, 약간 좀 늦게 깨달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어~ 내가 당연히 나의 권리고, (어) 내가 당연히 그 행위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펼칠 수 있고, 나의 당연히 나의 권리인데, 그런 것들을 참.. 그니까 누리지 못하고, 좀 늦게 깨달은 느낌? 그래서 좀 중요해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이 친구들도 시민이니까 청소년들도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활동하는 시민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포함되는 삶에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어떤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은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권리를 존중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2) 실천적 참여활동을 통한 가치 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함

청소년은 실천적인 정치참여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이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을 배우는 등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자기주도성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언급하시고 또 역량이라는 개념을 지식적인 습득과 더불어서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중략)닥쳐있는 일상에서 자신이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을 배우는 게 시민교육에선 가장 중요한데 그 전반적인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광의적 차원에서의 정치참여에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정치참여 활동들을 좀 더 체계화 시켜서 이제 활성화시킨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습득하면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걸 기능이나 가치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사실상 온전히 완성된 시민교육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백업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사회나 어떠한 청소년활동기관시설에서의 정치참여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인지된 사람들을 좀 더 끌어내고 그걸 이제 가치적인 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약관이 필요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치참여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OO 소통인가? 뭔가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시민들이 길 가다가 불편한 것들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그 페이지에 올리면은 시에서 바로! 수, 수정을 해요. 뭐, 도로가 깨졌어요, 아니면 다음 날에 그걸 원상 복구 하고...답변에 실천까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정치참여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사소한 것들도.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이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식이 아닌 가치 차원에서 불편한 것을 제시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정치참여활동이 필요하다.

### (3)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함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자신의 소신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써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으로 필요하다.

또 나름대로의 자기 소신을 갖고 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길도 가르쳐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고 그런 교육들을 반드시 우리 청소년기에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일단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뭐 의견을, 의견을 나눌 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밑거름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일단 밑거름이라 생각해요.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에게 정치참여 활동은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등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 3.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의 내용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치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적 구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실제적인 정치참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 함양과 더불어 실천할 수 있는 활동과 만남이 필요하다.

## 1)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함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정책이 구현되는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참여 과정을 통해 실제 문제인식에서 정책입안자를 통해 정치가 실현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 (1) 기본적인 제도와 의사결정구현에 이해가 필요함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위해서는 정당과 관련된 성향 이념 보다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특정 정당에 성향이나 이념,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제시하는 정치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헌법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헌법 내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 자치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기본제도에 대한 법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보는데 이게 이제 기본...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외에 지역사회, 의사결정, 자치 등의 작동체계, 정책구현절차 등 기본적인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토론에 참여 그 다음 일상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측면에서의 참여 등 정치적인 상황들을 접하는 내용...한 중고등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뽑았고 회장을 뽑았고 학생자치기 이미 경험을 했던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싶은 건 투표소를 어떻게 찾아가서 뭐 이런 1인 1표를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어떻게 선출, 선정해야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하고 기준을 알고 그런 식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교육이 필요한거지,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교육에서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 등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하여 의사결정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정치참여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함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위해 일상 주변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여예산제와 같이 문제의식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후, 자신의 친구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하고, 서로 모여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정책입안자를 만나 전달하고, 실제 자신의 목소리가 실현되고 반영되었는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니까 처음에는 그런 예산문제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문제들을 인식하고, 어,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많이 했던거 같아요.

내가 학교에서 있을 때, 내가 학생회장이라 선거를 나갈 때, 우리 학교나 아니면 지금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로 되는 인식과, 그렇게 문제의식을 하면서, 어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인식을 했으니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렇게해서 제가 생각해냈던게 예산제였거든요, 참여예산제. 보자,

(음) 그래서 여러 사람들, 친구들, 저희는 거의 모임 때, 뭔가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공문을 학교에다 보내잖아요, 저때. (음) 아이들이 스스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들 있잖아요, 동생이 다니는 학교들이나 다 붙이러 다녀요, 직접. 직접 모으거든요.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공감을 받고, 지지자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한 다음에~ 나 말고, 나, 나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할까? 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들을 어떤 것,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어떻게보면 대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의견을 서로 나누는거죠...(중략)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주변에 관심있던 친구들을 데리고와서 같이 하다보니까, 의견이나 이런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좀 다양해지고, 그렇게 해서 어..

그 지지자들과 함께 공약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공약을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사람들이 봤던 거잖아요. 이제 모든 학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인식을 그렇게 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해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것들을 모아서, 그 00이 약간 좀 잘 만나, 시장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게, 시장님이 또 그거를 들어주셨어요. 시장님과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대화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더니, '알겠다, 내가 한번 가서 얘기를 나눠보자', (그랬)더니 처음에 시장님이 주무부서에 부탁들을 드리고, 저희가 미리 몇 가지 의견을 드렸을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주무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거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좀 많이 갖게 되었죠. (으응~) 그니까 나의 목소리도, 내가 생각했던 문제제기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른들도 시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니까, 여기 지원, (지원) 여기 지급, 여기 지원, 그니까 형식적으로 모아놓고, 근데 그런 활동들이 6년이라는 활동을,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요번에. 요번에 거의 최종적으로 바뀌고, 내년엔 한 번 더 바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정말 뜻깊게 생각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나눠먹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디든 좋으니 이것들을,

나온 정책들을 공론화시켜서 그것들을 순위를 정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알맞은 예산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위의 진술처럼, 정치참여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위기와 문화가 바뀔 수 있다.

## 2) 실천적 정치참여를 경험함

청소년이 단순한 운동차원에서 정치에 대한 실천의 강조보다는, 기본적인 이론적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와 법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을 함양하는 과정과 함께 실천적인 움직임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입안자들과 직접 만남의 자리를 통해 실제적으로 정책 반영에 대한 의견 개진과 함께 살아있는 문제의식을 즉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 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정치참여 경험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천과 경험을 할 수 있다.

### (1) 이론과 병행된 실천적 움직임이 필요함

청소년이 기본적 법제도 및 정치참여 관련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실천적 움직임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교육만으로는 실제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장과의 간담회, 지역사회 정치가와와의 만남,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등과 같이 살아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경험이 필요하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학습내용이 없이 단순히 어떤 운동적 차원에서의 실천만을 강조 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이 누가 주도하는 그 캠페인에 들어가냐에 따라서의 선택하는 폭이 굉장히 협소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 다양한 제도라든가 법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을 함양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실천적 움직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청소년 의회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의회다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에 맞게, 그 틀에 맞게 움직이거든요...(중략)영상 시청해도 그냥 영상 시청, 하라고 그냥 틀어주면은 애들이 안 봐요. 안 보고 근데 그게 어떻게 교육인가. 하고 싶기도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건을 만, 이제 의견을 나눠서 안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본회의를 하면은... 네, 그걸로 만약에 가결이 되면 거기서 시의회로 넘어가요. 시의회로 넘어가서 시의회에서도 그게 통과가 되면 아산시의회에서 그걸 고려를 해요. 네.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일단 한~ 단계는 건넌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시의회분들이랑만, 다시 만나서 이 부분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꿨으면, 제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눠 봐요.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원리죠 원리. 의사결정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론하고 밖으로 나오면은 실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론과 실전은 많이 다른...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학교에서 이런 정치나 법이나 헌법이 뭐냐 이런 거를 물론 나와 있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교과서 안에, 서, 있는 거랑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는 약간 정말 괴리감이 정말 큰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정말 기본적인 삼권분립, 이 정도까지만 그냥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그러면은 이 삼권분립이 되가지고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입법이 되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서 뭐 의회 안에 있는 이런 위원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어떤 게 있는 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다보니, 앓고 너무 약간 거창한 얘기들만 교과서에서 하다보니까 (흠쩍)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별로 기억에 안 남는 게 아닐까?

위의 진술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교육은 실제 학교 밖에서의 정치참여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교육이 현장에서 작동되는 절차와 실제로 사용되는 실천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도, 이제 선생님들도 바뀌어나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예전처럼 그냥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제 어떤 학교에서도 좀 혁신을 주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 이제 좀 수업의 방향들, 방법들을 조금 다양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앓튼 '그런 거와 관련하게 사회적이거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어,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소년들의 의견이었고,

최근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이.. 나이가 되게 어리신 분이 되셨어요, 초선 의원이신, 되게 어리신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시의원 중에서도 어, 30대, 40대 분이 꽤 있단 말을, 그니까 물론 적긴 하지만 그래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청소년들과 만나서 자리를 조금.. 갖게 하는게 어떠냐, 이런 얘길 좀 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어떤 정치색을 띠고서 말씀할 수 있으시구요, 그거 뭐 정치 성향이 그럴 수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으시고~ 어, 혹은 직업교육이나 혹은 진로교육이라, 진로교육이나 혹은 어, 비슷한, 최대한 비슷한 또래가 얘기해주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겠다~

자치.. 부분에서 이미 기존에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학급회장과 이제 학생회장이 있죠.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이룰테면 저.. 학교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자는 교장선생님이니까~ 교장선생님과 의 간담회랄까, 그런 것들이 에.. 그냥 일년에 한두번, 인사하는 수준? 혹은 뭐, 학교 운영위원회 와서 인사 한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밀도있게 학교의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학교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류의.. 어떤 어... 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야 되는데, 뭐.. 회장단들하고 한번,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 학교나 아니면 우리들이나, 해야될 게 상위개념 프로그램도 좋고, 이제는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좀 그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나 아니면 자기가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80%를 생활을 하잖아요.

의회가 많이 개설되었고 이제 만나서 수료증을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구 의회에 가서 이제 견학중심으로 그러니까 구의원들과의 만남, 그니까 하나의 체험프로그램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주는 물론 거기에 따른 만족감과 구의회가

이렇구나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까지 이해까지인지까진 됐지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구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만족, 그 평가는 사실 상 그 활동 이후에 그 좀 낮게 나왔거든요.

인제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인제 의회로 따지자면 본회의 방청,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러이런,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느껴,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타운 홀 미팅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매월 1회가 되든, 뭐 격월, 이래서 그날은 뭐 토요일날 오전에는 청소년들이 시청 로비에서 시장과 바로 만난다, 이런 류의 본인, 본인들이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야되는데, 물론 지금 뭐, 이런 뭐, 청원서 같은 건 쓸 수도 있는 여유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 정말 살아있는 문제의식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가!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고민하면서, 이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더, 생생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아까 뭐 저쪽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어른들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 고민하다 보면은, 다~ 이거, 짤라야 되거든요, 정제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고런 것들을 좀더,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위의 진술처럼, 실제적인 정치참여 교육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견학으로서의 정치참여가 아니라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고, 지역 정치가와와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을 반영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살아 있는 문제의식을 즉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 (2)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해 정치참여를 경험함

청소년은 학교 외에 다양한 정치참여를 경험할 수 있다.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여 학생회장 연합회 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민간기관 등에서 경험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뭐, 희망테이블이라 해서 자기 생각, 주장 같은 걸 말하면서 토론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모니터링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어.. 지금 현재의 참여기구가 하는 가장 정치활동의 참여가 아닌가의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 식의 활동을 최근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최근에 이제 청소년 예산참여제,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예산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어지는 측면이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면서 청소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소통했던게, 우리는 약간 기본? 기본기? 운동에서 따지는 약간 준비운동? 약간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처음에 청소년들이라고 하면은 한발을 내딛게 해주면 열 발을 뿔 려고하는 이런 성향들이 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한발 두발 나갈 수 있게 잡아줄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게 저는 참여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그 대학교를 가고, 지금 정당에 들어와있는, 정당.. 정치를 해서 이렇게 갈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MCA도 관련되어 있고, 그담에 아까 말한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제가 이제 뭐, 자문 겸해서 많이 또 갔었는데, 그리고 제가 사실 천안에서 오랫동안 어... 00지역 학생회장, 학생회장 연합회 모임을 제가 뭐, 때로는 교육청과 연계되기도 하고, 예전엔 무슨 뭐 어... 이를테면 뭐 교사단체라든가 이런 데랑 연결해가지고, 그런 팀들의 활동을 이제.. 해서 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 참여의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거죠. 뭐 정책 활동이라든가, 개네들은 직접 이를테면 뭐..어..우리 이제 뭐, 시내 나와서 뭐 피켓팅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이 참여기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적극적인 정치참여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참여에 준비운동이 되고, 추후 삶에서의 정치 활동에 밑거름이 된다.

####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청소년의 목소리에 대한 반영을 통해 신뢰감을 주어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활동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에 대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교사, 공무원, 가정에서의 부모 등 구성원의 올바른 정치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 1) 가치 있는 실현을 통해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임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반영 및 환류를 통해 신뢰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1)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여 지속적 참여가 필요함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이 일회성이고 단발성이며 행사적인 활동으로 운영되면, 앞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참여 의욕이 사라진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거기에 참여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자신들이 이야기한 게 결국 제도나 법적으로 변화되는 건 없이 그냥 그 행사를 위한 활동자로서 자기가 동원됐더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은 정말로 반대 진짜 무관심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반정부적 어떤 시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예 굉장히 비판적으로 늘 '학교에서 뭘 한다한들 난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정말로 기존에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보다도 더 무관심 해지는거나 반대성향을 가지게 되는 극단적 사례들을 봤거든요.

이제 중요한건 경험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기 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성공적인 어떤 만족감을 얻었느냐, 경험을 통해서 해봤자 그냥 나는 별 의미 없이 끝났다라는 어떤 실패감을 얻었느냐에 따라서는 효능감이 다르게 적용할 꺼 같거든요.

그니까 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하는 방식을 정한다. 근데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 제출하고 나는 그 급식 방식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손을 들고 투표 했더니 그대로 실현이 됐고 그 방식에 있어 나는 만족감을 느꼈고,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은 행사성 참여로부터 추후 참여활동에 무관심해진다. 따라서, 청소년이 정치참여가 성공적인 경험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성공적인 경험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의견 제시와 함께 의견이 실현되고 반영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거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좀 많이 갖게 되었죠. (응응~) 그니까 나의 목소리도, 내가 생각했던 문제제기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른들도 시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떠한 체험을 동일하게 했더라도 결국은 형식적으로만 참여를 하고 결국 교사라던가 지역에 있는 성인들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게끔 수동적인 입장으로 전략해버린다면 이 친구들한테는 그 한번이 큰 의미가 없는 오히려 해봤자 나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효능감에서는 더 저하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열심히 나는 참여해야지라는 어떤 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그 한 번의 체험이 정말 가치가 높아졌고 효능감이 커져서 그 이후의 참여에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는 데...

이 그러니까 해보는 체험이 한 번도 없는 기회를, 이제 한 번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는 작업이지만 그 한번 해봤다는 체험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때까지 끌어주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지속이 됐을 때, 앞서 말했던 책임이라던가 어떤 거기에 따른 권리 의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함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이 적극적이 주도적인 정치참여가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더불어 지속적인 체험 동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체험과 권리 및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정치효능감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 (2) 목소리 반영에 대한 환류와 신뢰감을 줌

청소년이 정치참여에 있어 목소리를 제시했을 때, 이에 대한 환류가 중요하다. 이러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환류는 청소년과의 신뢰감이 쌓이고, 앞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양적으로 뭘 자꾸 많이 만들고 행사를 하고 어떤 쇼맨십을 보여주는 활동이 중요한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친구들의 목소리 좀 정말 관심 있게 듣고 이게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 같은게 좀 자연스럽게 의사전달도 그렇고 돼야지 이 친구들, 청소년들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뭐 신뢰감이 생겨야 사실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상대가 믿지를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무슨 활동을 열심히 한들 의욕이 안 생길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골고루 균형이 맞춰졌을 때 이 정책참여라는 것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환류로 하여금 형성되는 신뢰감과 자신감은 추후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동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2) 자율적인 권한과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 참여의 내실화를 가져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자율적 권한과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 활동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온전히 정치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맡긴다면 청소년이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는 활동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운영 할 수 있다.

### (1) 자발적이고 주도적 정치참여가 내실화를 가져옴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에 권한을 주고,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면 정치참여 활동의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청소년 의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러한 활동들 이런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을 진짜 그것만 주로 봤으니까, 그 사례들을 본다면 청소년의회 지금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5개 구 라면은 한 지금, 한 18개, 19개가 다 의회가 마련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근데 그렇다면 이 친구들한테는 참여의 기회는 다 주어진거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평균 한 스무 명에서 서른 명 정도 되니까 물론 아주 다수는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는데 지역마다의 차이성을 본다면 사실은 그 지자체 장이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 청소년 들한테의 역, 그러니까 권한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주느냐에 따라서는 이 친구들이 그 이후에 더 그 후 년도에 어떤 활동으로 더 진행되고 더 발전되는가는 굉장히 차이성이 있더라고요.

저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 중에 제가 조금, 이거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16년도에,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 친구들이 공동으로 만들었던 기획 활동 중에 하나가 토론회였어요~ 계속 이제 협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주제로 가고, 어떻게 방법을 하고, 장소는 어디고, 시간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뭐,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아이들이 했었거든요. 저는 한번도 이걸 아니야라는 말을 안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개선할만한 혹은 만들고 싶은 하나의 시설이라던가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 돈을 자유롭게 우선순위를 두고 쓸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친구들은 똑같은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필요한 게 뭐고 그리고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는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아껴 쓰려면 어떻게 움직여야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도 이해하게 되고 자신들이 정한 예산에 따라서 구의 정책, 청소년 정책들이 변하는걸 보면서 그 다음에는 스스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법적 제도적 정비까지도 하는 자발성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에게 정치참여 활동의 권한을 주고, 자기주도적인 운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정책적 의견 제시로 이어져 정책 참여의 자발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정치참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정치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청소년 활동의 규제보다는 자율성이 필요함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자율성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적차원에서의 법 법적인 차원에서의 규제를 하지 그니까 그 어기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표현이라던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롭게 열어두는 게 오히려 이 친구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어, 어떤 권한을 갖고 본인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주는가, 혹은 어.. 성인들의 개입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권리를 빼는 건 아닌가, 혹은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게 아닌가에 싶은 부분들도 어, 좀 우려가 되는 생각이라서,

그 다음에 뭐 정당이나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규제가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제약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청소년들도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는 인식이 많이 있죠. 그니까 음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너네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 당연히 못한다고 하죠 그거는 어른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니까 뭔가 자꾸 해줘야지 하면서 성인기준으로 자꾸 뭘 만들어서 뭐 더 교육을 더 늘린다던가 뭐 조례에다가 뭐 단어를 넣어서 자꾸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그냥 이 친구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게 더 필요할 꺼 같아요. 규제를 좀 제한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성인 그니까 뭐 지금 집을 사고팔고 뭐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던가 노동적인 차원에서의 권리문제에 있어서는 보호자나 이런 보호가 필요한 영역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자율성 정도를 좀 열어주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웃음)?

혹은 뭐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떤 기본적인 여건 마련에서도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일 수 있어서, 저희가 요런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갈려고 하구요.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이 자신이 정치참여를 통해 하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게 열어두고, 규제와 관리보다는 권한과 기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맡겨 청소년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 3)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됨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와 청소년시설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만남을 통해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학교 안과 밖의 정치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알리고, 정치참여 활동이 가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과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는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정치참여 활동을 위해 관계자 및 정치가와와의 만남을 만들고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정치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청소년 성장 측면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꾸준히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참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정치참여 활동과 관련된 교사, 청소년시설 관계자, 지역사회 기관 관계자의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 및 지원과 관련한 자율성 보장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부모들 또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정치의식 함양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1) 학교와 지역사회의 만남과 유연성 필요함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 대상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만남을 통해 일반 청소년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며, 학교와 시설의 연계를 통해 대상의 확대 및 활동의 연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학교 안과 밖의 관계자의 만남과 효율적인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들과의 유연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에 소수에 있는 청소년들 다수의 일반청소년 대상이기보다는 소수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다 보니까 기회가 좀 한정되어 있고 이걸 이제 계속해서 지속하는 친구도 있고 한정되는 친구를 위해서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확산하고 움직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거 같아요. 지역 차원에서도 학교 차원에서도.

이 정치참여라고 하는 것이 (습) 어떤 소수의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좀 있구요. 다수의 청소년들이,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행사적 참여보다는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제한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힘들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설이나 기관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으나 솔직히 모집이라든가 연계성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은 지역이든 학교든 담당하시는 분들 간의 네트워킹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이든가 활동들을 학습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이는 활동과의 그 연동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우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에 학교라는 공식 교육기관을 다니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학교와의 연계가 사실은 많이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현장에서 혹은 청소년 어.. 수련시설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어.. 전체적인 청소년들이 이제 저희 기관에 오는 인원 중에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누리는 청소년은, 정말 몇 안 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어.. 일반적 다수의 청소년들이 어, 다양한 부분에 대한 체험을 벌이기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한 학생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공문으로 가면, 거의 공문이 이제 학교 특성상 이게, 관료적 특성상 공문이 거의 뭐, 제외를 하고, 정말 일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혹은 우연히 관심있어 준 선생님 한 두 분이 해줘서, 보내줘 가지고 겨우 이제 청소년참여위원회 꾸려지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 존재 자체를, 아는 청소년들이 사실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위의 진술처럼,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청소년시설에서도 활동 대상에 대한 모집과 학교와의 연계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 청소년시설에서의 정치참여 활동을 알리고, 학교와 청소년 시설 간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접점을 찾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00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권 연령 하향 되면서 선거 연수원에서 선거에 대한 교재를 만들었고 이 교재를 만들 때 경기도에 있는 사회과 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계신 뭐 장학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지도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움직여 나갈까, 왜냐면 선거라는 거는 사실은 특정 청소년, 물론 연령이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 일정 연령이 된 친구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라는 경계를 넘어서면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그 주체들이 모여서 이제 그 방안을 만드는 자리가 사실상 그동안은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오프라인 교육을 못하긴 했지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뭐 이렇게 전파할까 이런 아이디어를 모을 때 다 주체들이 모이니까 훨씬 좋은 방안들이 나오더라고요.

구의원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이슈를 관심 있어 하는 구의원은 이거를 만들어서 같이 구현될 수 있게끔 해주고 예...

이제 그런 기회들이 조금 더 마련되고 이 분들도 각자의 직책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경계를 좀 낮춰서 유연화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정치참여 활동 프로그램들도 좀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의 진술처럼, 지역사회와 정치가와의 만남을 만들고, 관계자와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운영하면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 (2) 참여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의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꾸준히 의견을 제안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 측면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문제 제안부터 정책 제안까지 이르는 종합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좀 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뭐 14살의 중학교 1학년에서 시작했는데 고3까지 혹은 대학생까지 갔을 때 어떠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장기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활동을 지속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벤트성으로 하나에 국한할 순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청소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좀 마련되는 것들은 필요할 것이고, 어.. 그것이 단순히 정치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민주시민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필터링, 이걸 필요한 거 아닌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도 하기도 하고 그거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에 대한 예산 본인이 책정해보고 안 되는 거라면 그럼 조례에는 또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총괄적인 종합적 차원에서의 이 지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 모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을 개발하고 각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3) 구성원의 의식 고취가 필요함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학교, 지역사회 각 기관 관계자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어려움을 좀 낮추어 청소년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에서의 교사 및 각 기관의 공무원이 정치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회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학부모를 포함한 성인 역시 올바른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참여라는 자체가, 혹은 정치라는 말 자체가 저도 사실은 아직도 좀 어려운데, 청소년들한테 '야, 너희도 참여해봐야 돼', '정치가 이거야'라고 알려주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 멀어보일 거 같아서, 이걸 좀 쉽게 어, 좀 문턱을 낮춰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문호를 개방해주면~

선생님들에게 정치의식 교육, 정치 활동을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정치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문제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의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의식 교육을 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모순이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이 지금 더 시급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경험이나 이런 걸 답습을 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어떤 걸 받치지 못하고 그냥 보편적인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니깐 학생들의 의식, 학생들도 거기서 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학생회 활동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사고 또 학교라고

민주시민 교육이 사실 어디 교육과정에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어떤 교과목 이것들이 공식적인 이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에서 도에서도 시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과정 내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민주시민 교육이 좀 더 교육과정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장 올바른 거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에게 뭔가 대상화 시켜가지고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어른들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사실 어른들이 가장 비민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학생들의 생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성세대들의 민주 의식? 이 뭔가 좀 법과 제대로 만들고 지켜줘야 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만 그것도 이제 자라는 학생들에게도 전파가 돼서 우리 사회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거지 집에서 아버지나 어른들은 엄마들은 또 다른 하나의 지배자가 되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배하는 또 뭐 어떤 지배자가 되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학생들이 형식적인 교육들을 아무리 받아도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서 정치의식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른 민주 국가가 되려면 어른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 더 필요합니다.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의 정치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경우 교육과정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배움으로써 정치참여에 대한 기초소양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이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인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 활동 및 교육에 자유를 보장하고,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청소년의 활동에 지원과 지지를 위한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제 VI 장



## 요약 및 제언



## 제 VI 장

### 요약 및 제언

#### 1. 요약

이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그리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양적연구방법은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양적연구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및 정책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학교 및 지자체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정치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의 요구 및 필요성 파악,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 및 요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된 양적·질적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의 양적연구결과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국내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공공기관(M=2.85, SD=.70), 학교(M=2.85, SD=.74), 군대(M=2.81, SD=.81)의 신뢰가 가장 높고, 국회의원(M=2.11, SD=.83), 정당(M=2.27, SD=.80), 국회(M=2.30, SD=.82)의 신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M=5.47, SD=2.17)로 가장 높고, 입법기관(국회)(M=4.82, SD=2.2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현황에 있어 청소년이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는 경우에 있어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느끼지 않는다’가 35.7%(699명)로 가장 높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다’고 느껴질 때’가 31.4%(615명),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4.4%(86명)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는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52.4%(991명)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10.5%(199명), 그리고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학생은 1.7%(32명)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에 있어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가 60.2%(927명)로 가장 높았고,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지위, 권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가 48.7%(867명)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 인식은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가 35.8%(690명)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37.9%(722명),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 25.4%(483명),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18.3%(348명), 그리고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 15.1%(287명)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관심과 참여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은 ‘2) 나는 나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2.67(SD=.78)로 가장 높고 ‘7) 나는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가 2.37(SD=.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선거참여에 대한 지식수준의 전체 평균은 3.05(SD=.69)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은 ‘7)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가 2.67(SD=.94)로 가장 높고, ‘4)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웃과 이야기한다.’가 1.41(SD=.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정치 성향 유형은 현재 상태의 유지와 변화의 균형을 이루는 중도 유형이 58.1%(1,154명), 변화하고자 하는 진보 유형이 32.8%(652명),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보수 성향이 9.1%(180명)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 성향 수준은 진보 M=6.58로 가장 높고, 보수 M=6.18로 중간이었으며, 중도 M=5.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 정보 수용 경로 및 정치활동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청소년이 정치 정보를 수용하는 매체의 유형은 1위: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가 3.03(SD=.77), 2위: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가 2.94(SD=.78), 3위: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와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가 2.93(SD=.92)로 나타났다.

정치 정보를 수용하는 매체를 통해 자신이 영향을 받는 순위는 1위: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가 497명, 2위: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가 323명, 그리고 3위: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가 313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수준은 1.53(SD=.50)로 낮게 나타났다. 이중에서 ‘1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가 2.11(SD=1.03)로 가장 참여가 높고, ‘1) 청소년 정당 단체’가 1.25(SD=.58)로 가장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활동 중요성에 대한 전체 인식 수준은 3.00(SD=2.23)으로 나타났으며, ‘1) 모든 선거 참여’가 3.29(SD=.78)로 중요성이 가장 높고, ‘5)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가 2.10(SD=2.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정치효능감 전체 평균은 2.64(SD=.51)이었으며 내적 효능감은 2.91(SD=.65), 외적 효능감은 2.43(SD=.5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지역에 따른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실태분석한 결과, 국가신뢰, 국가권력기관신뢰, 정치관심수준, 선거지식 수준, 정치활동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에 있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정치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신뢰에 미치는 정적영향관계(+)는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과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이었으며, 부적영향관계(-)는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영향관계(+)는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이었고, 부적영향관계(-)는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적영향관계(+)는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 그리고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이었고, 부적영향관계(-)는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선거지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적영향관계(+)는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그리고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이었고, 부적영향관계(-)는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정적영향관계(+)는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적영향관계(+)는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 그리고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적영향관계(+)는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와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정치성향 유형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에 있어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국가기관 및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있어서는 중도 성향의 청소년이 높고, 나머지 정치참여 인식 영역에 있어서는 진보 및 보수 성향의 청소년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 성향 수준이 정치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활동 참여 중요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있어 청소년 정치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인식이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정적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 여부에 따른 정치참여인식 차이분석에 있어 정치참여 인식에 있어 정치참여 활동 여부에 있어 정치참여 활동을 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의 각 영역별(국가기관 신뢰, 국가권력기관 신뢰, 정치관심, 선거지식, 정치활동, 정치정보 수용, 정치참여 활동, 정치참여 활동 중요성, 그리고 정치효능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과 정치참여 인식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신뢰가 높았고, 국가권력기관

신뢰수준이 높고 정치참여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력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국가권력기관 신뢰 수준이 높고, 국가권력기관 신뢰수준이 높고 정치참여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신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관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관심과 활동 수준이 높고, 정치정보 수용 및 참여수준이 높으며,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관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선거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았고, 국가권력기관 신뢰, 정치관심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 청소년일수록, 부모 정치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활동 수준이 높고, 정치관심 수준, 정치정보 수용 수준, 정치참여 활동 수준, 그리고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정보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자 청소년일수록, 부모 정치관심 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정치관심 수준, 정치활동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정보 수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참여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수준과 부모 정치활동 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고, 정치관심 수준, 정치활동 수준, 정치정보 수용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자일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낮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국가기관 신뢰, 정치관심 수준, 선거지식 수준, 정치정보 수용 수준, 그리고 정치참여 활동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관심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환경과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의 신뢰감에 있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치참여활동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의 신뢰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참여활동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지식 수준이 높고, 개인적 정치활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치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하겠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과 관심이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과연 정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의 대상과 중요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청소년 시기에 정치인식의 형성은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정치인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과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 학교성적과 대학입학에 몰입되어 있다. 이것이 비단 청소년들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이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가로막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치가 청소년들에게 중요성의 대상, 그리고

관심의 대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환경과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인식과 관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부모님들과의 정치적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시기에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 부모님과 정치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정치참여인식, 정치에 대한 관심, 개인적 정치적 활동 성향이 높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환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 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하나는 최초로 개인의 정치적 자아가 형성되고 발전될 무렵에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독점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발전된 인간적 유대와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닌 정으로 얽혀있어 개인의 사회·정치적 행동발달에 더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긍정적 정치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정치관련 긍정마인드를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전파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때 정치와 관련된 직접적 요소보다는 정치와 관련된 간접적 요소 예를 민주시민 교육이나 동료들간의 협력적 의사결정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치관련 요소를 접목시켜 자연스럽게 정치관련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인식과 관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와 또래 환경의 긍정적 정치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정보를 수용에 있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 선생님’, ‘선배’, 그리고 ‘친구(또래)’로 부터 제공되는 소식이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적 가치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학교의 환경은 단일의 변화를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학교의 환경은 청소년의 중요한 성장 시기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인식 함양을 위한 교과 또는 비교과활동을 통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인식, 관심 수준, 정치활동 참여를 증진과 관련하여 올바른 매체의 활용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도 매체를 통한 정치적 정보의 수용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인식, 관심 수준, 정치활동 참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등이 가장 많은 정치적 정보를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매체들의 정보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인식, 관심 수준, 정치활동 참여와 정적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대중매체는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미디어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특히 1인 미디어가 더욱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실적인 정보와 뉴스만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정치인식에 대한 형성에 있어 가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습관보다는 여러 채널을 통해 비판적으로 정보를 듣고 이를 재해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통신매체의 기술적 향상과 확대,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같은 전통적 사회구조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대중 매체를 찾는 청소년들과 이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 때 대중매체의 힘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바른 대중 매체의 활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정치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과 정치참여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사회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청소년 정책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충남

청소년들은 우리사회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부정부패의 심한 이유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며,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듯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여전히 많이 있으며, 그 깊이가 또한 매우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들을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변화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의 질적연구결과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질적연구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며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정치참여는 좁은 의미에서는 선거라고 인식되지만, 넓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은 청소년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하므로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정책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청소년기본법 5조2)” 고 제시하는 등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한 정치참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표현하며,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등 자신의 생활과 사회를 변화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의하여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삶의 주체로 성장해 나아간다. 또한 정치참여 활동은 일상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민교육차원의 활동으로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고, 의사소통방법을 배우며,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함으로써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하며,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을 배우는 등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은 사회 속에서 의사소통과정을 경험하고, 의사소통방법을 배우며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권리를 펼침으로써 자기 권리를 획득하고, 자기 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에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된다.

둘째,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정치참여 활동 자료는 부족하며,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 우선,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정책이 구현되는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참여 과정을 통해 실제 문제인식에서 정책입안자를 통해 정치가 실현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치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적 구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실제적인 정치참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 함양과

더불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우선 청소년이 삶속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친구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하며,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아진 의견을 의견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정치가 혹은 실현할 수 있는 정책입안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하며, 실제 자신의 의견이 실현되고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듯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차원에서 법과 지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식을 함양하는 과정과 함께 정치참여 활동을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의회,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청소년 동아리·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청소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기구의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회,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활성화, 학생자치법정 운영 및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으로는 학교 안과 밖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안과 밖에서의 참여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경험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고,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긴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기에 어려운 구조이고,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한 인식이 있으며, 학교에서 경험하는 정치참여 활동과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및 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목소리를 정책에 가치 있게 반영함으로써 정치참여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되어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정치참여효능감을 함양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심어준다면 정치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될 것이며 정치참여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다. 둘째, 청소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 활동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에게 정책대안과 문제해결을 주도하게 한다면 청소년이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는 활동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운영 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에서 정치참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의해 쉽게 학교 밖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입시교육으로 인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하여 교사의 적극적 지지와 학교의 행정적 편리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사회 구성원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정치참여 활동을 배우고, 수업자료는 성인중심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도록 학교 현장에서 고민을 만들어 주고, 학생 중심의 실제적인 정치참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자료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과 연계하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인식이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정치참여 활동과 관련된 교사, 청소년시설 관계자, 지역사회 기관 관계자의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 및 지원과 관련하여 자율성 보장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부모들 또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정치의식 함양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치인식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정치참여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 <제언 배경>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은 미흡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부모, 친구와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자기 의견 제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에 있어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 또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청소년만 참여하여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반영은 미흡하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 참여의식은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청소년정책 활성화 정도는 미약하다고 한다(이혜숙, 이영주, 2019). 청소년현장의 청소년 참여와 권리를 보면,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리며,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에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한다. 청소년 참여활동은 청소년이 자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관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첫째,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 예산제 운영, 청소년동아리·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청소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기구의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의 증진을 지원 : 학생회,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활성화, 학생자치법정 운영 및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 참여포털, 청소년원탁회의, 청소년목소리 페스티벌 등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위촉,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제안 적극 수용, 청소년 정치참여 사회적 논의를 통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청소년 참여기구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혜숙, 이영주(2017)의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에서도 청소년참여는 세계적 추세인데도 한국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청소년참여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참여 기반조성 및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조례 제·개정, 민관 거버넌스 운영과 자치구 전담조직 설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촉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활성화, 참정권 확대, 청소년 의견청취 의무화, 청소년 참여제도 제도화, 청소년참여 예산의 확대, 청소년참여 창구 상시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 활성화,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 사업 개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청소년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정책 확대를 청소년의 주도적·일상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창호(2020)는 여성가족부의 프로그램의 공모사업시 청소년 정치참여의 비중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고, 청소년시설에서 시군구 의회나 지자체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 정치교육과 참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지자체,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도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에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향상을 위한 청소년시설 중심의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에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청소년참여 확대, 청소년 권익증진, 청소년 참여방식 다변화에 대한 정책 및 사업 지원과 더불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정책적 변화와 청소년 정치참여 사회적 관심을 포함한 변화된 청소년정책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관계 공무원들의 청소년참여 활동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직접 운영이 필요하고, 각종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제도 운영과 각종 정책위원회에는 청소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과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용되어야만 청소년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시민들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변화가 활성화 되겠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관계 공무원들의 청소년참여 활동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직접 운영이 필요하고, 각종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제도 운영과 각종 정책위원회에는 청소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과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용되어야만 청소년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시민들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변화가 활성화 되겠다.

넷째,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는 그 동안 청소년활동은 문화활동이나 수련활동 등에 국한돼 있었고,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비교적 소홀하였다(이창호, 2020).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청소년시설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관심과 청소년참여 기반 조성이 되는 사업을 많이 운영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토론프로그램, 리더십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자기주도학습인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민주적 시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참여활동인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청소년자치활동, 청소년기자단, 청소년공연(문화)기획단, 청소년 주도 기획프로그램 지원 등의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 및 활성화를 해야 한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활동인(온라인)청소년정책 제안대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청소년모의선거, 청소년정치토론, 청소년정치강연, 청소년원탁회의 프로그램과 온라인 정책제안 시스템 등을 기획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 정치참여 향상을 위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노력

### <제안 배경>

우리나라도 청소년 정책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들이 마련되었으며, 대표적인 참여기구로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UN 등 청소년의 정책참여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배경으로 시작되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가 마련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었다. 특히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정에 참여하여 청소년 시각에서 청소년 의견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한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는 자기주도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이 기획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모니터링,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정책의 변화를 실현시킨다.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청소년특별회의의 13.5%, 청소년참여위원회 24.1%, 청소년운영위원회 37.0%의 비율을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이렇듯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구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인지도와 참여경험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및 홍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의 조직을 키울 필요가 있다.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참여기구의 연합 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다양한 토론회, 캠페인, 청소년 모의선거 등 청소년참여기구가 주최하는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고조시켜야 한다.

둘째,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는 학교를 통한 홍보 방법이 매우 유효하고 중요하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참여기구에 대한 직접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이나 SNS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이벤트나 캠페인을 수시로 진행하여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온라인 매체활용 능력이 급속도 향상되고 있음에도 선발된 위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에는 문제점이 있다.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과 참여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이 온라인 포털에서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논의 할 수 채널이 있어야 하고, 많은 청소년이 참여해야만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겠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경쟁력있는 다양한 대외활동 및 참여활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추세인 관계로 참여기구의 활동의 범위와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국가, 지자체, 학교,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교육받고 활동한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및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는 결과를 불러오므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겠다.

### 3) 정치참여 효능감 향상을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 <제안 배경>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높이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참여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참여 효능감은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체로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 효능감과 정치참여는 상호작용적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해외 청소년참여기구 사례를 보면, 독일 청소년참여기구는 연방청소년의회, 지구청소년의회, 지역청소년의회로 구성하고 있으며, 핀란드 청소년참여기구는 국가청소년위원회, 핀란드 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가 있으며, 영국 청소년참여기구는 영국청소년위원회, 영국청소년의회가 있다. 특히 영국 청소년위원회에서는 “Votes at 16” 프로젝트(16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에게 선거권 지지 요구, 16세 선거권 관련 기사, 비디오, 링크 등을 게재, 공유, 토론하고 SNS 통해 지역의회, 지역신문 등에 기사 기고하고 영향을 미침) 진행하였고,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는 스코틀랜드 각지의 청소년이 속한 선거구나 국가자원봉사회의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여 청소년의원을 선출한다. 핀란드 유럽 청소년의회(EYP)는 인터넷 기반 의회 포럼인 ‘어린이 의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모의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고 한다.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된 청소년 모의선거, 유니어발(JuniorWahl), 만18세 미만 독일의 청소년들이 연방총선부터 의회선거 등 실제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하고 있다. 2013년 총선 당시에는 U18투표소에 ‘투표놀이’를 하러 온 1~5살 투표자가 188명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어릴때부터 모의선거를 통해 정치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에서의 ‘청소년 모의선거’가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18세 선거권리는 물론 청소년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행사 방법을 일깨워 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참정권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그러나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교원의 참여 없이 청소년 모집을 스스로 하는 등 자체 계획과 경비로 행하는 모의투표는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투표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록 촛불집회 참여여부가 정치효능감 제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심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이창호, 2020)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시설에서의 정치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한 정치참여 효능감 증진 시키기이다.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해 변화를 직접 맛보며 정치참여의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표현하는 교육의 장이며,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이다. 지금까지 각 17개 시도 지역에서는 지역 청소년시설협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주관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모의선거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33개소 청소년참여위원회(시도17개소, 시군구216개소)와 331개소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모의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온·오프라인 모의선거’를 연합 추진한다면, 청소년의 목소리를 크게 조직적으로 알릴 기회가 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 효능감 증진으로 정치참여의 분위기 고조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표현하는 교육의 장이며,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게 되고, 청소년 모의선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겠다.

둘째, 청소년 정치동아리의 온라인 청원, 서명, 거리집회 참여 등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효능감 증진시키기이다.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의 수준에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부모, 친구보다는 주로 인터넷에서 획득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참여 관심과 의견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표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 실태에서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온라인청원, 서명에 참여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뉴스를 즐겨보고 토론을 좋아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동아리’를 구성하고, 모의의회, 모의재판, 사회 이슈 토론,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 거리집회 참여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 및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능력과 의사 결정능력, 지역사회 참여능력과 정책과정 참여능력을 키우며, 일반 동아리팀과 연합하여 행사하는 등 일반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등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많은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이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동아리 청소년들이 각종 시사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는 주장이나 모습이 언론이나 정치권에 노출된다면,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청소년들의 주장이 공론화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바뀔 것이다.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정치동아리’와 함께 기획하고, 함께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시설에서는 시군구 의회나 지자체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 정치교육과 참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변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만족을 느끼고, 청소년 정치인으로서 꿈을 키우고, 청소년 정치 관심이 고조에 정치참여 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참여기구, 각종 정책제안 위원회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학교의 노력

## 〈제안 배경〉

올해 초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졌고 이 후 4월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청소년에게 선거참여 및 선거법 안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18세는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은 물론, 선거법 상의 제한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안내하기 위하여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18세 새내기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방식 개발 및 ‘새내기유권자 교육교재’도 제작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대면에 의한 교육과 안내는 온라인 형식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제작된 교재는 학교와 교육청에 배부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1992년, 71.9%) 이후 28년만에 최대치인 66.2%의 투표율을 달성했다.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의 정책 여건 마련과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청소년은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반해 정치활동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정치활동 참여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등으로 단편적인 활동에 그쳤다.

18세로 하향된 선거연령과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와 학교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참여 효능감이 충족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방식의 변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 새내기유권자 연수, 기관·단체 협업 선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실습·체험 및 강의를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어 정치참여의 효능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회장선거의 경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운동, 투·개표까지 주도적으로 선거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향 제시 및 조언을 해 주는 방식이다. 즉 기존의 실습이나 체험에서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가 주축이 되는 민주시민교육 방향의 전환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체 수요를 충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하며 정치참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교원선거전문교육연수’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원연수는 여름방학 기간 중 5일 동안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의 중요성, 정치관계법 교육, 선거와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30명 내외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원연수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교원연수의 기간 및 인원을 확대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연수외에도 정치참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와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이 하향되자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관련 책자를 배부했다. 하지만 선거권 행사와 달리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사항은 복잡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각 반을 다니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서 처벌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책자만 보고 알 수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을 것이다. 18세는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후보를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권리는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를 때 자유롭고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대상을 18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8세가 될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정치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과 학교 특성에 맞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 등이 추진해 온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선거를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모의선거가 공무원(교사)이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4월 총선에 맞춰 모의선거 수업을 준비했던 교육청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시 이와 연계된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의 유권해석기관이지만 법을 벗어나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부합하고 교육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안은 학교와 교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유갑열 (2010). 한국 청소년들의 정치 인식과 사회활동 참여도-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경 (2013). 한국청소년의 정의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부패학회보, 18(4), 311-329.
- 김태준, 홍영란, 김홍민(2017). 청소년의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2016: 사회참여역량. 세종: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김형준(2018). 고등학생의 사이버 정치참여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효연 (2016). 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 안암법학, 51, 1-46.
- 성지원(2019). 소셜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및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병국(2018). 청소년 선거권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2020.11.15.  
검색.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1870.html#csidx:53a35e936595dbbec9f8dd364cf2a2f>.
- 신유정(2020). 만 18세, 사회에 첫 도장을 찍다. 2020.11.15. 검색.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9>
- 여성가족부(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2018청소년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 이윤주 (2015). 의사소통 연결망이 청소년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은(2008).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활동이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2017).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2020).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숙, 이영주(2017).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이혜숙, 이영주,(2019).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 참여 활성화 추진전략. 제270호 정책리포트, 서울: 울연구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2020년 5월 30일  
검색. [https://m.nec.go.kr/files/B0000341/202002/BBS\\_202002180232369482.pdf](https://m.nec.go.kr/files/B0000341/202002/BBS_202002180232369482.pdf)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록





# 부록



ID	설문지 연번(작성금지)		

## -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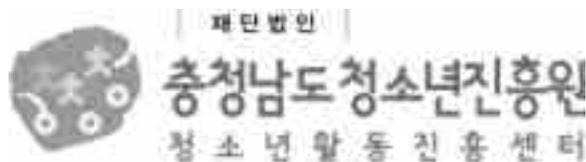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을 증진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과 인격형성 도모, 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청소년활동 정책수행기관입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선도적인 청소년의 정책 여건 마련과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개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조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문의 041)562-9003

### <설문조사 방법 안내>

설문응답은 해당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 하거나 직접 써주세요

# 1.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1. 여러분은 다음의 기관과 대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신뢰함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중앙 정부 부처(정부 조직)	①	②	③	④
2) 지방 자치 정부(도청, 시청, 군청 등)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4) 경찰	①	②	③	④
5) 군대	①	②	③	④
6) 정당	①	②	③	④
7) 국회	①	②	③	④
8) 국회의원	①	②	③	④
9) 공무원	①	②	③	④
10) 공공기관(지역주민센터, 시청,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등)	①	②	③	④
11)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유튜브, 팟캐스트 등)	①	②	③	④
12) 소셜 미디어(예 : 트위터, 블로그, 카페, 카톡 등)	①	②	③	④
13) 학교	①	②	③	④
14) 일반대중(대다수의 사람)	①	②	③	④

2. 국가권력에 있어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해당하는 수준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낮음	<----->								높음
입법기관(국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사법기관(법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중앙행정기관(정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법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다음은 우리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1) 언제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느껴지시나요?</p> <p>①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②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느낄 때          ③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고 느낄 때          ④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다고 느껴질 때          ⑤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⑥ 기타 _____</p>	<p>2) 언제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시나요?</p> <p>①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          ②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경우          ③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          ④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⑤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⑥ 기타 _____</p>
<p>3-1)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생각 하시나요?</p> <p>① 그렇다. <b>3-2)문항으로 이동</b>          ② 그렇지 않다. <b>4)문항으로 이동</b></p>	<p>3-2) 어떤 경우에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되시나요?</p> <p>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② 거주 환경을 통해서          ③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④ 잡지나 책을 통해서          ⑤ 기타 _____</p>
<p>4) 언제 우리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끼시나요?</p> <p>① 지위, 권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          ② 전관예우나 인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          ③ 재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          ④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⑤ 기타 _____</p>	<p>5) 왜 우리사회의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p> <p>① 소수를 위한 법이라고 느낀다.          ②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③ 법적용과정이 불평등하다고 느낀다.          ④ 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⑤ 기타 _____</p>
<p>6)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p> <p>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          ②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③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④ 공평하게 잘사는 사회          ⑤ 기타 _____</p>	

<다음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 II. 정치 관심과 참여

1. 다음은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나와 관련된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와 관련된 지자체의 정치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관련 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알고있다	알고 있다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1)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지켜야 하는 의무(법 준수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개인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자주 함	자주 함	가끔 함	전혀 하지 않음
1)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2)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3)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학교선생님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4)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웃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5)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TV 뉴스를 시청한다.	①	②	③	④
6)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7)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8)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이미지(사진·그림)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①	②	③	④
9)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다음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 III. 정치성향

※ 여러분의 정치성향의 유형과 수준을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치성향의 유형

지키고자 하는 성향(보수)	유지와 변화의 균형(중도)	변화하고자 하는 성향(진보)
①	②	③

#### 2. 정치성향 유형(1번 문항)의 따른 수준

낮음	<----->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IV. 정치정보 수용 매체

1-1. 여러분들은 정치관련 정보를 어느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자주 접한다.	자주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전혀 접하지 않는다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Zum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①	②	③	④
2) 인터넷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제공하는 뉴스	①	②	③	④
3) 방송사 인터넷(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이 제공하는 뉴스	①	②	③	④
4) 동영상 인터넷(Youtube 등) 및 팟캐스트 뉴스	①	②	③	④
5)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및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①	②	③	④
6) SNS(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뉴스	①	②	③	④
7) 일반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	①	②	③	④
8) TV 방송(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등에서 제공되는 뉴스	①	②	③	④
9) 가족 중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①	②	③	④
10) 가족 중 형제자매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①	②	③	④
11) 친구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①	②	③	④
12)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소식	①	②	③	④

1-2. 그렇다면 위의 매체(1-1문항 보기)중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어느 것인지 우선순위 3가지를 선택(번호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3순위 \_\_\_\_\_

<다음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어느 정도하는지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자주 함	자주 함	가끔 함	전혀 하지 않음
1) 청소년 정당 단체	①	②	③	④
2)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①	②	③	④
3) 인권운동단체	①	②	③	④
4) 자원봉사단체	①	②	③	④
5) 기부단체	①	②	③	④
6) 청소년 캠페인 활동	①	②	③	④
7) 동물 권리 및 복지 단체	①	②	③	④
8)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9)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단체(예 : 보이/걸 스카우트, YMCA)	①	②	③	④
10) 지역 내 동아리 활동(음악, 미술, 스포츠 팀 등)	①	②	③	④
1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①	②	③	④
12) 정치적 이슈에 대한 느낌 표시하기(좋아요, 싫어요)	①	②	③	④
13)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댓글 달기	①	②	③	④
14)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게시글 공유하기	①	②	③	④
15)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청원이나 서명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16)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집회, 시위 참여	①	②	③	④
17)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 토론, 설득하기	①	②	③	④

3.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 칸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중요함	상당히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모든 선거 참여	①	②	③	④
2) 정당단체 가입	①	②	③	④
3) 역사 학습	①	②	③	④
4)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 주시	①	②	③	④
5)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①	②	③	④
6) 정치 토론 참여	①	②	③	④
7)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①	②	③	④
8) 지역 사회에 유익한 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9) 인권증진운동 참여	①	②	③	④
10) 환경보호운동 참여	①	②	③	④
11) 열심히 일하기	①	②	③	④
12) 항상 법을 준수하기	①	②	③	④
13) 가족의 경제적인 안녕을 보장하기	①	②	③	④
14)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예 : 물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①	②	③	④
15) 자신의 의견을 가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①	②	③	④
16)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지원하기	①	②	③	④
17) 다른 지역 지원 활동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다음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 V. 정치호능감

※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2) 나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정치란 원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정치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투표를 하든 안하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①	②	③	④
6) 정치는 날씨와 같아서 나 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7)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치인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 되던지 정치활동은 다 똑같다.	①	②	③	④
9)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생각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유권자의 표에만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11) 정치인들은 선거 당선 후에는 시민들의 바람을 빨리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12) 투표는 내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다음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 VI.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지역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4. 학업성적 수준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5. 경제 수준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6. 부모님(보호자) 학력 ※해당하는 곳에만 표시(✓) 해주세요	1) 아버지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년제 대학교 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2) 어머니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년제 대학교 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3) 보호자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년제 대학교 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7. 부모님(보호자) 정치참여	1) 부모님(보호자)은 귀하에게 국내나 세계의 정치 상황에 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까? ① 전혀 안함    ② 가끔 함    ③ 자주 함    ④ 매우 자주 함 2) 부모님(보호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십니까? ① 활동 안함    ② 가끔 활동    ③ 상당히 활동    ④ 매우 열심히 활동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 2020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연구조사 연구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최현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센터장	책임연구위원
박준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활동정책팀	팀장	내부연구위원
성은모	안동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외부연구위원
강경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부연구위원
김문광	충청남도교육청	선임 장학사	외부연구위원
김재만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계장	외부연구위원
배영호	천안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외부연구위원

### 2020 충청남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결과보고서

**인 쇄** 2020년 12월  
**발 행** 2020년 12월  
**발 행 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4층  
 TEL 041-562-9003 FAX 041-552-1984  
 홈페이지 [www.cnyouth.or.kr](http://www.cnyouth.or.kr) 페이스북 /cnyouth08  
**발 행 인** 박영의  
**발간번호** CYDA-2020A-6  
**인 쇄 처** 우림기획 (041-557-8944)